



2026. 7.

국회에산정책처 | 세계경제

2026 세계경제

World Economy 2026: Economic Developments in Major Economies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6 세계경제

World Economy 2026:
Economic Developments in Major Economies

2026 세계경제

총괄 | 정 지 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강 은 정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작성 |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황 진 솔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김 경 수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이 두 영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강 은 정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지원 | 이 인 희 경제분석총괄과 행정실무관
안 소 정 경제분석총괄과 자료분석연구원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7.9.)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02) 6788-3780 | ea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발간사

세계경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의 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은 세계경제 질서와 경제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가 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새로운 기회와 위험요인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각국의 정책대응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산업과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세계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산업구조, 대외경제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 세계경제」를 발간하여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과 국가별 경제 동향, 그리고 주요 정책 대응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2026 세계경제」는 크게 세계경제 동향과 주요 국가별 경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계경제 동향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 동향에서는 주요국의 거시경제 여건과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교역 및 투자 관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26 세계경제」가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주요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경제의 대응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2026 세계경제」는 해외 주요국의 경제지표를 정리·분석하여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에서 대외경제 현황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 경제동향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국과 주요국 간 경제지표 비교와 관련된 내용은 「2026 대한민국 경제」의 제2부 제2장 주요지표 국제비교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5 세계경제

세계경제 성장률¹⁾



(2025년 연간 기준)

세계교역 규모 증가율



(2025년 연간 기준)

세계물가 상승률¹⁾



(2025년 연간 기준)

주요국 경제성장률

(2025년 기준)



미국
2.1%



유로지역
1.5%



일본
1.1%



중국
5.0%



브라질
2.3%



러시아
1.0%



인도²⁾
9.1%



베트남
8.0%

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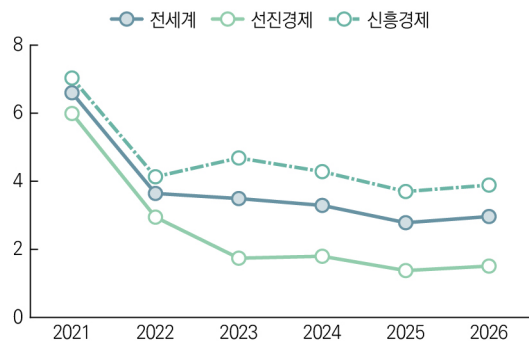
2) 달력 연도(Calendar year) 기준

자료: IMF, 각국 통계청

- 세계경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세계경제 성장률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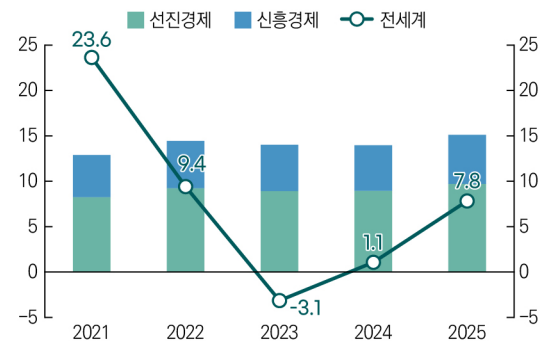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6.4.)

세계교역 규모 및 증감률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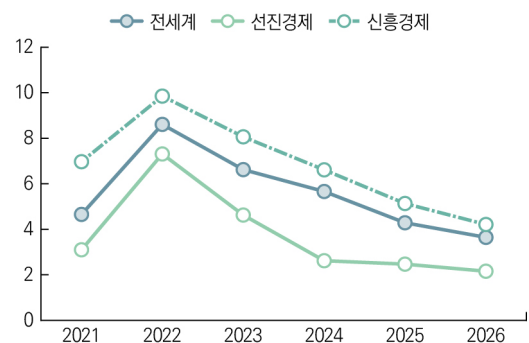
(전년대비, %)



자료: IMF,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MTS)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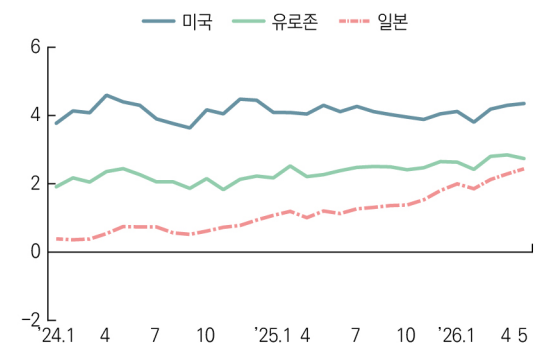
(전년대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6.4.)

주요국 국채(10년물) 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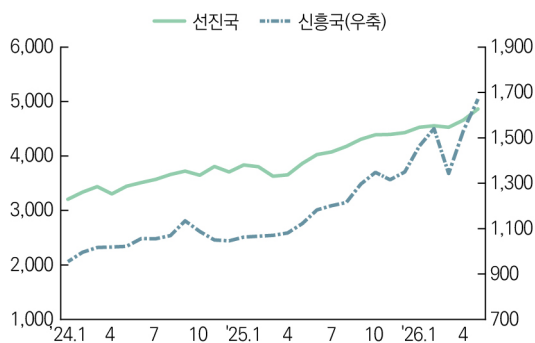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글로벌 주가지수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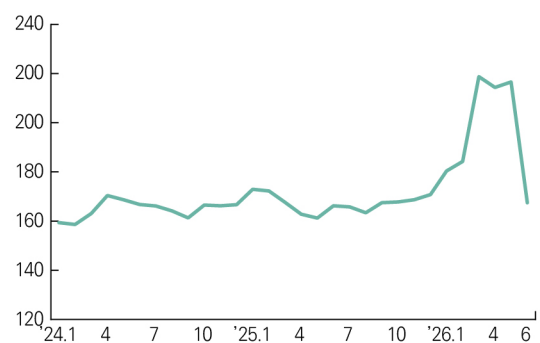
(포인트)



자료: LSEG

국제상품가격지수

(2016=100)



자료: IMF

차례

제1부 세계경제 동향

제1장 경제 동향 2

제1절 세계경제	2
제2절 세계교역	3
제3절 세계물가	4

제2장 금융시장 동향 5

제1절 채권시장	5
제2절 주식시장	6
제3절 외환시장	7
제4절 상품시장	8
1. 국제유가	8
2. 주요 비철금속 가격	9
3. 주요 곡물 가격	9

제2부 선진국 경제 동향

제1장 미국 12

제1절 거시경제 현황	12
1. 경제성장률	13
2. 산업생산	15
3. 소매판매	16
4. 투자	17
5. 물가	18
6. 고용 및 임금	19
7. 수출입	20
제2절 거시정책 현황	21
1. 통화정책	21
2. 재정정책	22

제3절 한-미 경제관계	23
1. 한국과 미국의 교역 현황	23
2. 한국과 미국의 투자 현황	25

제2장 유럽 28

제1절 거시경제 현황	28
1. 경제성장률	29
2. 산업생산	31
3. 소매판매	32
4. 물가	33
5. 고용	34
6. 수출입	35
제2절 거시정책 현황	36
1. 통화정책	36
2. 재정정책	37
제3절 한-EU 경제관계	38
1. 한국과 EU의 교역 현황	38
2. 한국과 EU의 투자 현황	40

제3장 일본 42

제1절 거시경제 현황	42
1. 경제성장률	43
2. 산업생산	45
3. 소매판매	46
4. 투자	47
5. 물가	48
6. 고용 및 임금	49
7. 수출입	50
제2절 거시정책 현황	51
1. 통화정책	51
2. 재정정책	52
제3절 한-일 경제관계	53
1. 한국과 일본의 교역 현황	53
2. 한국과 일본의 투자 현황	55

제3부 신흥국 경제 동향

제1장 중국 60

제1절 거시경제 현황	60
1. 경제성장률	61
2. 산업생산	63
3. 소매판매	64
4. 투자	65
5. 물가	66
6. 고용 및 임금	67
7. 수출입	68
제2절 거시정책 현황	69
1. 통화정책	69
2. 재정정책	70
제3절 한중 경제관계	71
1. 한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	71
2. 한국과 중국의 투자 현황	73

제2장 브라질 75

제1절 거시경제 현황	75
1. 경제성장률	76
2. 산업생산	78
3. 소매판매	79
4. 투자	80
5. 물가	81
6. 고용 및 임금	82
7. 수출입	83
제2절 거시정책 현황	84
1. 통화정책	84
2. 재정정책	85
제3절 한-브라질 경제관계	88
1.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 현황	88
2. 한국과 브라질의 투자 현황	90

제3장 러시아 92

제1절 거시경제 현황	92
1. 경제성장률	93
2. 산업생산	95
3. 소매판매	96
4. 투자	97

5. 물가	98
6. 고용 및 임금	99
7. 수출입	100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01
1. 통화정책	101
2. 재정정책	102
제3절 한-러시아 경제관계	104
1.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현황	104
2. 한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	106

제4장 인도 108

제1절 거시경제 현황	108
1. 경제성장률	109
2. 산업생산	111
3. 민간소비	112
4. 투자	114
5. 물가	115
6. 노동시장	116
7. 수출입	117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18
1. 통화정책	118
2. 재정정책	119
제3절 한-인도 경제관계	120
1. 한국과 인도의 교역 현황	120
2. 한국과 인도의 투자 현황	122

제5장 베트남 124

제1절 거시경제 현황	124
1. 경제성장률	125
2. 산업생산	127
3. 소매판매	128
4. 투자	129
5. 물가	130
6. 고용 및 임금	131
7. 수출입	132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33
1. 통화정책	133
2. 재정정책	134
제3절 한-베트남 경제관계	135
1.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현황	135
2. 한국과 베트남의 투자 현황	137

표차례

[표 II-1] 미국 경제 주요 지표(2025년)	12	[표 III-11] 브라질 경제 주요 지표(2025년)	75
[표 II-2] 미국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14	[표 III-12] 브라질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77
[표 II-3] 미국 국내총생산 중 민간투자 부문별 성장률	17	[표 III-13] 한·브라질 주요 교역 품목	89
[표 II-4] 미국 품목별 물가상승률	18	[표 III-14] 한국의 대(對)브라질 해외직접투자액 (업종별)	91
[표 II-5] 한·미 주요 교역 품목	24	[표 III-15] 브라질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91
[표 II-6] 한국의 대(對)미국 해외직접투자액 (업종별)	27	[표 III-16] 러시아 경제 주요 지표(2025년)	92
[표 II-7] 미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27	[표 III-17] 러시아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94
[표 II-8] 유로지역 경제 주요 지표(2025년)	28	[표 III-18] 한·러시아 주요 교역 품목	105
[표 II-9] 유로지역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30	[표 III-19] 한국의 대(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액 (업종별)	107
[표 II-10]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	30	[표 III-20] 러시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107
[표 II-11] 한·EU 주요 교역 품목	39	[표 III-21] 인도 경제 주요 지표(2025년)	108
[표 II-12] 한국의 대(對)EU 해외직접투자액 (업종별)	41	[표 III-22] 인도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110
[표 II-13] EU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41	[표 III-23] 인도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VA) ..	111
[표 II-14] 일본 경제 주요 지표(2025년)	42	[표 III-24] 인도 주요 품목별 수출	117
[표 II-15] 일본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44	[표 III-25] 한·인도 주요 교역 품목	121
[표 II-16] 한·일 주요 교역 품목	54	[표 III-26] 한국의 대(對)인도 해외직접투자액 (업종별)	123
[표 II-17] 한국의 대(對)일본 해외직접투자액 (업종별)	56	[표 III-27] 인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123
[표 II-18] 일본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56	[표 III-28] 베트남 경제 주요 지표(2025년)	124
[표 III-1] 중국경제 주요 지표(2025년)	60	[표 III-29] 베트남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126
[표 III-2] 중국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62	[표 III-30] 베트남 업종별 산업생산	127
[표 III-3] 중국 업종 및 주요 품목별 산업생산	63	[표 III-31] 베트남 상품 및 서비스 소매판매	128
[표 III-4] 중국 부문별 투자	65	[표 III-32] 베트남 주요 품목별·지역별 수출	132
[표 III-5] 중국 품목별 물가상승률	66	[표 III-33]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 2026-2030」 주요 내용	134
[표 III-6] 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68	[표 III-34] 한·베트남 주요 교역 품목	136
[표 III-7]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69	[표 III-35] 한국의 대(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액 (업종별)	138
[표 III-8] 한·중 주요 교역 품목	72	[표 III-36] 베트남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138
[표 III-9] 한국의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액 (업종별)	74		
[표 III-10] 중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74		

그림차례

[그림 I-1] 세계경제 성장률	2	[그림 II-21]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	32
[그림 I-2] 세계 불확실성 지수	2	[그림 II-22] 유럽 주요국 소매판매지수	32
[그림 I-3] 세계교역 규모 및 증감률	3	[그림 II-23]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33
[그림 I-4] 세계교역 증감률(월별)	3	[그림 II-24] 유로지역 부문별 소비자물가 기여도 ..	33
[그림 I-5]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4	[그림 II-25] 유로지역 취업자 수	34
[그림 I-6] 주요국의 에너지 가격 지원조치	4	[그림 II-26] 유로지역 경제활동참가율	34
[그림 I-7] 주요국 국채(10년)금리	5	[그림 II-27] 유로지역·독일·프랑스·네덜란드	
[그림 I-8] 주요국 기준금리	5	실업률	34
[그림 I-9] 글로벌 주가	6	[그림 II-28]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실업률	34
[그림 I-10] 주요국 주가	6	[그림 II-29] 유로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35
[그림 I-11]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7	[그림 II-30] 유로지역 수출입 증감률	35
[그림 I-12] 달러지수	7	[그림 II-31]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36
[그림 I-13] 국제상품가격지수	8	[그림 II-32] 유로지역 장기국채 평균수익률	36
[그림 I-14] 국제유가	8	[그림 II-33] 유럽 주요국 국채 금리 추이	37
[그림 I-15] 주요 비철금속 가격	9	[그림 II-34] 유럽 주요국 GDP 대비 국가부채	
[그림 I-16] 주요 곡물 가격	9	비율	37
[그림 II-1] 미국 경제성장률	13	[그림 II-35] 한-EU 교역 규모	38
[그림 II-2] 미국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13	[그림 II-36] 대(對)EU 무역수지	38
[그림 II-3] 미국 산업생산	15	[그림 II-37] 한국의 대(對)EU 해외직접투자 추이 ..	40
[그림 II-4]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15	[그림 II-38] EU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그림 II-5] 미국 소매판매	16	추이	40
[그림 II-6]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16	[그림 II-39] 일본 경제성장률	43
[그림 II-7]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 상승률	18	[그림 II-40] 일본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43
[그림 II-8]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그림 II-41] 일본 광공업 및 제조업 생산지수	45
취업자 증감	19	[그림 II-42] 일본 업종별 PMI 지수	45
[그림 II-9] 미국 시간당 임금 및		[그림 II-43] 일본 소매판매 및 가계소비	46
주당 근무시간 추이	19	[그림 II-44] 일본 소비자 심리지수	46
[그림 II-10] 미국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20	[그림 II-45] 일본 자본재 총공급 및 민간기계수주 ..	47
[그림 II-11] 미국 정책금리 추이	21	[그림 II-46] 일본 주택착공호수	47
[그림 II-12] 달러 지수	21	[그림 II-47]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	48
[그림 II-13] 한-미 교역 규모	23	[그림 II-48] 일본 식품과 에너지물가 상승률 ..	48
[그림 II-14] 대(對)미 무역수지	23	[그림 II-49] 일본 실업률과 고용률	49
[그림 II-15] 한국의 대(對)미국 해외직접투자		[그림 II-50] 일본 취업자수 증감	49
추이	25	[그림 II-51] 일본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50
[그림 II-16] 미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그림 II-52] 일본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추이	25	무역수지	50
[그림 II-17]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29	[그림 II-53] 일본은행 정책금리 추이	51
[그림 II-18] 유로지역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29	[그림 II-54] 일본 엔/달러 환율 추이	51
[그림 II-19] 유로지역 산업생산지수	31	[그림 II-55] 일본 정부부채 및 GDP 대비	
[그림 II-20]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	31	부채비율	52

[그림 II-56] 일본 재정적자 및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52
[그림 II-57] 한-일 교역 규모	53
[그림 II-58] 대(對)일 무역수지	53
[그림 II-59] 한국의 대(對)일본 해외직접투자 추이	55
[그림 II-60] 일본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55
[그림 III-1] 중국 경제성장률	61
[그림 III-2] 중국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61
[그림 III-3] 중국 산업생산	63
[그림 III-4] 중국 소매판매	64
[그림 III-5]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64
[그림 III-6] 중국 고정자산투자(누계)	65
[그림 III-7]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66
[그림 III-8] 중국 실업률	67
[그림 III-9] 중국 청년층 실업률	67
[그림 III-10] 중국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68
[그림 III-11] 중국 정책금리 추이	69
[그림 III-12] 한-중 교역 규모	71
[그림 III-13] 대중 무역수지	71
[그림 III-14] 한국의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73
[그림 III-15] 중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73
[그림 III-16] 브라질 경제성장률	76
[그림 III-17] 브라질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76
[그림 III-18] 브라질 산업생산	78
[그림 III-19] 브라질 재화 유형별 산업생산	78
[그림 III-20] 브라질 소매판매	79
[그림 III-21] 브라질 품목별 소매판매 변화	79
[그림 III-22] 브라질 총고정자본형성	80
[그림 III-23]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	80
[그림 III-24] 브라질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81
[그림 III-25] 브라질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81
[그림 III-26] 브라질 연평균 실업률 및 신규 일자리 수	82
[그림 III-27] 브라질 평균 실질임금	82
[그림 III-28] 브라질 수출입 및 무역수지	83
[그림 III-29] 브라질 수출 상위 5개국	83
[그림 III-30] 브라질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물가 목표	84
[그림 III-31] 브라질 기준금리 및 국채 10년물 금리	84

[그림 III-32] 브라질의 주요 경제정책	86
[그림 III-33] 한-브라질 교역 규모	88
[그림 III-34] 대(對)브라질 무역수지	88
[그림 III-35] 한국의 대(對)브라질 해외직접투자 추이	90
[그림 III-36] 브라질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90
[그림 III-37] 러시아 경제성장률	93
[그림 III-38] 러시아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93
[그림 III-39] 러시아 산업생산	95
[그림 III-40] 러시아 주요 에너지자원 생산 변화	95
[그림 III-41] 러시아 명목소매판매	96
[그림 III-42] 러시아 실질소매판매	96
[그림 III-43] 러시아 총고정자본형성	97
[그림 III-44]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97
[그림 III-45] 러시아 소비자물가 및 물가 목표	98
[그림 III-46] 러시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98
[그림 III-47] 러시아 실업률 및 취업자 수	99
[그림 III-48] 러시아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99
[그림 III-49] 러시아 상품 수출입	100
[그림 III-50] 러시아 서비스 수출입	100
[그림 III-51] 러시아 소비자물가 및 물가 목표	101
[그림 III-52] 러시아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	101
[그림 III-53] 한-러시아 교역 규모	104
[그림 III-54] 대(對)러시아 무역수지	104
[그림 III-55] 한국의 대(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106
[그림 III-56] 러시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06
[그림 III-57] 인도 경제성장률	109
[그림 III-58] 인도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109
[그림 III-59] 인도 산업생산 증감률	111
[그림 III-60] 인도 민간소비지출	112
[그림 III-61] 인도 소비자신뢰지수	112
[그림 III-62] 인도 총고정자본형성	114
[그림 III-63] 인도 FDI 유입액 및 증감률	114
[그림 III-64] 인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15
[그림 III-65] 인도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	115
[그림 III-66] 인도 실업률	116
[그림 III-67] 인도 경제활동참가율	116
[그림 III-68] 인도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117
[그림 III-69] 인도 기준금리	118
[그림 III-70] 인도 본원통화 및 광의통화 증가율	118
[그림 III-71] 한-인도 교역 규모	120

[그림 Ⅲ-72] 대(對)인도 무역수지	120
[그림 Ⅲ-73] 한국의 대(對)인도 해외직접투자 추이	122
[그림 Ⅲ-74] 인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22
[그림 Ⅲ-75] 베트남 경제성장률	125
[그림 Ⅲ-76] 베트남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125
[그림 Ⅲ-77] 베트남 산업생산	127
[그림 Ⅲ-78] 베트남 소매판매 증감률	128
[그림 Ⅲ-79]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129
[그림 Ⅲ-80] 베트남 투자 주체별 총 투자 규모 ..	129
[그림 Ⅲ-81] 베트남 소비자물가 상승률	130
[그림 Ⅲ-82] 베트남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0
[그림 Ⅲ-83] 베트남 경제활동참가율	131
[그림 Ⅲ-84] 베트남 실업률	131
[그림 Ⅲ-85] 베트남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132
[그림 Ⅲ-86] 베트남 기준금리	133
[그림 Ⅲ-87] 베트남 업종별 신용증가율	133
[그림 Ⅲ-88] 한-베트남 교역 규모	135
[그림 Ⅲ-89] 대(對)베트남 무역수지	135
[그림 Ⅲ-90] 한국의 대(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	137
[그림 Ⅲ-91] 베트남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37

World Economy 2026:
Economic Developments in Major Economies





2026 세계경제

World Economy 2026:
Economic Developments in Major Economies

I

세계경제 동향

제1장 경제 동향

제2장 금융시장 동향

제1절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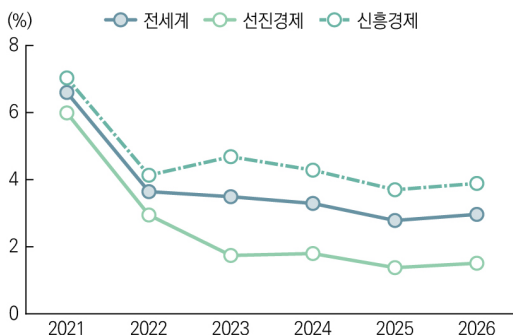
■ 2025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 세계교역과 생산 등 주요 실물지표는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으며, AI·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
-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로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

■ 2026년 들어 세계경제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확대로 하방위험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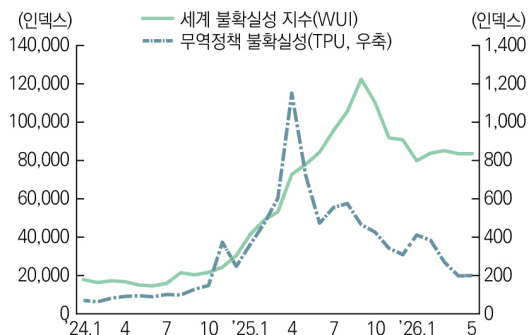
- AI·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와 주요국의 정책지원이 성장세를 견인하였으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불확실성을 확대
-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

[그림 I-1] 세계경제 성장률



주: 2026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6.4.)

[그림 I-2] 세계 불확실성 지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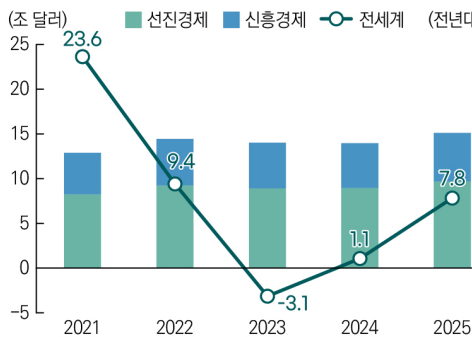
주: 무역정책 관련 기사 비중이 1%인 경우를 100으로 정규화

자료: Ahir, Bloom, and Furceri(2022), Caldara *et al.*

제2절 세계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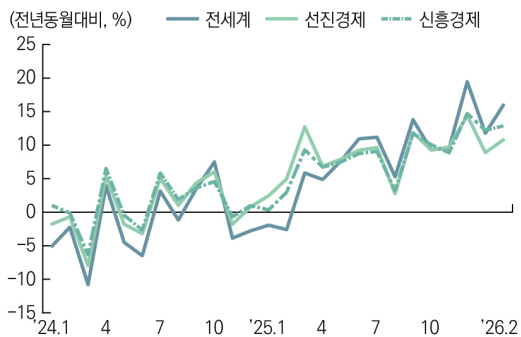
- 2025년 세계교역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와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
 - 2025년 세계교역 규모는 14조 6,395억 달러로 전년대비 7.8%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냄
 - 미국의 관세 인상에 앞선 조기 선적(front-loading) 수요와 AI·디지털 관련 품목의 교역 확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교역의 회복력을 뒷받침
 - 반도체와 디지털 장비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 교역 확대와 신흥국의 견조한 수입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²⁾
- 2026년 1~2월 세계교역 규모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
 - 반도체와 디지털 장비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 품목의 수출 호조와 아시아 지역의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세계교역은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
 - 2026년 1~2월 중 아시아 주요국의 교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중국 25.8%, 홍콩 68.1%, 대만 57.1%, 한국 12.4% 증가하는 등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그림 I-3] 세계교역 규모 및 증감률



자료: IMF,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MTS)

[그림 I-4] 세계교역 증감률(월별)



자료: IMF,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MTS)

1) 세계 불확실성 지수(WUI, World Uncertainty Index)는 IMF와 스탠퍼드대 등이 공동 개발한 지표로, 국가별 경제 보고서나 주요 언론 기사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빈도를 측정해 수치화한 글로벌 경제 지표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는 Caldara et al.(2020)이 개발한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관세, 무역협정 및 수출입 규제 등 무역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을 의미

2) OECD(2026),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6 Issue 1" (June 3)

제3절 세계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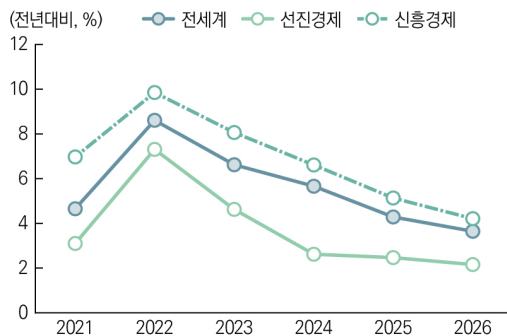
■ 2025년 세계물가 상승률은 4.1%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5.8%에서 2025년 4.1%로 하락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둔화³⁾
-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정상화, 식품가격 상승세 둔화 및 긴축적 통화정책의 누적 효과 등에 힘입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둔화

■ 2026년 들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요국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재차 자극하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과 저소득층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일본, 헝가리, 인도,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신흥국은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
- 다만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⁴⁾

[그림 I -5]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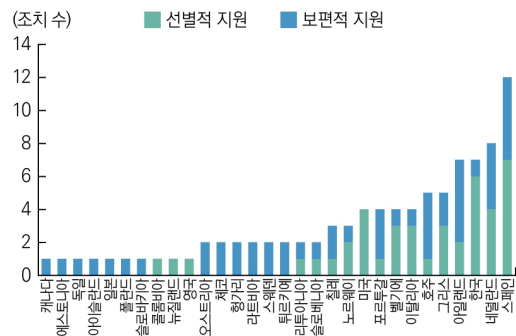


주: 1. 연평균

2. 2026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6.4.)

[그림 I -6] 주요국의 에너지 가격 지원조치



주: 1. 선별적 지원은 특정 계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며, 보편적 지원은 가격상한제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을 의미

2. 2026년 5월 18일 기준

자료: OECD

3)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5

4) OECD(2026),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6 Issue 1," (June 3)

제 2 장

금융시장 동향

제1절 채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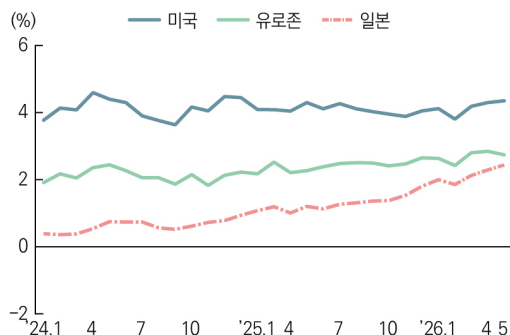
■ 2025년과 2026년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는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전년대비 상승

- 2025년 장기 국채(10년물) 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주요국 재정적자 확대 등에 대한 우려로 상승
- 2026년 장기 금리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유가 급등 등으로 상승
 - 미국 국채 10년물(%): ('24년) 2.4 → ('25년) 2.6 → ('26.5월) 2.9
 - 유로존 국채 10년물(%): ('24년) 4.3 → ('25년) 4.2 → ('26.5월) 4.3
 - 일본 국채 10년물(%): ('24년) 1.0 → ('25년) 1.6 → ('26.5월) 2.4

■ 2026년 주요국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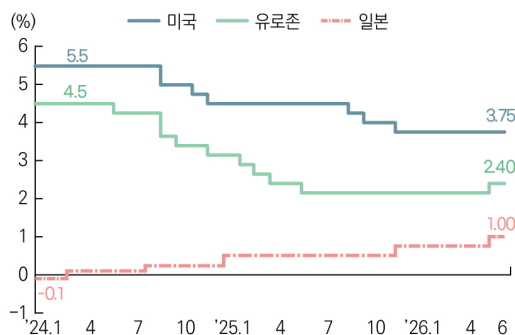
- 2025년 주요국 중앙은행은 무역 불확실성 대응, 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실시
- 2026년 들어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 6월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미 연준 연내 인상 가능성 시사

[그림 I-7] 주요국 국채(10년)금리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유로존은 독일 국채 금리 기준
자료: Morningstar

[그림 I-8] 주요국 기준금리



주: 유럽중앙은행은 레피금리(refinancing rate) 기준
자료: Morningstar

제2절 주식시장

■ 2025년 전세계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년대비 상승

- 2025년 선진국 주가는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술주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 유럽 및 일본의 재정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 신흥국 주가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기술주 기업의 수출 확대 전망 등으로 상승⁵⁾

- 선진국 지수(포인트): ('24년) 3,530 → ('25년) 4,050 → ('26.5월) 4,628

- 신흥국 지수(포인트): ('24년) 1,071 → ('25년) 1,234 → ('26.5월) 1,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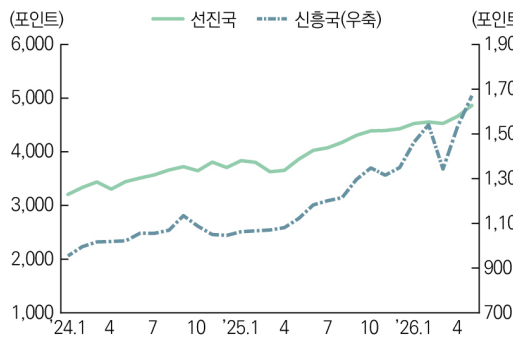
■ 2026년 주요국 주가는 중동 지역 분쟁 발생 등으로 단기 하락하였으나, 충격이 완화되며 반등세

- 미국 다우존스지수(포인트): ('26.1월) 48,892 → (3월) 46,342 → (5월) 51,032

- 독일 닥스지수(포인트): ('26.1월) 24,539 → (3월) 22,680 → (5월) 25,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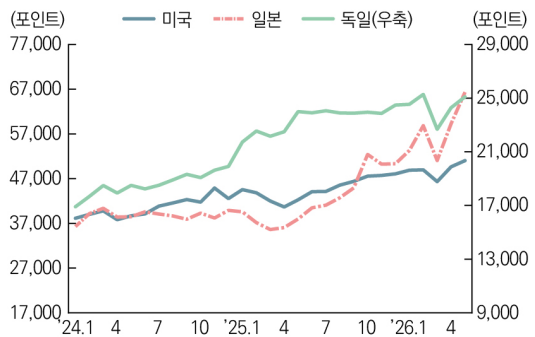
- 일본 니케이지수(포인트): ('26.1월) 53,323 → (3월) 51,064 → (5월) 66,330

[그림 I -9] 글로벌 주가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LSEG

[그림 I -10] 주요국 주가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LSEG

5)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제3절 외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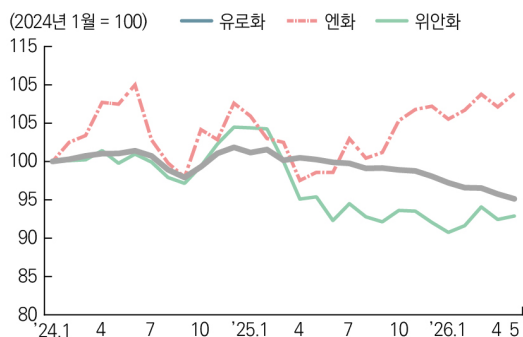
■ 2025년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로 하락

-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나타난 관세 부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전년대비 달러지수 하락
 - 달러지수(1973년 3월=100): ('23년) 103.5 → ('24년) 104.5 → ('25년) 100.7

■ 2026년 달러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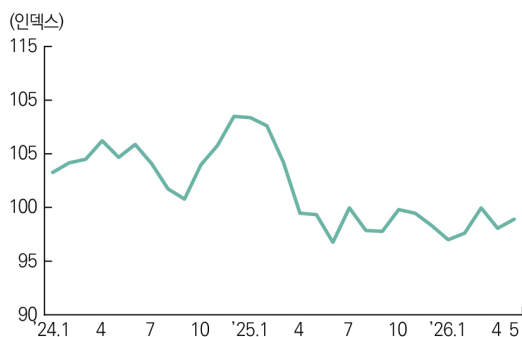
- 2월말 발생한 중동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상승
 - 달러지수(1973년 3월=100): ('26.1월) 97.0 → (3월) 100.0 → (5월) 98.9
- 다만, 중국의 무역흑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상승

[그림 I-11]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주: 1. 2023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I-12] 달러지수



주: 1973년 3월 = 100
 자료: Bloomberg

제4절 상품시장

1.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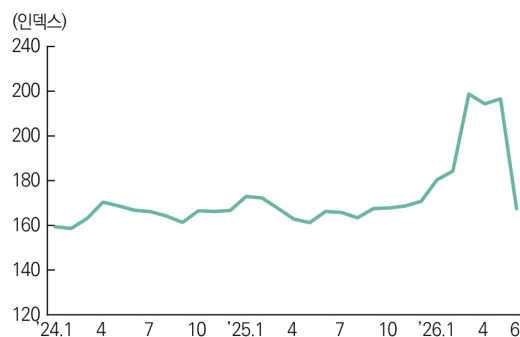
■ 2025년 국제유가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우려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일시적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냄

- 상반기에는 OPEC+의 증산과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압력이 우세하였으나,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까지 반등
- 하반기에는 OPEC+의 추가 증산과 미국 등 비(非)OPEC 산유국의 생산 확대에 따라 공급 우위가 지속되면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초반까지 하락

■ 2026년 들어 국제유가는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급등하며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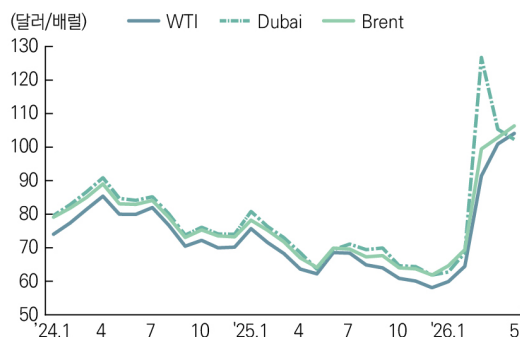
- 두바이유는 중동지역의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면서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였으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100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
- 최근 미·이란 간 휴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

[그림 I-13] 국제상품가격지수



주: 2016년=100
자료: IMF

[그림 I-14] 국제유가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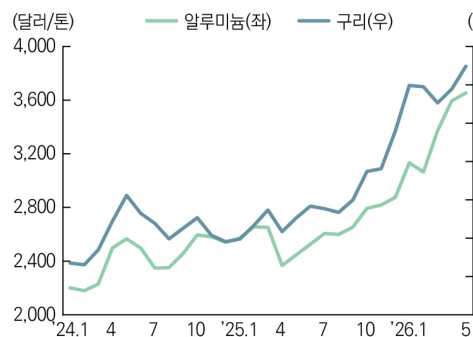
2. 주요 비철금속 가격

- 2025년 비철금속 가격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전력망 확충 수요 등에 힘입어 상승 압력이 나타났으나, 중국 경기 둔화와 재고 증가 등이 가격 상승폭을 제한
 -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은 상반기 중 등락을 보였으나, 공급차질 우려와 데이터센터 및 전력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지속
- 2026년 들어 비철금속 가격은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세
 -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은 공급망 불안과 생산비 상승,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가 맞물리며 견조한 상승세를 보임

3. 주요 곡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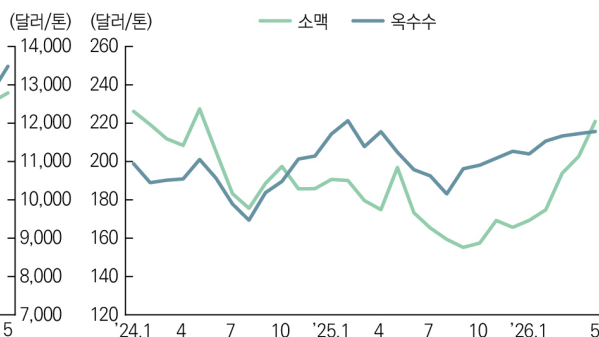
- 2025년 곡물 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양호한 작황과 높은 재고 수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음
 - 소맥과 옥수수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기상 리스크와 교역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
- 2026년 들어 곡물 가격은 양호한 재고 수준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 압력이 확대
 - 에너지·물류비 상승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졌으나, 높은 재고 수준과 주요 생산국의 공급 증가가 이를 일부 상쇄

[그림 I-15] 주요 비철금속 가격



자료: 런던금속거래소(LME)

[그림 I-16] 주요 곡물 가격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2026 세계경제

World Economy 2026:
Economic Developments in Major Economies

II

선진국 경제 동향

제1장 미국

제2장 유럽

제3장 일본

제1절 거시경제 현황

[표 II-1] 미국 경제 주요 지표(2025년)¹⁾

구 분	내용
인구	3.4억 명
명목 GDP	30조 7,621억 달러
경제성장률	2.1%
1인당 GDP	90,027달러
실업률	4.3%
경상수지	-1조 1,771억 달러
상품수지 ²⁾	-1조 2,596억 달러
서비스수지	3,277억 달러
수출(통관기준)	2조 1,852억 달러
수입(통관기준)	3조 5,065억 달러
외환보유액 ³⁾	2,543억 달러
R&D 투자(GDP 대비) ⁴⁾	3.4%

주 1) 주요 지표는 국가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국가별 본문의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국제수지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본선 인도) 기준이며, 통관기준 무역통계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기준

3) 2025년 12월말 기준(금 포함)

4)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2024년 기준)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MF, OECD, World Bank

1. 경제성장률

●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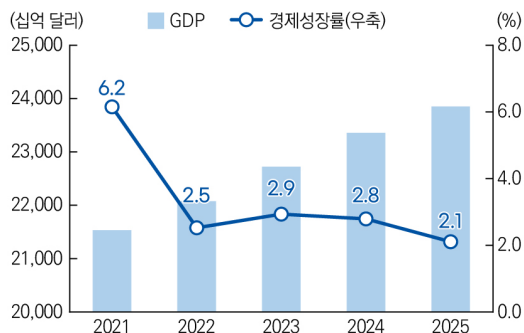
■ 2025년 미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1%의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

-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등을 부과한 이후 개별 협상을 통해 자국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화
- 소비, 투자, 교역, 정부지출 등 모든 부문의 성장률 둔화
 - 소비지출(2.6%), 민간투자(1.9%), 수출(1.6%), 수입(2.7%), 정부지출(1.1%) 등 전 부문의 성장률이 전년대비 둔화되었으나 경기침체 우려는 완화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 외 산업의 성장률은 둔화
 - 2025년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서비스업(2.8% → 2.9%)이 전년대비 확대되었으나, 정부부문(2.2% → 0%), 제조업(3.0% → 1.5%) 등은 하락

■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2.1%의 견조한 성장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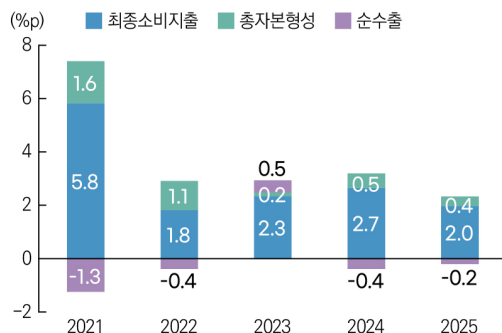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리스크 등 대외불확실성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그림 II-1] 미국 경제성장률



주: 2017년 연쇄가계 기준
자료: CEIC

[그림 II-2] 미국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표 II-2] 미국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²⁾ 국내총생산

(단위: 전기대비연율,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 내 총 생 산 (GDP)	2.8	2.1	-0.6	3.8	4.4	0.5	2.1
농 립 어 업	5.4	-2.4	-16.9	-0.7	9.8	17.2	-2.2
광 업	2.8	0.2	-18.3	29.0	4.3	6.2	0.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2	-1.0	-5.0	-15.0	16.0	-3.8	8.3
건 설 업	4.9	1.8	0.9	4.0	-0.8	-1.8	1.9
제 조 업	3.0	1.5	-5.9	12.0	5.0	-4.2	6.9
서 비 스 업	2.8	2.9	0.9	4.2	5.2	2.5	1.3
정 부 부 문	2.2	0.0	1.2	-3.2	-0.3	-7.8	7.5
소 비 지 출	2.9	2.6	0.6	2.5	3.5	1.9	0.5
민 간 투 자	3.0	1.9	23.3	-13.8	0.0	2.3	7.9
수 출	3.6	1.6	0.2	-1.8	9.6	-3.2	10.9
수 입	5.8	2.7	38.0	-29.3	-4.4	-1.0	11.8
정 부 지 출	3.8	1.1	-1.0	-0.1	2.2	-5.6	4.4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2) 2026년 6월 25일 확정치(Third Estimate) 자료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미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중동 지역 분쟁 등 경제 하방 압력 속에 서도 견조한 성장 흐름을 지속

- 2025년은 서비스업과 소비지출 부문의 성장 등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였으나, 2026년 들어 민간투자와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뒷받침
- 다만,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될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 존재

2. 산업생산

■ 2025년 산업생산은 반도체, 정보통신,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1% 성장하였으며, 2026년에도 성장세 지속

-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정보통신, 배터리 등 관련 산업생산이 확대
 - 정보통신(2017년=100): ('24년) 205.2 → ('25년) 212.2 → ('26.5월) 229.1
 - 반도체(2017년=100): ('24년) 144.4 → ('25년) 165.2 → ('26.5월) 188.0
 - 배터리(2017년=100): ('24년) 171.5 → ('25년) 195.5 → ('26.5월) 239.6
- 반면 비첨단 제조업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업종 간 생산 증가세가 차별화
 - 제조업(2017년=100): ('24년) 95.8 → ('25년) 96.6 → ('26.5월) 97.9

■ (경기) 2026년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¹⁾」는 첨단산업 투자, FIFA 월드컵 준비에 따른 요식·관광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전월대비 상승

- (제조업) 5월 제조업 PMI는 54.3으로 전월대비 0.9p 상승하여 기준치(50) 상회
 - 제조업 PMI(지수): ('26.3월) 55.1 → (4월) 53.4 → (5월) 54.3
- (서비스업) 5월 서비스업 PMI는 54.5로 전월대비 0.9p 상승하여 기준치(50) 상회
 - 서비스업 PMI(지수): ('26.3월) 54.0 → (4월) 53.6 → (5월) 54.5

[그림 II-3] 미국 산업생산



자료: CEIC

[그림 II-4]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자료: CEIC

1)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50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

3.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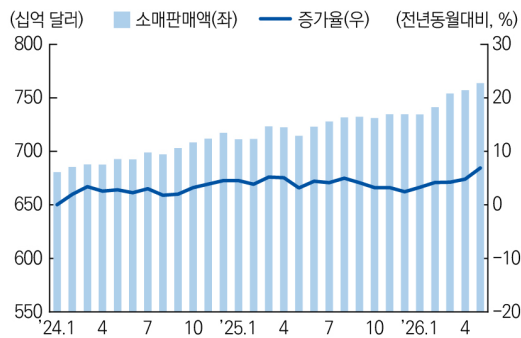
■ 2025년 미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도 증가세 지속

- 2025년 소매판매는 자동차 및 부품 제외 소매판매(3.7%), 유류비 제외 소매판매(4.2%), 식음료 및 주류업(5.3%), 요식업 및 기타 식당(5.7%) 등 전년대비 4.0% 증가
- 다만, 2025년 물가상승률을 제정한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쳐, 명목 판매액 증가에 비해 실제 판매량 증가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5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하며 4월(4.8%) 대비 2.1%p 확대

■ 2026년 5월 소비자심리지수²⁾는 44.8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4.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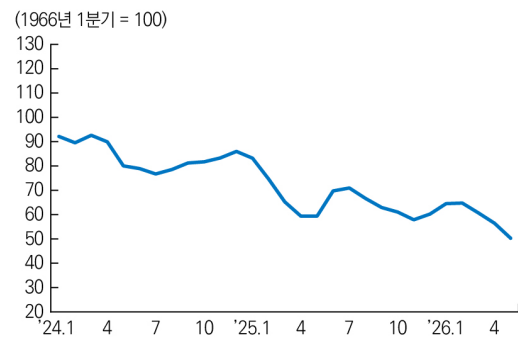
- 2025년 소비자심리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연방정부 폐쇄 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전년대비 하락
- 중동 지역 분쟁,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44.8까지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1966년 1분기=100): ('24년) 72.5 → ('25년) 57.6 → ('26.5월) 44.8

[그림 II-5] 미국 소매판매



자료: CEIC

[그림 II-6]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CEIC

2)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재정적 상황과 장단기 경제적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타내는 지수로 1966년 1분기의 값을 기준점 100으로 설정함.

4. 투자

■ 2025년 민간투자는 장비 및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확대된 반면 주거용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9% 증가

- 2025년 민간투자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R&D 투자가 확대되면서 장비(8.3%), 지식재산생산물(5.6%) 고정투자는 증가하였으나, 구조물(-5.3%)과 주거용(-2.2%) 고정투자는 감소하며 전년대비 1.9% 증가
- 특히 주거용 고정투자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2% 감소

■ 2026년 1분기 민간투자는 전기대비 연율 7.9% 성장

- 장비(15.8%)와 지식재산생산물(13.8%) 고정투자가 확대되었으나, 구조물(-4.7%)과 주거용(-7.8%) 고정투자의 부진 지속

[표 II-3] 미국 국내총생산 중 민간투자 부문별 성장률

(단위: 전기대비연율,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민 간 투 자	3.0	1.9	23.3	-13.8	0.0	2.3	7.9
고 정 투 자	3.0	2.7	7.1	4.4	0.8	1.5	6.5
비 주 거 용	2.9	4.1	9.5	7.3	3.2	2.4	10.6
구 조 물	1.1	-5.3	-3.1	-4.5	-5.0	-6.5	-4.7
장 비	3.5	8.3	21.4	8.5	5.2	4.3	15.8
지식재산생산물	3.5	5.6	6.5	15.0	5.6	5.4	13.8
주 거 용	3.2	-2.2	-1.0	-5.1	-7.1	-1.7	-7.8
재 고 증 감	-	-	-	-	-	-	-

주: 1. 2026년 6월 25일 확정치(Third Estimate) 자료 기준

2. 재고증감은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에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음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5. 물가

■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완화되며 2.7%를 기록

- 2025년 소비자물가는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며 전년대비 2.7%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대비, %): ('23년) 4.1 → ('24년) 3.0 → ('25년) 2.7
- 품목별로 보면 주거(3.8%), 의복(0.0%), 교통(0.5%) 등의 상승률이 둔화
- 2025년 개인소비지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연간으로 2024년(2.9%)보다 0.1%p 낮아진 2.8%를 기록

■ 2026년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중동 지역 분쟁, 유가 상승 등에 따라 교통(8.9%), 의류(4.8%), 주거(3.6%), 식음료(3.0%)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1%, 개인소비지출 근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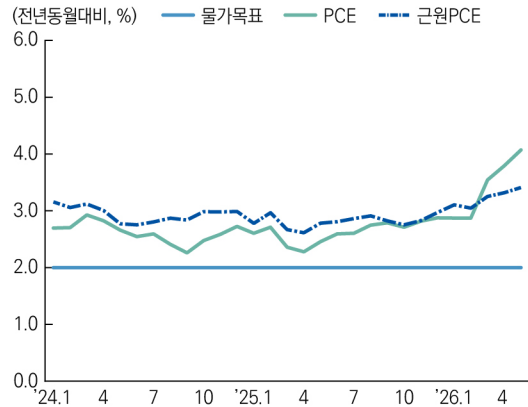
[표 II-4] 미국 품목별 물가상승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5월
소비자물가	3.0	2.7	4.2
식음료	2.2	2.8	3.0
주거	4.4	3.8	3.6
의복	0.7	0.0	4.8
교통	1.4	0.5	8.9
의료	2.7	2.9	2.6
여가	1.5	2.1	2.6
교육·통신	0.6	0.5	0.8
기타	4.1	3.7	4.9

자료: CEIC

[그림 II-7]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



자료: CEIC

6. 고용 및 임금

■ 2025년 미국의 실업률은 4.3%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2026년 들어 소폭 개선

-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2024년 4.0%에서 2025년 4.3%로 0.3%p 상승
-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증가 폭은 크게 축소
 -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증가(월평균, 만명): ('24년) 12.2 → ('25년) 1.0
- 2026년 들어 실업률은 연초 대비 하락하며 고용시장 소폭 개선
 - 실업률(%): ('26.3월) 4.3 → (4월) 4.0 → (5월)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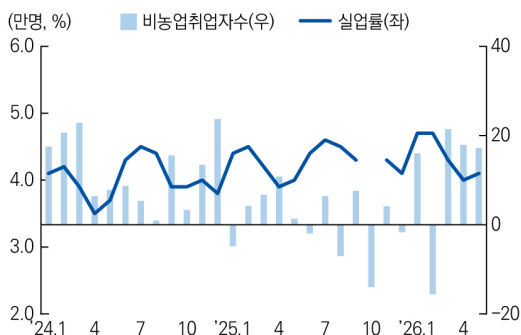
■ 민간 부문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24년 35.1달러에서 2025년 36.4 달러로 4.0% 상승하였으며, 2026년에도 상승세 지속

- 평균 시간당 임금(달러): ('24년) 35.1 → ('25년) 36.4 → ('26.5월)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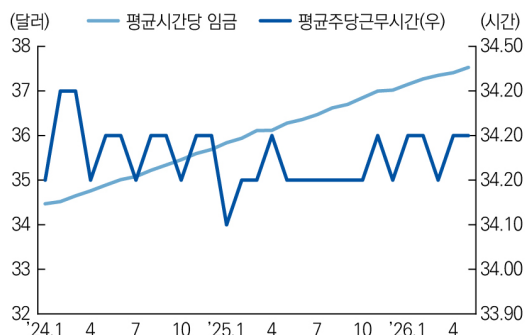
■ 기업체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2025년 34.2시간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6년 5월에는 34.3시간으로 2025년 연평균을 소폭 상회

- 평균 주당 근무시간(시간): ('24년) 34.3 → ('25년) 34.2 → ('26.5월) 34.3

[그림 II-8]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감 [그림 II-9] 미국 시간당 임금 및 주당 근무시간 추이



주: 미국 연방정부 폐쇄에 따라 2025년 10월 자료의 누락 발생
자료: CEIC



자료: CEIC

7.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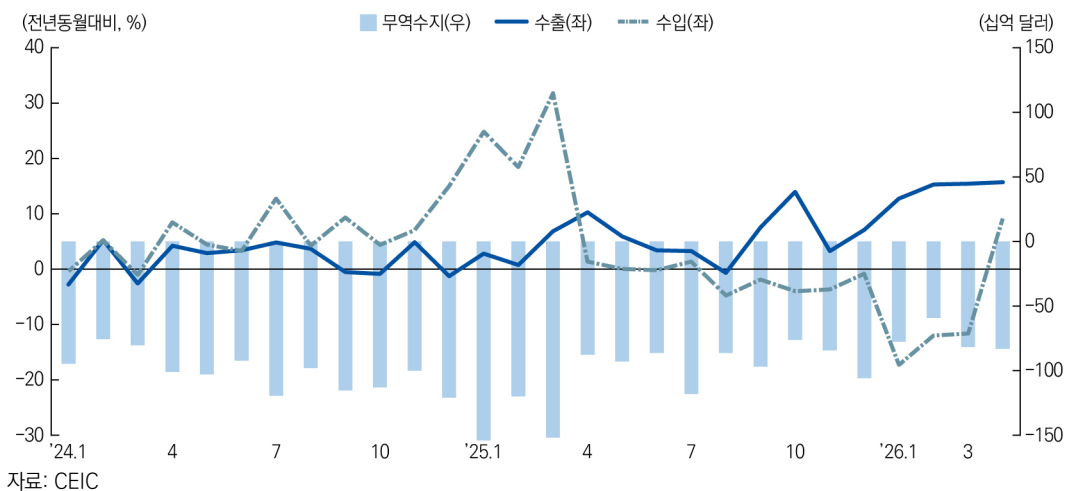
■ 2025년 수출은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4.7% 증가

- (품목별) 항공기 및 항공 부품(전년대비 25.0% 수출액 증가), 경질유(-14.6%), 가공되지 않은 금괴나 금화(168.0%) 등의 품목이 상위 수출 품목이며, 수입은 디지털 처리장치(전년대비 164.9% 수입액 증가), 중질유(-14.7%), 골드바(266.4%) 등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상품 수출 증가율(%): ('23년) -2.1 → ('24년) 1.7 → ('25년) 5.4
 - 상품 수입 증가율(%): ('23년) -5.0 → ('24년) 6.0 → ('25년) 4.7
 - 수출과 수입 모두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조 2,560억 달러로 전년대비 3.9% 증가
 - 2025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7억 달러로 2024년 대비 31.8% 감소

■ 2026년 1~4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8,254억 달러, 수입은 8.5% 감소한 1조 1,272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41.2% 감소한 3,018억 달러 적자를 기록

- (품목별) 주요 수출 품목은 항공기 및 항공 부품(전년동기대비 15.4% 수출액 증가), 경질유(23.3%) 등이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디지털 처리장치(전년동기대비 213.1% 수입액 증가), 중질유(-2.5%),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216.5%) 등이 차지

[그림 II-10] 미국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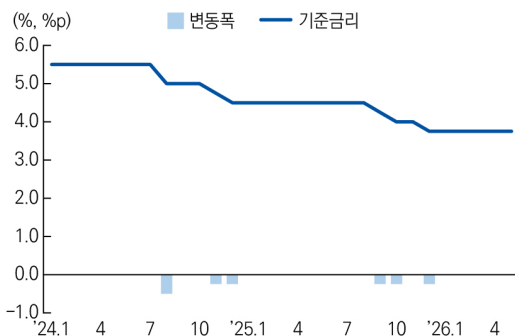
■ 2026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내 인상 가능성 시사

- 미 연준은 고금리에 따른 물가상승률 둔화가 나타남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25년 12월 3.75%³⁾까지 인하
- 다만, 2026년 2월말 발생한 중동 지역 분쟁,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됨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제시

■ 2026년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달러화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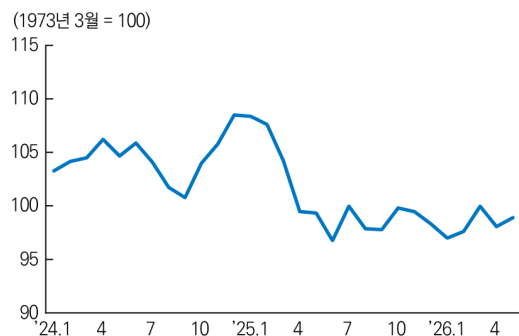
-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전년대비 미 달러화 약세
 - 달러지수(1973년 3월=100): ('23년) 103.5 → ('24년) 104.5 → ('25년) 100.7
- 2026년 들어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으로 달러화 가치 상승
 - 달러지수(1973년 3월=100): ('26.1월) 97.0 → (3월) 100.0 → (5월) 98.9

[그림 II-11] 미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CEIC

[그림 II-12] 달러지수



자료: CEIC

3)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상하단 0.25%p의 범위로 결정. 이하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상단 기준으로 제시함.

2. 재정정책

■ 트럼프 행정부는 성장 촉진을 위한 감세정책과 함께 복지 및 친환경 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 트럼프 행정부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2025년 7월 발효)」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팁·초과근무수당·미국산 자동차 대출이자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공급망 재편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등 대규모 감세정책 단행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취임 이후 파리협정 탈퇴 서명, 청정에너지 보조금 철회 및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추진
 - 2026년 2월에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고 본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지
 -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규모를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고, 첨단 무기 도입 및 방위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안 대비 40% 이상 증액한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편성 추진

■ 각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이후 관세 인하 및 면제를 협상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을 요구

제3절 한-미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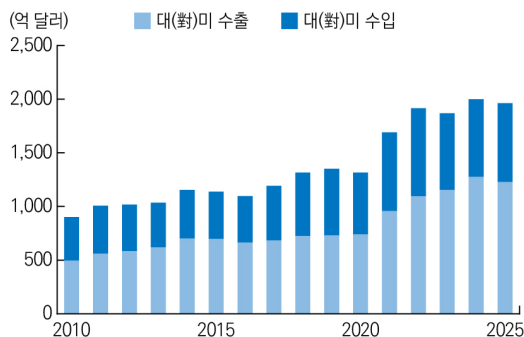
1. 한국과 미국의 교역 현황

(1) 교역 규모 및 추이

■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역 규모는 2025년 1,963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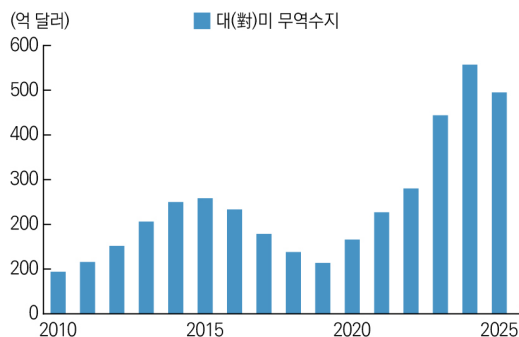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2010년 498억 달러에서 2025년 1,229억 달러로 2.5배 증가하였으며, 대미 수입액은 동기간 404억 달러에서 734억 달러로 1.8배 증가
-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동기간 94억 달러에서 495억 달러로 5.3배 증가
- 2025년 기준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이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최대 흑자 국가임
 - 교역국 순위(달러): 1위 중국(2,727억), 2위 미국(1,962억), 3위 베트남(814억)
 - 무역수지 순위(달러): 1위 미국(495억), 2위 베트남(310억), 3위 홍콩(308억)

[그림 II-13] 한-미 교역 규모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14] 대(對)미 무역수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품목별 교역 구조

■ 2025년 우리나라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이며,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가 차지

- 2025년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수출 품목은 자동차(전년대비 수출액 24.5% 증가), 반도체(11.2%), 자동차부품(6.2%) 순이며, 수입 품목은 원유(전년대비 수입액 17.5% 증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6.9%), 항공기 및 부품(5.9%) 순임

■ 2026년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 확대

- 2026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누적 199억 달러), 자동차(누적 125억 달러), 컴퓨터(누적 86억 달러) 순이며, 수입 품목은 원유(누적 71억 달러), 항공기 및 부품(누적 54.7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누적 23억 달러) 순임

[표 II-5] 한·미 주요 교역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번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자동차	301.5	(24.5)	원유	128.7	(17.5)
2	반도체	137.7	(11.2)	반도체제조용장비	50.9	(6.9)
3	자동차부품	76.6	(6.2)	항공기및부품	43.6	(5.9)
4	컴퓨터	56.6	(4.6)	LPG	38.8	(5.3)
5	석유제품	54.6	(4.4)	육류	29.1	(4.0)
6	축전기 및 소재	50.4	(4.1)	식물성물질	28.8	(3.9)
7	전력용기기	29.2	(2.4)	반도체	26.5	(3.6)
8	무선통신기기	25.0	(2.0)	자동차	24.5	(3.3)
9	원동기및펌프	24.9	(2.0)	천연가스	24.0	(3.3)
10	비누치약및화장품	22.0	(1.8)	의약품	21.1	(2.9)
	총계	1,228.5	(100.0)	총계	733.7	(100.0)

주: 202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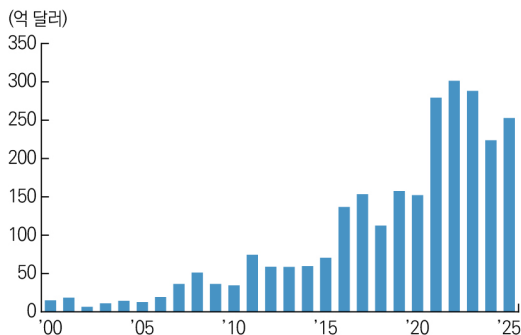
2. 한국과 미국의 투자 현황

(1) 투자 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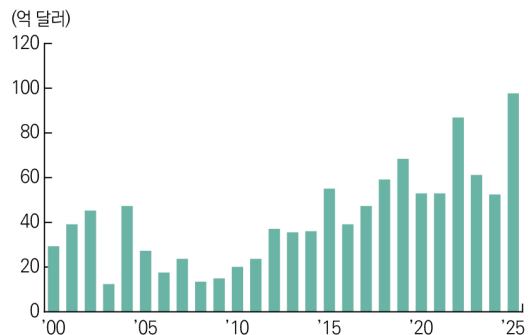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對)미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25년 253억 달러로 2010년 대비 7.3배 증가하였고, 미국의 우리나라 직접투자 규모는 98억 달러로 2010년 대비 4.9배 증가

- 2025년 우리나라의 미국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12.9% 증가
- 2025년 미국의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86.6% 증가
 - 미국은 우리나라의 IT서비스·금융 등 서비스업뿐 아니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 확대 등으로 2021년 우리나라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83.6% 급증

[그림 II-15] 한국의 대(對)미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그림 II-16] 미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 「한미전략투자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 2026년 3월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같은 달 1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5년 11월 14일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미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 및 전략적 투자에 대한 투명성·안정성·책임성 확보를 도모
 -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전략 산업 분야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
 -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 합의
-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법」의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6월 18일 설립
 -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 운영(제23조)
 -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제3조)
 - 한미전략투자공사(Korea-US. strategic Investment Corporation)는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여 전략적 투자 수행(제40조)
 -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채권발행,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
 -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사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감독 및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기금은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되어 관리
 -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
 -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검토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통한 투자 손실 방지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부문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국내 수출 역량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체계적 감독 등 필요

(2) 업종별 투자 현황

■ 2025년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2.9% 증가

- 미국 내 금융자산 투자 확대 등 금융 및 보험업 투자가 전년대비 32.9% 증가
-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투자는 66억 달러로 전년 수준

[표 II-6] 한국의 대(對)미국 해외직접투자액(업종별)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¹⁾ (%)
전체 [전년대비, %]	279 [83.6]	301 [7.9]	288 [-4.3]	224 [-22.4]	253 [12.9]	100.0
금융 및 보험업	118	119	118	98	130	(51.4)
제조업	47	79	106	65	66	(26.0)
도매 및 소매업	15	7	10	7	13	(5.0)
정보통신업	25	23	16	17	12	(4.7)
부동산업	36	34	16	12	11	(4.4)

주: 1) 2025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025년 미국의 우리나라 직접투자(FDI)는 97.7억 달러로 전년대비 86.6% 증가

- 미국의 금융·유통·디지털시장 등 서비스업(56.4억 달러)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조업(40.7억 달러)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투자 확대
 - 아마존웹서비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애플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입 확대

[표 II-7] 미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¹⁾(업종별)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²⁾ (%)
전체 [전년대비, %]	52.6 [-0.8]	86.8 [65.2]	61.3 [-29.4]	52.4 [-14.6]	97.7 [86.6]	100.0
농·축·수산·광업	0.0	0.0	0.0	0.0	0.1	(0.1)
제조업	9.6	34.3	34.7	16.5	40.7	(41.7)
서비스업	40.0	52.0	26.6	32.0	56.4	(57.7)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3.0	0.5	0.0	3.9	0.5	(0.5)

주: 1) 신고금액 기준

2) 2025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1절 거시경제 현황

[표 II-8] 유로지역¹⁾ 경제 주요 지표(2025년)²⁾

구 분	내용
인구	4.5억 명
명목 GDP	17조 8,946억 달러
경제성장률	1.5%
1인당 GDP	50,214 달러
실업률	6.3%
경상수지	3,130억 달러
상품수지 ³⁾	4,075억 달러
서비스수지	1,644억 달러
수출(통관기준)	6조 1,963억 달러
수입(통관기준)	6조 116억 달러
외환보유액 ⁴⁾	2조 866억 달러
R&D 투자(GDP 대비) ⁵⁾	2.1%

주: 1) 유로지역 20개국 기준

2) 주요 지표는 국가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국가별 본문의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국제수지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본선 인도) 기준이며, 통관기준 무역통계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기준

4) 2025년 12월말 기준(금 포함)

5)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2024년 기준)

자료: Eurostat, IMF, OECD, World Bank

1. 경제성장을

● **유로지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분쟁 및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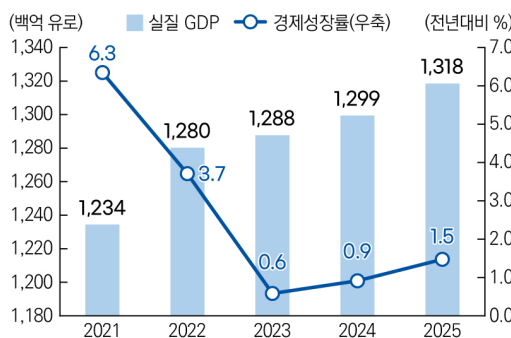
■ 2025년 유로지역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성장폭은 완만한 모습

- 관광산업 호조 및 서비스 부문 성장,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투자가 증가하여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
 - 2025년 분기별 GDP성장률(전기 대비 %): (1분기) 0.7 → (2분기) 0.1 → (3분기) 0.3 → (4분기) 0.2
- (지출부문별) 기업 투자 및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가 증가한 반면, 수출은 제한적
 - 총자본형성(0.9%p)과 최종소비지출(0.8%p)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반면 관세 분쟁 등의 여파로 순수출의 기여도는 -0.5%p
- (산업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로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였지만, 하반기 이후 제조업의 성장은 제한적, 서비스업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
 - 제조업 분기별 성장률(전기대비 %): (25.1분기) 2.3 → (4분기)-0.2 → (26.1분기) -3.1
 - 서비스업 분기별 성장률(전기대비 %): (25.1분기) 0.4 → (4분기) 0.1 → (26.1분기) 0.3

■ 2026년 1분기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회복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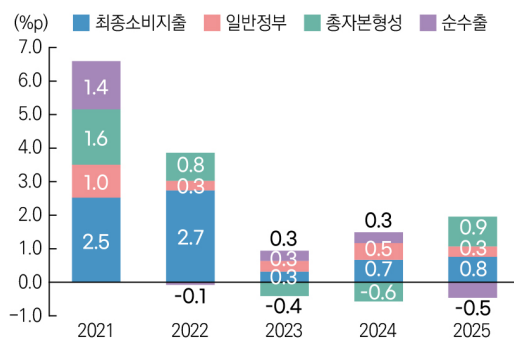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2%, 산업별로는 제조업(-3.1%)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비스업(0.3%)의 성장세는 유지

[그림 II-17]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그림 II-18] 유로지역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표 II-9] 유로지역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 대비]	0.9	1.5	0.7 [1.7]	0.1 [1.6]	0.3 [1.4]	0.2 [1.2]	-0.2 [0.3]
농림어업	-0.6	1.6	1.8	-0.5	0.6	0.1	-0.1
제조업	-1.7	2.8	2.3	0.4	-0.2	-0.2	-3.1
건설업	-1.8	0.7	1.1	0.1	0.2	0.2	-0.5
서비스업	1.5	1.2	0.4	0.1	0.3	0.1	0.3
민간소비	1.0	1.5	0.4	0.2	0.2	0.4	0.2
정부지출	2.8	1.6	-0.2	0.4	0.7	0.6	-0.8
총고정자본형성	-2.0	4.4	2.7	-1.4	1.2	0.8	-0.3
수출	1.0	2.2	2.8	-0.7	0.7	-0.6	-0.2
수입	0.2	3.7	2.3	-0.2	1.4	0.2	0.5

주: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국가별) 독일의 경제성장률(0.2%)이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났고 스페인(2.8%)은 상대적으로 견조, 프랑스(0.8%), 이탈리아(0.5%)의 성장세는 제한적
- 2026년 1분기에 스페인(0.6%)은 서비스업의 호조로 성장세를 유지, 독일(0.3%)과 이탈리아(0.3%)는 소폭 개선, 프랑스는 -0.1%

[표 II-10]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유로지역	0.9	1.5	0.7	0.1	0.3	0.2	-0.2
독일	-0.5	0.2	0.4	-0.2	0.0	0.2	0.3
프랑스	1.2	0.8	0.1	0.3	0.4	0.2	-0.1
이탈리아	0.8	0.5	0.3	0.0	0.2	0.3	0.3
스페인	3.5	2.8	0.5	0.7	0.6	0.8	0.6
영국	1.1	1.3	0.6	0.1	0.2	0.2	0.6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영국 통계청(ONS)

■ 유로지역은 소비지출 증가와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중동전쟁 등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흐름은 약화

- 견조한 고용여건으로 실질임금이 증가하여 민간소비가 내수 회복을 주도
- 일부 국가(독일 등)의 국방비 지출 및 인프라투자가 확대
- 글로벌 무역갈등 및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 지속, 일부 국가들의 재정건전화 압력 등은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2.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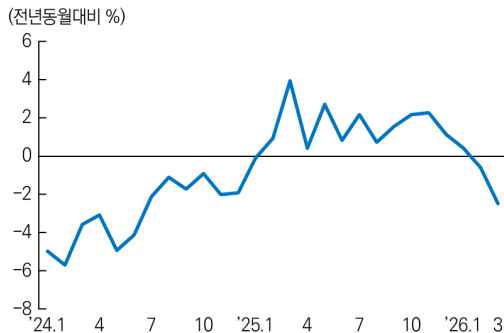
■ 2025년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세가 지속

- 유로지역 산업생산지수는 2025년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산업생산지수(2021=100): ('25.2월) 98.6 → (7월) 98.9 → (11월) 99.0
 - 산업생산지수 증감(전년동월 대비 %): ('25.2월) 0.9 → (7월) 2.2 → (11월) 2.3
-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업종의 상승세에 힘입어 서비스업의 생산 및 업황이 개선
 - 전산업 PMI 지수(기준치=50): ('25.2월) 50.2 → (7월) 50.8 → (11월) 51.5
 - 서비스업 PMI 지수(기준치=50): ('25.2월) 50.6 → (7월) 51.0 → (11월) 53.6
- 미국과의 무역분쟁 및 수출감소세로 제조업의 생산과 업황은 하반기 이후 제한적인 상황
 - 제조업 PMI 지수(기준치=50): ('25.2월) 47.8 → (7월) 49.6 → (11월) 49.5
- 프랑스의 산업생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독일은 하락세가 지속
 - 프랑스 산업생산지수 증감(전년동월 대비 %): ('25.3월) 0.5 → (8월) 0.1 → (12월) 1.6
 - 독일 산업생산지수 증감(전년동월 대비 %): ('25.3월) -0.6 → (8월) -3.5 → (12월) -0.5

■ 2026년 1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악화되어 전년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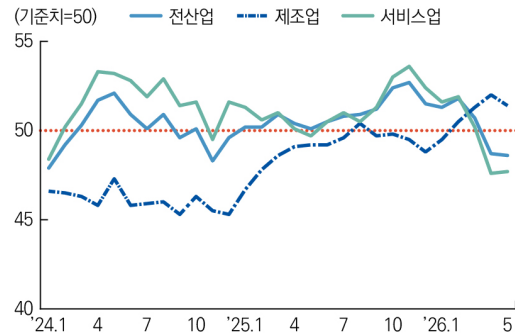
- 산업생산지수 증감(전년동월대비, %): ('26.1월) 0.4 → (2월) -0.6 → (3월) -2.5
- 전산업 PMI 지수(기준치=50): ('26.1월) 51.3 → (3월) 50.7 → (5월) 48.6
- 제조업 PMI 지수(기준치=50): ('26.1월) 49.5 → (3월) 51.3 → (5월) 51.4
- 서비스업 PMI 지수(기준치=50): ('26.1월) 51.6 → (3월) 50.2 → (5월) 47.7

[그림 II-19] 유로지역 산업생산지수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그림 II-20]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3.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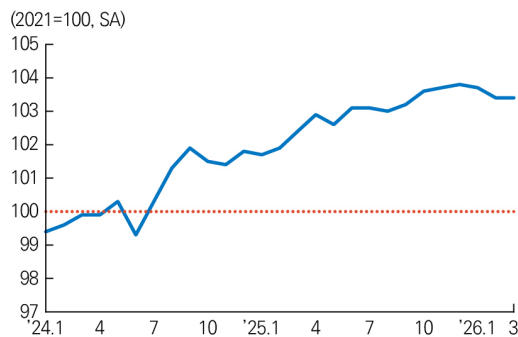
■ 2025년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고물가 기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가게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어 완만하게 증가

- 2025년 소매판매는 2024년 대비 연평균 2.3%의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
 - 소매판매지수(2021=100): ('25.1월) 101.7 → (7월) 103.1 → (12월) 103.8
 - 소매판매지수 증감(전년동월 대비 %): ('25.1월) 2.3 → (7월) 3.8 → (12월) 2.2
- 준내구재와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체 소매판매 증가를 주도
 - 2025년 품목별 소매판매 연평균 증가율(전년대비 %): 준내구재 및 내구재 1.6%, 식음료 1.2%, 자동차 연료 0.9%
- 프랑스와 스페인의 소비 회복세가 두드러졌으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더딘 모습
 - 프랑스 소매판매지수 증감(전년동월 대비 %): ('25.8월) 1.5 → (9월) 2.2 → (10월) 2.3
 - 스페인 소매판매지수 증감(전년동월 대비 %): ('25.8월) 5.0 → (9월) 4.4 → (10월) 4.1
 - 독일 소매판매지수 증감(전년동월 대비 %): ('25.8월) 2.0 → (9월) 0.8 → (10월) 0.9
 - 이탈리아 소매판매지수 증감(전년동월 대비 %): ('25.8월) -0.5 → (9월) -1.4 → (10월) -0.4

■ 2026년 1분기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증가 폭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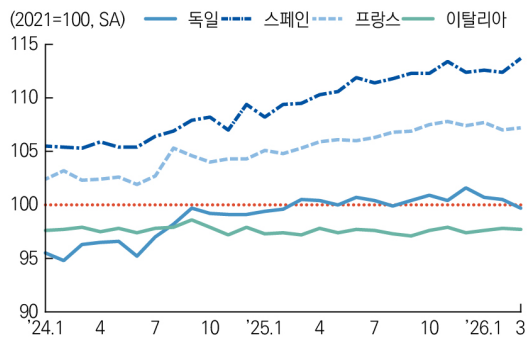
-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 ('26.1월) 103.7 → (2월) 103.4 → (3월) 103.4
 - 전년동월대비 증감(%): ('26.1월) 2.0 → (2월) 1.5 → (3월) 1.0
- 스페인과 프랑스의 소비 회복세는 지속, 독일의 회복세는 더딘 모습
 - 스페인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지수 증감(%): ('26.1월) 4.4 → (3월) 4.2
 - 독일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지수 증감(%): ('26.1월) 1.3 → (3월) -0.8

[그림 II-21]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그림 II-22] 유럽 주요국 소매판매지수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4.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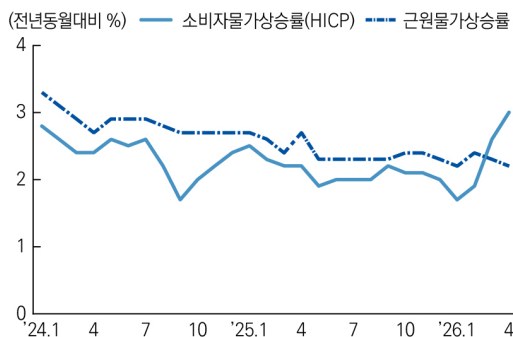
■ 2025년 유로지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전년동기 대비 0.2%p 하락

- 2025년 유로지역 소비자물가(HICP)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정책목표(2%) 수준에서 완만한 흐름을 이어갔음
-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서비스물가 상승으로 소폭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0 → ('25.11월) 2.1
 - 서비스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3.3 → ('25.11월) 3.5
- 기초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는 소비자물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
 - 근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3 → ('25.11월) 2.4
- 산업재, 식음료, 서비스 부문의 물가는 소폭 상승세 지속, 에너지 부문 물가는 감소
 - 서비스 물가(전년동월대비, %): ('25.1월) 3.9 → (6월) 3.3 → (12월) 3.4
 - 에너지 물가(전년동월대비, %): ('25.1월) 1.9 → (6월) -2.6 → (12월) -1.9
 - 부문별 평균 기여도(%p): (식음료) 0.6 (산업재) 0.2 (에너지) -0.1 (서비스) 1.5

■ 2026년 1~4월 중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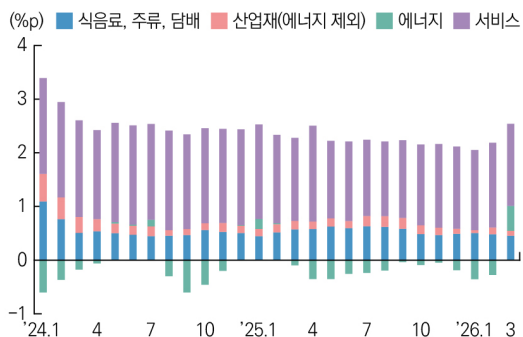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HICP)는 기간 중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9 → (3월) 2.6 → (4월) 3.0
 - 서비스 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3.3 → (3월) 3.2 → (4월) 3.0
 - 에너지 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3.1 → (3월) 5.1 → (4월) 10.8
 - 4월 부문별 기여도(%p): (식음료) 0.5 (산업재) 0.2 (에너지) 1.0 (서비스) 1.4

[그림 II-23]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그림 II-24] 유로지역 부문별 소비자물가 기여도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5. 고용

■ 2025년 유로지역 고용은 내수경기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어 건조한 흐름을 이어갔음

- 2025년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3분기에는 1.6억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25년 경제활동참가율도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25.1분기) 75.4 → ('25.2분기) 75.7 → ('25.3분기) 75.8 → ('25.4분기)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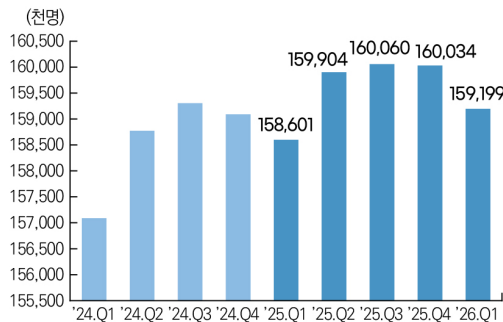
■ 2025년 유로지역 실업률은 연평균 6.3%로 전년대비 0.33%p 하락

- 실업률(%): ('24.6월) 6.4 → ('25.6월) 6.3 → ('25.12월) 6.3
- 스페인, 그리스 등의 실업률은 추세적 하락, 독일, 프랑스 등은 추세적으로 상승
 - 국가별 실업률(%): 독일 ('25.1월) 3.5 → ('12월) 3.9, 프랑스 ('25.1월) 7.3 → ('12월) 7.8
 - 국가별 실업률(%): 스페인 ('25.1월) 10.8 → ('12월) 10.0, 그리스 ('25.1월) 9.7 → ('12월)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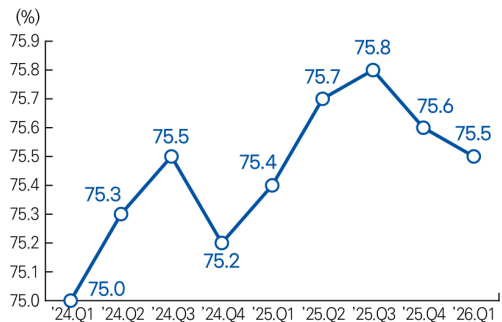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유로지역 실업률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에도 양호한 상황을 유지, 다만, 취업자수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기대비 소폭 감소

- 유로지역 실업률(%): ('26.2월) 6.4 → (3월) 6.3 → (4월) 6.3
- 유로지역 취업자수(천명): ('25.4분기) 160,034 → ('26.1분기) 159,199
- 유로지역 경제활동참가율(%): ('25.4분기) 75.6 → ('26.1분기)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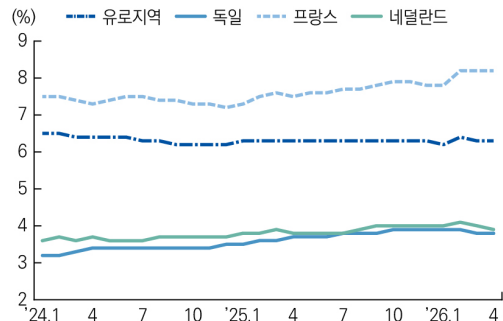
[그림 II-25] 유로지역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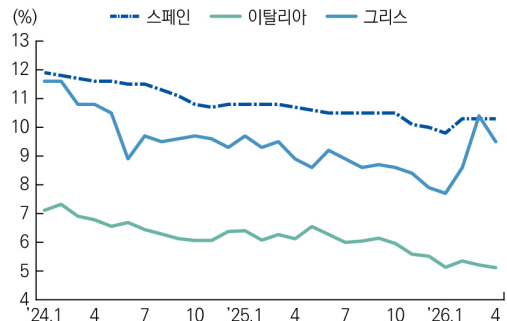
[그림 II-26] 유로지역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II-27] 유로지역·독일·프랑스·네덜란드 실업률



[그림 II-28]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실업률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6.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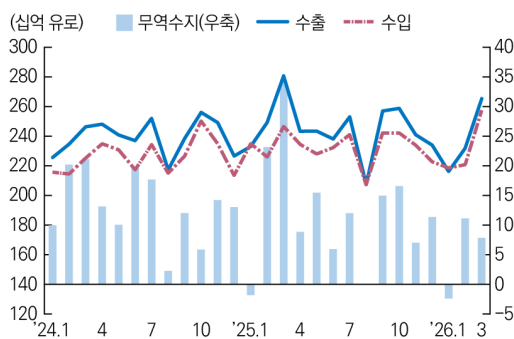
■ 2025년 유로지역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지속한 가운데 수출은 미국과의 무역분쟁 이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외부 수요 약세 등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

- 2025년 3분기 이후 유로지역 월별 수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
 - 화학, 기타 공산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 ('25.2분기) 7,257억 유로 → ('25.3분기) 7,239억 유로
 - 연료 및 운할유, 화학 등의 수입이 크게 감소: ('25.2분기) 6,921억 유로 → ('25.3분기) 6,887억 유로

■ 2026년 1분기 유로지역 무역수지는 2025년에 이어 흑자 기조를 이어갔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입비용 급증의 영향으로 교역환경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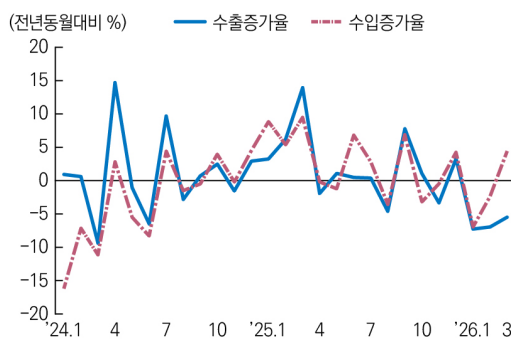
- 유로지역 수출과 수입은 전기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더 많이 감소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도 이전분기 대비 축소
 - 분기별 수출: ('25.4분기) 7,335억 유로 → ('26.1분기) 7,131억 유로
 - 분기별 수입: ('25.4분기) 6,985억 유로 → ('26.1분기) 6,965억 유로
 - 무역수지: ('25.4분기) 349억 유로 → ('26.1분기) 165억 유로

[그림 II-29] 유로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그림 II-30] 유로지역 수출입 증감률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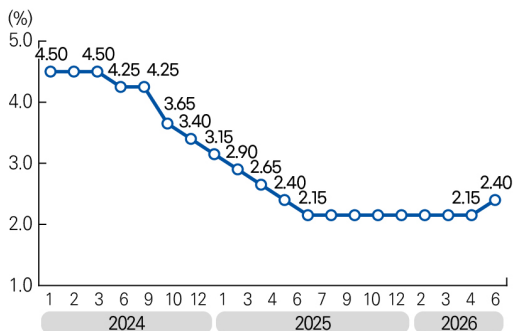
■ 2026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이 점차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3년만에 25bp 인상

- ECB 정책금리(%): ('25.4월) 2.40 → ('25.6월) 2.15 → ('26.4월) 2.15 → ('26.6월) 2.40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9 → (3월) 2.6 → (4월) 3.0 → (5월) 3.2
- 중동전쟁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물가상승률과 GDP성장률을 각각 상향과 하향 조정
 - 물가상승률 전망치: 2026년 2.6% → 3.0%, 2027년 2.0% → 2.3%
 - GDP성장률 전망치: 2026년 0.9% → 0.8%, 2027년 1.3% → 1.2%
- 이러한 인상 결정은 현실화된 에너지 충격에 대응한 것으로 보험성(insurance) 또는 선제적(pre-emptive) 조치가 아님을 강조
 - 향후 특정한 금리 경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할 것임을 확인

■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 여건은 전쟁 이전보다 긴축적인 상황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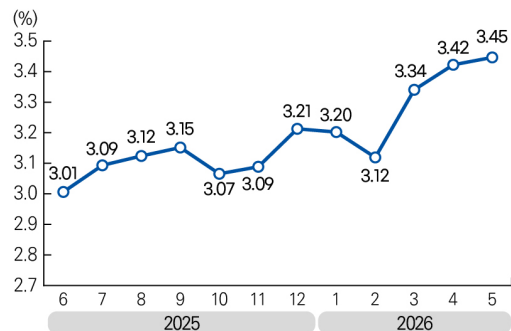
- 장기국채 평균수익률(%): ('26.3월) 3.34 → (4월) 3.42 → (5월) 3.45
 - 회사채 금리: ('26.3월) 3.9% → (4월) 4.0%
 - 회사채 발행 증가율: ('26.3월) 3.9% → (4월) 4.6%
 - 기업대출 증가율: ('26.3월) 3.2% → (4월) 3.4%

[그림 II-31]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그림 II-32] 유로지역 장기국채 평균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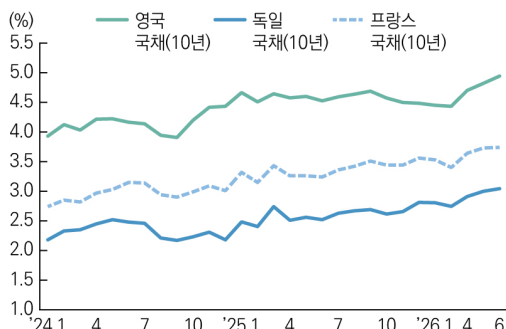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2. 재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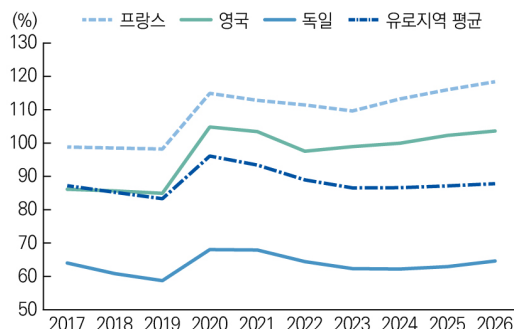
■ 유럽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럽의 재정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 유로지역은 ①방위비 증액 ②준핵심국(프랑스, 벨기에 등) 신용등급 하향 ③중앙은행 양적긴축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
- 다수 유럽 국가들이 불안정한 정치 환경, 구조적 취약성으로 정부 부채의 하향 안정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불안정한 정치환경) 프랑스 등은 소수 정부나 불안정한 연립정부 등으로 신뢰할 만한 재정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재정운영의 경직성)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지출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조세 부담이 커 증세 여력도 제한적
- 유럽지역 전반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상승이 예상, 주요국 중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우려되고 있음
 - 프랑스는 ①부채 수준이 높고 상승하고 있으며 ②재정규율 준수 이력이 약하며 ③구조적 세출이 크고 ④정치 불안이 재정 건전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부채 비율은 높고 성장률은 낮아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 감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유로지역 평균 2025년 87.1% → 2026년 87.8%, 프랑스 2025년 116.0% → 2026년 118.4%, 독일 2025년 62.9% → 2026년 64.6%

[그림 II-33] 유럽 주요국 국채 금리 추이



[그림 II-34] 유럽 주요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주: 2026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IMF 전망치임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IMF

제3절 한-EU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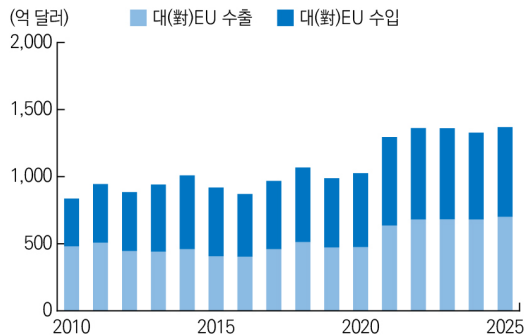
1. 한국과 EU의 교역 현황

(1) 교역 규모 및 추이

■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EU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 시장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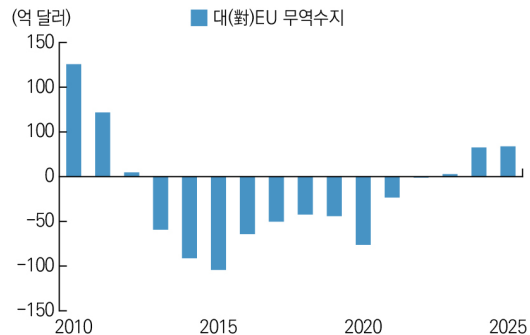
- 한·EU FTA 발효(2011년)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한-EU 상품 교역 규모는 약 1,369억 달러를 기록
 - 2025년 대(對) EU 수출은 701억 달러, 수입은 668억 달러로 EU 무역수지는 34억 달러 흑자를 기록
 - 한국의 대(對) EU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내연기관 및 친환경차), 선박·부품,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 한국의 대(對) EU 주요 수입품은 승용차,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의약품 및 정밀화학 원료 등
- 다만, 최근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EU의 환경 및 공급망 규제 도입 등은 우리나라와 EU간 교역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EU는 최근 역내 산업 보호 기조에 따라 철강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여 한국산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수출 타격이 우려
 -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환경 및 인권규제 관련 지침이 EU 역외 기업에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

[그림 II-35] 한-EU 교역 규모



주: EU 27개국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36] 대(對)EU 무역수지



주: EU 27개국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품목별 교역 구조

■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은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내구재 및 중간재 중심의 구조

- (품목별) 2025년 중 자동차 수출이 96.8억 달러로 전체 대EU 수출의 13.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12.3%), 반도체(6.2%), 자동차부품(5.0%), 의약품(4.9%), 무기류(4.8%) 등이 뒤를 이음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자동차 부품이 수출의 핵심을 차지
 -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기기와 집적회로 반도체가 주요 수출 품목
 - 기초유분 및 산업용 기계류도 꾸준한 수출 비중을 차지

■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제조업 중간재 및 부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품목별) 반도체제조용장비가 전체 수입의 1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동차(11.5%), 의약품(9.0%), 반도체(3.3%), 원동기및펌프(3.0%) 등이 주요 수입 품목으로 나타남
 - EU의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독일, 영국 등 자동차 강국으로부터 고가의 완성차 수입이 높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패션 강국으로부터의 명품, 의류,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수입도 두드러짐

[표 II-11] 한-EU 주요 교역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번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자동차	96.8	(13.8)	반도체제조용장비	86.7	(13.0)
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86.2	(12.3)	자동차	76.7	(11.5)
3	반도체	43.4	(6.2)	의약품	60.0	(9.0)
4	자동차부품	34.9	(5.0)	반도체	22.0	(3.3)
5	의약품	34.6	(4.9)	원동기및펌프	19.8	(3.0)
6	무기류	33.8	(4.8)	가방	18.7	(2.8)
7	합성수지	33.8	(4.8)	계측제어분석기	17.3	(2.6)
8	축전지 및 소재	26.5	(3.8)	기계요소	15.0	(2.2)
9	철강판	26.4	(3.8)	의료기기	14.6	(2.2)
10	컴퓨터	23.8	(3.4)	자동차부품	14.4	(2.2)
	총계	701.3	(100.0)	총계	667.6	(100.0)

주: EU 27개국, 20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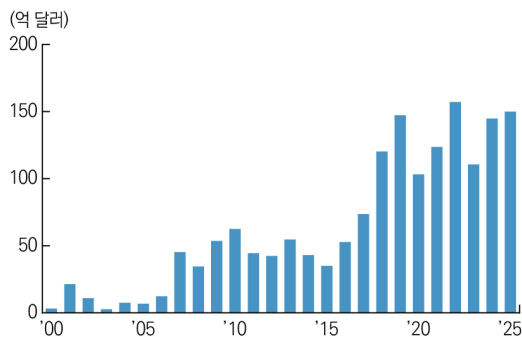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과 EU의 투자 현황

(1) 투자 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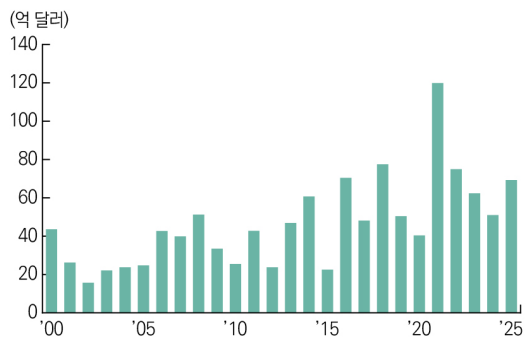
- 한국의 EU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EU의 대한국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경기둔화 등으로 투자규모의 변동성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대(對) EU 투자는 2000년 3.2억 달러에서 2022년 157.1억 달러까지 증가, 이후 2023년 110.5억 달러로 하락, 다시 2025년 150.1억 달러까지 증가
 - EU의 대(對) 한국 투자는 2000년 43.6억 달러에서 2021년 119.8억 달러까지 증가,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69.2억 달러 수준
 - 2022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EU의 자체적인 경제 안보 강화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
 - 2022년 이후 EU는 핵심 기술 유출을 막고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를 대폭 강화

[그림 II-37] 한국의 대(對)EU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II-38] EU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주: EU 27개국

자료: 산업통상부

(2) 업종별 투자 현황

■ 우리나라는 EU에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짐

- 2025년 우리나라의 대EU 직접투자 규모는 금융·보험업이 109.3억 달러(72.8%), 제조업 20.4억 달러(13.6%), 부동산업 8.1억 달러(5.4%) 등의 순
- 2024년 대비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 2024년 대비 투자규모 증감(억 달러): 금융·보험업 30.4, 제조업 1.8, 건설업 1.0, 부동산업 -2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표 II-12] 한국의 대(對)EU 해외직접투자액(업종별)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¹⁾ (%)
전체	123.7	157.1	110.5	144.8	150.1	(100.0)
[전년대비, %]	[11.5]	[27.0]	[-29.6]	[31.0]	[3.6]	
금융 및 보험업	58.9	71.9	64.9	78.9	109.3	(72.8)
제조업	22.3	43.4	15.9	18.6	20.4	(13.6)
부동산업	15.3	22.2	13.1	31.6	8.1	(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4.9	6.9	4.6	3.5	(2.3)
건설업	1.5	2.0	0.3	0.8	1.8	(1.2)

주: 1) 2025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EU는 우리나라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이루어짐

- 2025년 EU의 대(對) 한국 투자규모는 제조업 47억 달러(67.9%), 서비스업 17억 달러(24.6%),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5.2억 달러(7.6%) 등의 순
- 2024년 대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서비스업은 감소
 - 2024년 대비 투자규모 증감(억 달러): 제조업 25.1, 서비스업 -7.8
 - 프랑스, 독일 등의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입 확대

[표 II-13] EU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¹⁾(업종별)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²⁾ (%)
전체	119.8	74.9	62.3	51.0	69.2	(100.0)
[전년대비, %]	[197.3]	[-37.5]	[-16.9]	[-18.1]	[35.7]	
농·축·수산·광업	0.0	0.0	0.0	0.3	0.0	(0.00)
제조업	17.4	40.9	17.9	21.9	47.0	(67.9)
서비스업	99.5	24.2	37.6	24.8	17.0	(24.6)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3.0	9.8	6.8	4.0	5.2	(7.6)

주: 1) 신고금액 기준 2) 2025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1절 거시경제 현황

[표 II-14] 일본 경제 주요 지표(2025년)¹⁾

구 분	내용
인구	1.2억 명
명목 GDP	4조 4,352억 달러
경제성장률	1.1%
1인당 GDP	35,951달러
실업률	2.5%
경상수지	2,158억 달러
상품수지 ²⁾	-37억 달러
서비스수지	-234억 달러
수출(통관기준)	7,380억 달러
수입(통관기준)	7,571억 달러
외환보유액 ³⁾	1조 3,698억 달러
R&D 투자(GDP 대비) ⁴⁾	3.6%

주: 1) 주요 지표는 국가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국가별 본문의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국제수지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본선 인도) 기준이며, 통관기준 무역통계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기준

3) 2025년 12월말 기준(금 포함)

4)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2024년 기준)

자료: IMF, OECD, World Bank

1. 경제성장률

● **일본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가 나타났으며, 2026년에는 정부지출과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며 성장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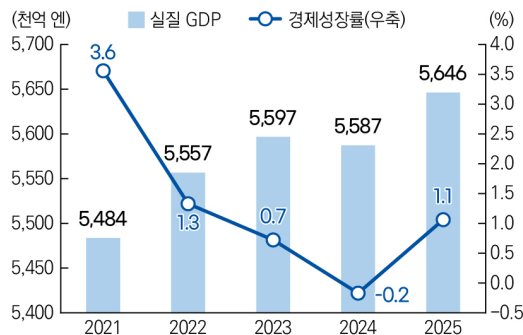
■ 2025년 중 일본 경제는 3분기 중 주택투자 부진으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시현

-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25.1분기) 0.5 → (2분기) 0.3 → (3분기) -0.6 → (4분기) 0.2
- 임금인상,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양호한 기업수익, 인력부족 등에 대응한 신규투자가 확대
 -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전기대비 %): ('25.1분기) 0.6 → (2분기) 0.2 → (3분기) 0.5 → (4분기) 0.1
 - 설비투자 증가율(전기대비 %): ('25.1분기) 1.2 → (2분기) 1.0 → (3분기) -0.1 → (4분기) 1.2
 - 2025년 지출부문별 경제성장률 기여도(%p): 민간수요 0.8, 총고정자본형성 0.2, 공적수요 0.1, 순수출 -0.1

■ 2026년 1분기 일본경제는 양호한 기업실적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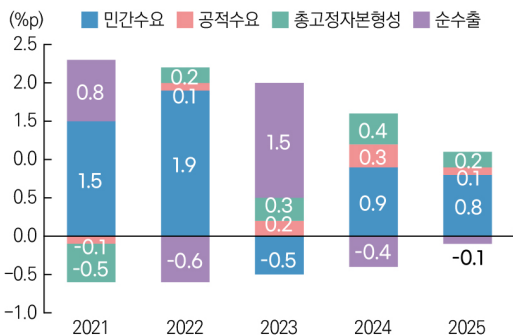
- GDP 증가율(전기대비 %): ('25.3분기) -0.6 → (4분기) 0.2 → ('26.1분기) 0.5
 - 민간수요(0.0%)는 민간소비(0.1%)가 소폭 증가하고 주택건설(0.9%)이 늘었으나, 설비투자(-0.7%)가 감소하면서 전기수준 유지

[그림 II-39] 일본 경제성장률



자료: 일본 내각부(CAO)

[그림 II-40] 일본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 공적수요(0.5%)는 공적고정자본형성(1.5%)의 개선으로 전기대비 증가
- 수출(1.8%)은 전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 수입(0.4%)은 전기대비 소폭 증가

[표 II-15] 일본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0.1	1.1	0.5	0.3	-0.6	0.2	0.5
국내수요	0.2	1.4	1.1	0.2	-0.3	0.1	0.1
민간수요	0.0	1.6	1.6	0.0	-0.3	0.1	0.0
민간소비지출	-0.1	1.3	0.6	0.2	0.5	0.1	0.1
주택건설	-2.3	-2.5	-0.5	0.0	-8.0	5.0	0.9
설비투자	1.2	2.1	1.2	1.0	-0.1	1.2	-0.7
공적수요	0.5	0.7	-0.2	0.5	-0.1	0.3	0.5
정부소비지출	0.9	0.9	-0.3	0.6	0.1	0.4	0.3
공적고정자본형성	-0.9	-0.4	-0.8	0.4	-1.0	-0.1	1.5
수출	1.0	2.5	-0.6	1.6	-1.6	0.2	1.8
수입	1.3	3.8	2.2	1.1	-0.2	0.0	0.4

자료: 일본 내각부(CAO)

- 2026년 1분기에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지표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
 - 2026년 1분기 주요지표(전기대비 %): 민간수요 0.0, 설비투자 -0.7, 수출 1.8
- 민간소비는 임금상승 및 인플레이션 둔화, 정부의 경제대책 등에 의하여 향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일본정부의 전기·가스 보조금 지급(세대당 약7,000엔 지급),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중점지원 지방교부금을 통한 가계지원 등
- 설비투자는 인력부족 대응을 위한 자동화·인력절감 투자, 탈탄소·AI 관련 투자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대립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소 부진해질 가능성

2. 산업생산

■ 2025년 광공업생산은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하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음

- 상반기 광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월) 4.3 → (2월) 4.1 → (6월) 0.8
- 하반기 광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7월) -2.0 → (9월) -0.2 → (12월) -0.8
-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업종의 상승세에 힘입어 서비스업의 생산 및 업황이 개선
 - 서비스업 PMI지수가 2025년 모든월에 기준치 50을 상회하여 업황을 긍정적으로 평가
 - 서비스업 PMI지수(기준치=50): ('25.2월) 53.7 → (7월) 53.6 → (11월)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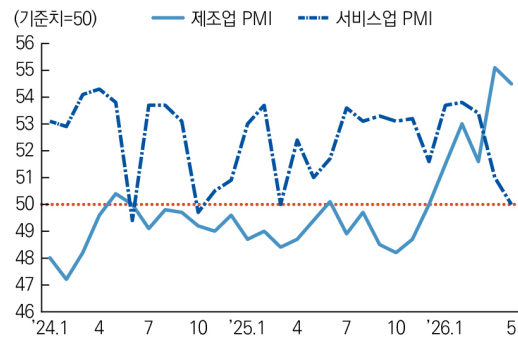
■ 2026년 1~4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의 개선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2026년 4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0.4 → (3월) 0.6 → (4월) 2.3
-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2026년 1월 이후 기준치 50을 상회하며 업황 개선 흐름을 나타냈으며, 서비스업 PMI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2026년 3월 이후 하락
 - 제조업 PMI지수(기준치=50): ('26.2월) 53.0 → (3월) 51.6 → (4월) 55.1 → (5월) 54.5
 - 서비스업 PMI지수(기준치=50): ('26.2월) 53.8 → (3월) 53.4 → (4월) 51.0 → (5월) 50.0

[그림 II-41] 일본 광공업 및 제조업 생산지수



[그림 II-42] 일본 업종별 PMI 지수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3.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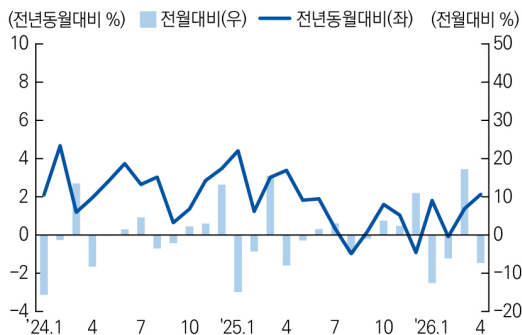
■ 일본의 2025년 소매판매는 8월과 12월을 제외하고 모든 월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소매판매지수(전년동기대비 %): ('25.1월) 4.4 → (6월) 1.9 → (10월) 1.6 → (12월) -0.9
- 명목기준 소매판매액은 상반기에는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소폭 감소
 - 소매판매액(전년동기대비 %): ('24.4분기) 2.6 → ('25.1분기) 3.0 → (2분기) 2.4 → (3분기) -0.1 → (4분기) 0.6
-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5년 5월 이후 2026년 1월까지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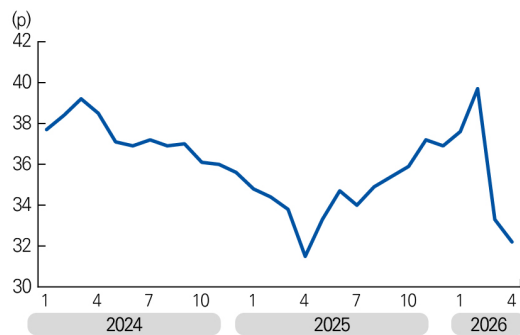
■ 2026년 1~4월 소매판매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혼조세

- 소매판매지수(전년동월대비 %): ('26.2월) -0.1 → (3월) 1.4 → (4월) 2.1
 - 소매판매지수(전월대비, %): ('26.2월) -6.1 → (3월) 17.2 → (4월) -7.3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6년 3월 이후 급격하게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p): ('26.2월) 39.7 → (3월) 33.3 → (4월) 32.2

[그림 II-43] 일본 소매판매 및 가계소비



[그림 II-44] 일본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4. 투자

■ 2025년 설비투자는 양호한 기업실적, 인력부족 대응 및 친환경·디지털 투자 확대 등을 배경으로 상반기 중 증가세를 보이다 하반기 이후 변동성이 커지며 등락을 거듭

- GDP 민간기업 설비투자(전기대비 %): ('25.1분기) 1.2 → (2분기) 1.0 → (3분기) -0.1 → (4분기) 1.2
 - 자본재충공급과 민간기계수주(선박·전력제외)도 상반기 중 상승세를 보이다 하반기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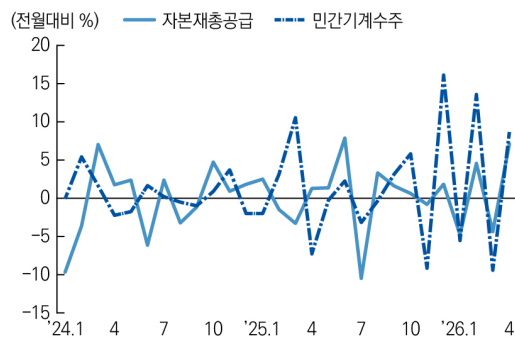
■ 2025년 민간주택투자는 신규 규제 도입에 따라 3분기 전후 큰 폭의 등락을 보였음

- 2025년 상반기에 목조건물 건축허가 요건 간소화 중단,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화 기준 준수 의무화 등의 규제 도입으로 주택착공의 변동성이 커졌음
- GDP 민간주택투자(전기대비 %): ('25.1분기) -0.5 → (2분기) 0.0 → (3분기) -8.0 → (4분기) 5.0 → ('26.1분기) 0.9

■ 2026년 1분기의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다소 부진, 건설투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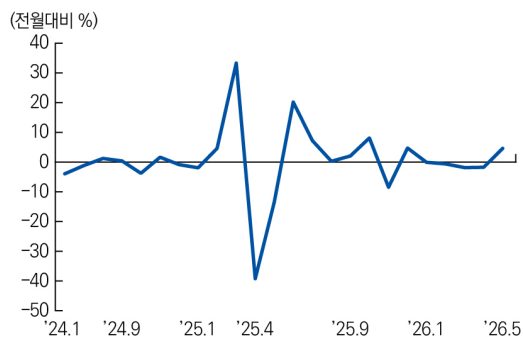
- 자본재충공급과 민간기계수주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감소
 - 자본재충공급(전월대비 %): ('26.1월) -4.8 → (2월) 4.6% → (3월) -4.8%
 - 민간기계수주액(전월대비 %): ('26.1월) -5.5 → (2월) 13.6% → (3월) -9.4%
 - 주택건설투자의 수준을 나타내는 주택착공호수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대비 감소, 4월은 전월대비 반등
 - 주택착공호수(전월대비 %): ('26.1월) -0.1 → (2월) -0.6 → (3월) -1.9 → (4월) 4.6

[그림 II-45] 일본 자본재 충공급 및 민간기계수주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그림 II-46] 일본 주택착공호수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5.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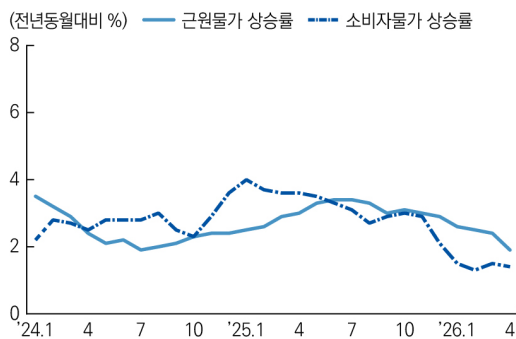
■ 일본의 2025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중 쌀가격 등 식료품 가격급등으로 오름세가 유지되다 하반기 들어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름세가 둔화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 ('25.1분기) 3.8 → (2분기) 3.5 → (3분기) 2.9 → (4분기) 2.7
 - 식료품물가(전년동기대비 %): ('25.1분기) 7.6 → (2분기) 6.7 → (3분기) 7.2 → (4분기) 5.9
 - 에너지물가(전년동기대비 %): ('25.1분기) 7.7 → (2분기) 6.5 → (3분기) -0.8 → (4분기) 1.3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지수)도 2025년 상반기중 오름폭이 확대되다 하반기들어 둔화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 ('25.1분기) 2.7 → (2분기) 3.2 → (3분기) 3.2 → (4분기) 2.5

■ 2026년 1~4월 중 일본은 식료품 가격상승률은 둔화되고 에너지 가격상승률은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이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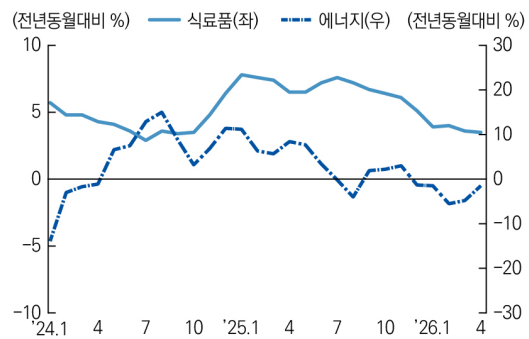
- 식료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26.3월 3.6% → 4월 3.5%),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은 하락('26.3월 -4.8% → 4월 -1.5%)하여 물가상승률이 소폭 하락
 - 일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및 보조금 지급은 에너지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1.3 → (3월) 1.5 → (4월) 1.4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2.5 → (3월) 2.4 → (4월) 1.9

[그림 II-47]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그림 II-48] 일본 식료품과 에너지물가 상승률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6. 고용 및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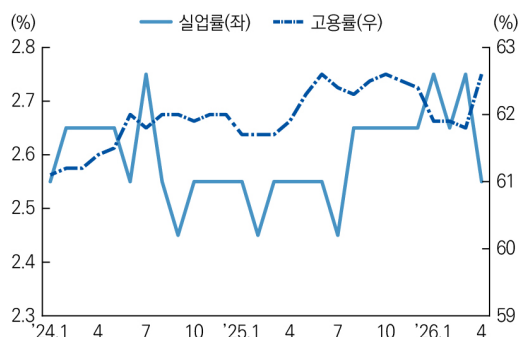
■ 2025년 일본의 고용상황은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

- 취업자수는 2025년도 중 분기별 평균 14만명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도 전년동기 대비 소폭 상승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천명): ('24.4분기) 133 → ('25.1분기) 149 → (2분기) 169 → (3분기) 124 → (4분기) 131
 - 고용률 증감(전년동기대비, %p): ('24.4분기) 0.5 → ('25.1분기) 0.6 → (2분기) 0.6 → (3분기) 0.5 → (4분기) 0.5
- 실업률(계절조정)은 2% 중반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자수/유효구직자수)은 2025년 5월 이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1.2배 내외의 높은 수준
 - 월별 실업률(계절조정, %): ('25.1월) 2.5 → (2월) 2.4 → (3월) 2.5 → (8월) 2.6 → (12월) 2.6

■ 2026년 1~4월 중 실업률은 2% 중반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 고용률도 소폭 상승하였고 취업자수는 기간 중 7.5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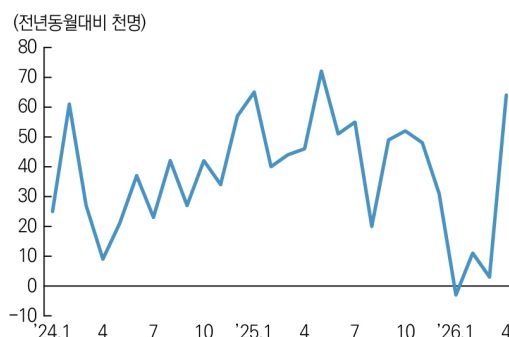
- 1~4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7.5만명 증가,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 인구)은 61.8%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
- 실업률(%): ('26.2월) 2.6 → (3월) 2.7 → (4월) 2.5
- 고용률(%): ('26.2월) 61.9 → (3월) 61.8 → (4월) 62.6

[그림 II-49] 일본 실업률과 고용률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SBJ)

[그림 II-50] 일본 취업자수 증감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SBJ)

7.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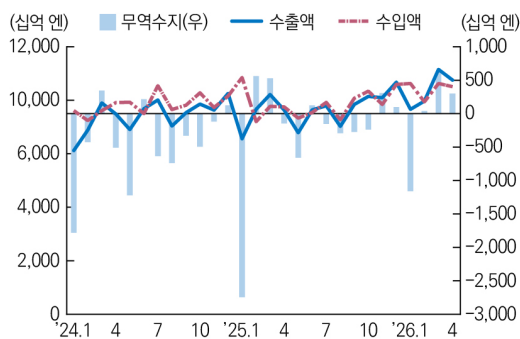
■ 2025년 일본의 수출(통관, 전년동기대비)은 미국의 관세부과로 2분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4분기 이후에는 개선되는 모습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4.4분기) 3.2 → ('25.1분기) 7.4 → (2분기) 0.0 → (3분기) 0.4 → (4분기) 4.9
-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광물성 연료 수입이 줄면서 2~3분기 감소하였으나, 4분기에는 증가로 전환
 - 수입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4.4분기) -0.4 → ('25.1분기) 5.9 → (2분기) -3.2 → (3분기) -3.2 → (4분기) 2.5
 - 광물성연료 수입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4.4분기) -12.5 → ('25.1분기) -6.3 → (2분기) -17.4 → (3분기) -18.3 → (4분기) -11.1

■ 2026년 1~4월 중 수출과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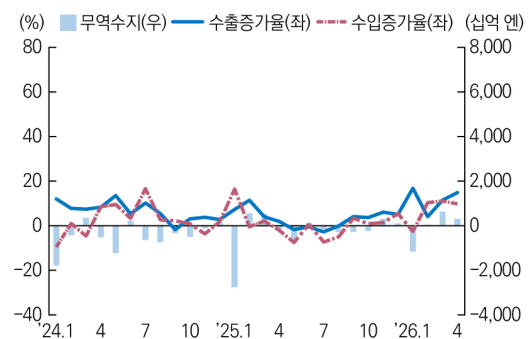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2월) 4.0 → (3월) 11.5 → (4월) 14.8
- 수입(전년동월대비, %): ('26.2월) 10.3 → (3월) 11.0 → (4월) 9.8
- 무역수지(억 엔): ('26.2월) 366 → (3월) 6,312 → (4월) 2,993

[그림 II-51] 일본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그림 II-52] 일본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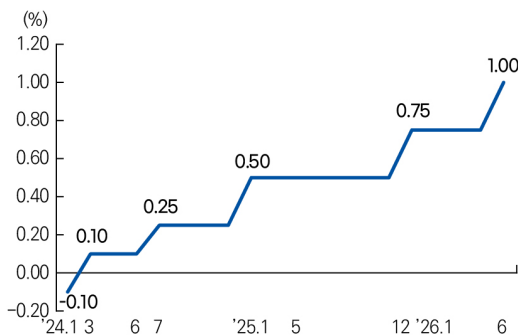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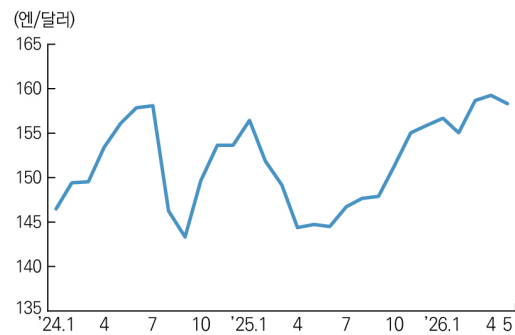
- 일본은행(BOJ)은 2026년 6월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인 콜금리 운영목표를 0.7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결정
 - 1.00%의 콜금리는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2025년 12월 인상 이후 6개월만에 인상
- 정책금리의 인상은 구조적 물가상승 압력을 제어하고, 엔화 약세를 방어하며,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 구조적 물가상승압력의 제어: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본의 물가상승이 광범위하게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 지속적인 엔화 약세에 대응: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외환시장에 개입했음에도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에 머무름
 - 엔/달러 환율(엔): ('26.3월) 159.6 → (4월) 160.1 → (5월) 159.3
 -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한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
 -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그림 II-53] 일본은행 정책금리 추이



자료: 일본은행(BOJ)

[그림 II-54] 일본 엔/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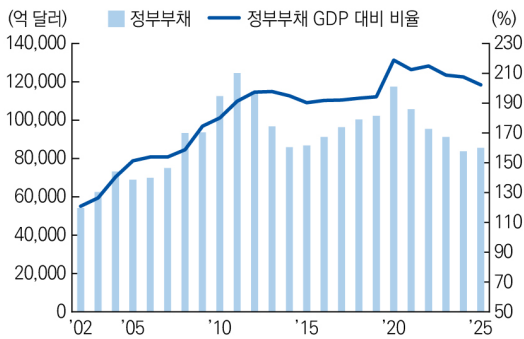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2. 재정정책

■ 일본 타카이치 내각은 21.3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

- 2025년 11월 21.3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7.7조엔 상당의 2025년도 보정예산안을 의결
 - 종합경제대책의 실현을 위한 실질 순재정지출 규모는 21.3조 엔, 국가·지자체·민간자금을 합한 사업규모는 42.8조 엔에 이름
 - 일반회계(17.7조 엔), 감세(2.7조 엔) 및 특별회계(0.9조 엔)등을 포함한 국비 등을 포함하며, 재정투융자가 추가될 경우 약 25.5조 엔 상당의 재정조치가 예정
- 재원 마련을 위해 17.72조 엔의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세수 증가분, 세외 수입 등으로 충당하기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할 예정
 - 국채발행액은 전년도 예산 보정 후 국채 발행액(42.1조 엔)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막대한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 2025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 규모는 약 1,324조 엔 수준이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3% 수준
 - 2025년 기준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약 30조 엔 수준이며,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6.4% 수준에 달함

[그림 II-55] 일본 정부부채 및 GDP 대비 부채비율 [그림 II-56] 일본 재정적자 및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자료: CEIC



자료: CEIC

제3절 한-일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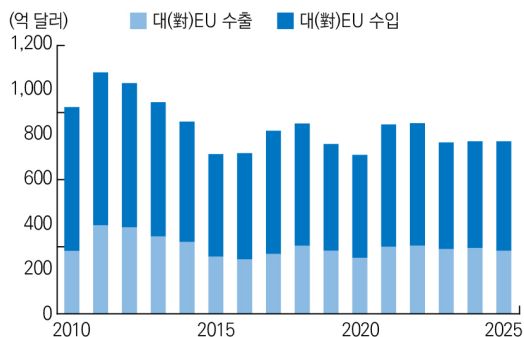
1. 한국과 일본의 교역 현황

(1) 교역 규모 및 추이

■ 한국과 일본의 교역규모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35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 연간 약 700억 달러~800억 달러 규모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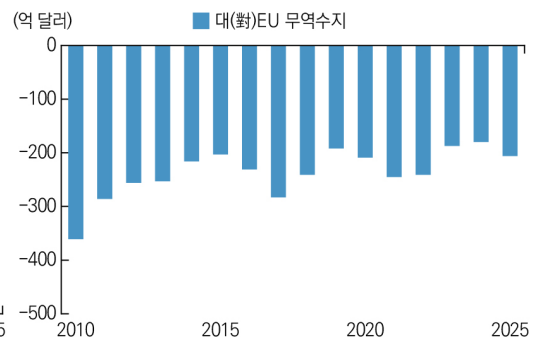
- 2025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283억 달러, 대일본 수입액은 48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06억 달러 적자이며, 교역규모는 772억 달러
 - 한국은 일본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180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여왔음
- 과거 1~2위를 다투던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 비중은 소재·부품의 대일본 의존도 감소 및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
 - 소재·부품 국산화 및 탈일본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핵심 산업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 대일본 부품 의존도가 크게 감소
 - 공급망 다변화: 중국, 베트남 등 대체 교역국이 급부상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특정 국가(일본)에 치중되었던 수입선이 다각화
 - 수직적 분업 구조 변화: 한국의 자체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양국 간 상호 의존성이 감소

[그림 II-57] 한-일 교역 규모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58] 대(對)일 무역수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품목별 교역 구조

■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판, 반도체 등으로 구성

- (품목별) 2025년 중 석유제품 수출이 53.8억 달러로 전체 대일본 수출의 19.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철강판(7.5%), 반도체(4.5%), 비누치약 및 화장품(3.9%), 금은빛백금(3.5%) 등이 뒤를 이음

■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입은 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플라스틱 제품, 철강판, 계측 제어분석기 등 제조업 중간재 및 부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첨단 제조장비, 화학 및 기초 소재, 핵심 부품을 주로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구조를 띠고 있음
- (품목별) 2025년 중 반도체 수입이 83.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반도체제조용장비(13.0%), 플라스틱 제품(3.7%), 철강판(3.2%), 계측제어분석기(2.6%) 등이 뒤를 이음

■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간에 중간재 중심의 수평적 분업으로 발전

- 과거 한국이 일본의 소재·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던 단순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최근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양국이 서로 주고받는 수평적 협력 및 경쟁 관계로 발전

[표 II-16] 한·일 주요 교역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번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석유제품	53.8	(19.0)	반도체	83.5	(17.1)
2	철강판	21.2	(7.5)	반도체제조용장비	63.4	(13.0)
3	반도체	12.8	(4.5)	플라스틱 제품	18.1	(3.7)
4	비누치약및화장품	10.9	(3.9)	철강판	15.5	(3.2)
5	금은빛백금	9.8	(3.5)	계측제어분석기	12.7	(2.6)
6	합성수지	8.8	(3.1)	석유제품	11.0	(2.3)
7	의약품	7.4	(2.6)	금은빛백금	11.0	(2.2)
8	반도체제조용장비	7.2	(2.6)	원동기및펌프	9.6	(2.0)
9	정밀화학원료	6.8	(2.4)	기초유분	9.5	(1.9)
10	플라스틱 제품	6.0	(2.1)	의약품	9.2	(1.9)
	총계	283.1	(100.0)	총계	48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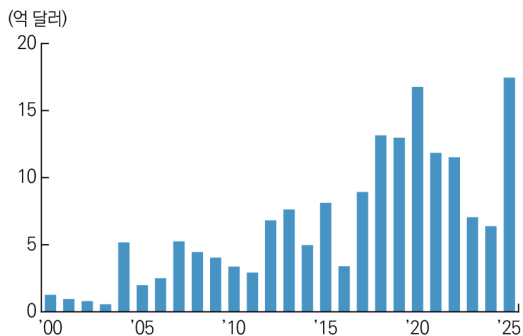
주: 202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과 일본의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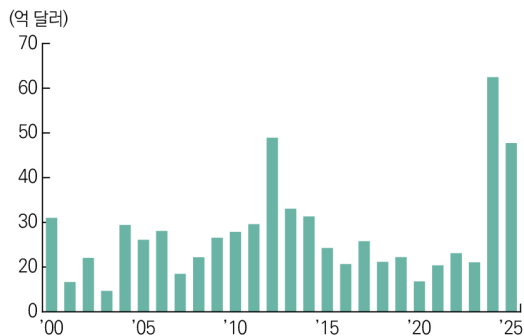
(1) 투자 규모 및 추이

- 한국의 대(對)일본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1억 3,000만 달러에서 2020년 16억 8,000만 달러까지 확대된 이후 2024년 6억 4,00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17억 5,000만 달러로 큰 폭 증가
- 일본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대 초반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한동안 정체를 겪었으나, 최근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하는 추세
 - 일본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24억 5천만 달러에서 2020년 7억 9천만 달러까지 감소한 후, 2024년 61억 2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44억 달러로 감소
 - 건당 소규모 투자: 대규모 공장 건설이나 M&A보다는 건당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낮은 지분율로 합작 투자에 참여하는 경향
 - 소재·부품·장비 중심: 일본의 우수한 기초 과학 및 소재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양산 능력을 결합하기 위한 제조업 및 부품 산업 투자가 주를 이룸
 - 외부 환경에 대한 민감성: 한일 관계의 정치적·외교적 갈등, 무역 분쟁 등 양국 간 정치적 이슈에 대해 투자 심리가 고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
 - 금융 및 소비재 시장 협력: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한국의 핀테크, 디지털 금융, 유통 및 소비재 시장으로 투자 영역이 다변화

[그림 II-59] 한국의 대(對)일본 해외직접투자 추이 [그림 II-60] 일본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산업통상부

(2) 업종별 투자 현황

■ 우리나라는 일본에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

- 2025년 우리나라의 대일본 직접투자 규모는 정보통신업 5.6억 달러(32.0%), 도매 및 소매업 3.7억 달러(21.0%), 제조업 2.3억 달러(13.0%) 등의 순
- 2024년 대비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폭 증가
 - 2024년 대비 투자규모 증감(억 달러): 정보통신업 4.9, 도매 및 소매업 2.3, 제조업 1.7, 금융 및 보험업 0.3, 부동산업 0.2

[표 II-17] 한국의 대(對) 일본 해외직접투자액(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¹⁾ (%)
전체	1,185	1,151	704	638	1,746	
[전년대비, %]	[-29.3]	[-2.8]	[-38.8]	[-9.5]	[173.8]	
정보통신업	135	198	60	72	558	(32.0)
도매 및 소매업	101	315	134	141	366	(21.0)
제조업	33	43	54	58	227	(13.0)
부동산업	177	141	104	143	158	(9.1)
금융 및 보험업	636	388	208	107	140	(8.0)

주: 1) 2025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일본은 우리나라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수행

- 2025년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규모는 제조업 38억 달러(86.3%), 서비스업 6억 달러(13.7%) 등의 순
- 2024년 대비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모두 감소
 - 2024년 대비 투자규모 증감(억 달러): 제조업 -10.7, 서비스업 -4.8,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1.7

[표 II-18] 일본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¹⁾(업종별)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²⁾ (%)
전체	12.1	15.3	12.9	61.2	44.0	(100.0)
[전년대비, %]	[52.8]	[26.3]	[-15.8]	[375.6]	[-28.1]	
제조업	4.7	6.9	6.4	48.7	38.0	(86.3)
서비스업	7.3	8.4	6.4	10.8	6.0	(13.7)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0.1	0.0	0.1	1.7	0.0	(0.0)

주: 1) 신고금액 기준

2) 2025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World Economy 2026:
Economic Developments in Major Economies





2026 세계경제

World Economy 2026:
Economic Developments in Major Economies

III

신흥국 경제 동향

제1장 중국

제2장 브라질

제3장 러시아

제4장 인도

제5장 베트남

제1절 거시경제 현황

[표 III-1] 중국경제 주요 지표(2025년)¹⁾

구 분	내용
인구	14.1억 명
명목 GDP	19조 4,980억 달러
경제성장률	5.0%
1인당 GDP	13,862달러
실업률	5.4%
경상수지	7,350억 달러
상품수지 ²⁾	1조 606억 달러
서비스수지	-2,381억 달러
수출(통관기준)	3조 7,706억 달러
수입(통관기준)	2조 5,878억 달러
외환보유액 ³⁾	3조 7,443억 달러
R&D 투자(GDP 대비) ⁴⁾	2.7%

주 1) 주요 지표는 국가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국가별 본문의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국제수지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본선 인도) 기준이며, 통관기준 무역통계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기준

3) 2025년 12월말 기준(금 포함)

4)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2024년 기준)

자료: IMF, OECD, World Bank

1.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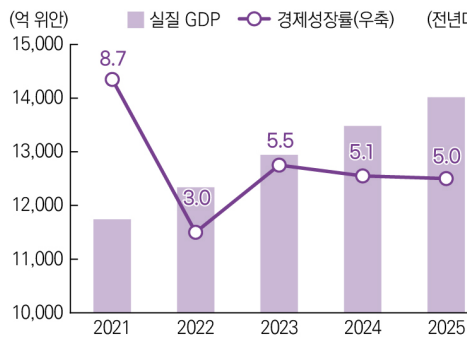
○ 중국경제는 수출 회복과 정책 지원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2025년 중국 경제는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내수 진작 정책에 힘입어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

-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과 첨단 제조업 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
- (지출부문별) 소비와 순수출이 성장을 견인한 반면, 투자의 기여도는 제한적
 - 최종소비지출(2.6%p)과 재화 및 서비스 순수출(1.6%p)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반면, 총자본형성의 기여도는 0.8%p에 그침
- (산업별¹⁾) 서비스업이 성장을 견인한 반면,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2차산업의 성장세는 둔화
 - 2025년 산업별 성장률은 1차 산업(3.7% → 3.9%)과 3차 산업(5.1% → 5.4%)의 성장률은 전년보다 높아진 반면, 2차 산업(5.0% → 4.5%)의 성장률은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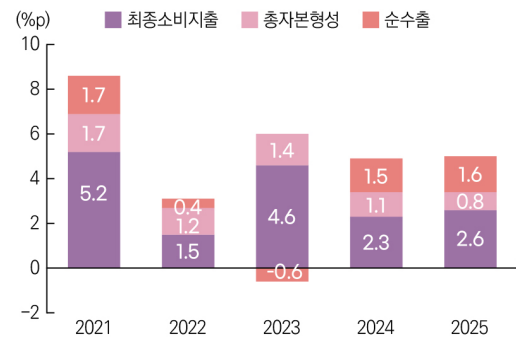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5.0%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그림 III-1] 중국 경제성장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그림 III-2] 중국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1)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서비스업(57.7%)이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건설업 등을 포함한 제2차 산업(35.6%), 농림어업 중심의 제1차 산업(6.7%) 순

[표 III-2] 중국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²⁾ 국내총생산

(단위: %, %p)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5.0	5.0	5.4	5.2	4.8	4.5	5.0
1차산업	3.7	3.9	3.5	3.8	4.0	4.2	3.8
2차산업	5.0	4.5	5.9	4.8	4.2	3.4	4.9
3차산업	5.1	5.4	5.3	5.7	5.4	5.2	5.2
최종소비지출	2.3	2.6	2.7	2.7	2.6	2.4	2.1
총자본형성	1.1	0.8	0.3	1.3	0.8	0.7	1.7
순수출	1.5	1.6	2.4	1.3	1.4	1.4	0.7

주: 1) 전년동기대비

2) GDP 기여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미·중 갈등과 부동산 시장 부진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첨단 제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중국경제의 성장세를 지지

- 산업생산은 첨단기술 제조업, 신에너지차, 산업용 로봇, 집적회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건설 중심의 성장구조에서 첨단 제조업과 전략산업 중심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이동하는 모습
- 반면,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는 2026년 들어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개발투자 부진, 민간투자 약화 등이 내수 회복을 제약
- 대외부문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 수출과 홍콩·베트남·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가 성장을 뒷받침하였으나,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은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을 확대
- 중국 정부는 금리·지급준비율 인하, 이구환신(以旧换新)²⁾ 정책, 초장기 특별국채 및 구조적 금융지원 등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재정 부담, 낮은 소비심리 등은 하방위험 요인

2) 이구환신(以旧换新)은 옛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중국 정부가 가전제품·자동차 등의 노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소비진작 정책

2.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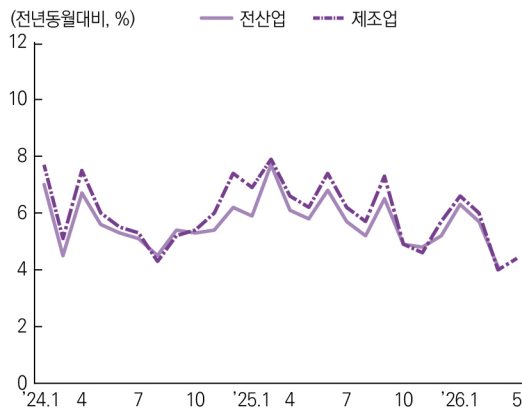
■ 2025년 산업생산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 (산업별) 광업(5.6%)과 제조업(6.4%)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첨단기술제조업은 9.4% 증가하는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성장
- (업종별) 자동차 제조업(11.5%), 철도·선박·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4.0%),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장비 제조업(10.6%), 전기기계·장비 제조업(9.2%)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산업생산 확대를 견인
- (품목별) 산업용 로봇(28.0%), 신에너지차(25.1%), 집적회로(반도체)(10.9%), 발전설비(37.6%), 태양광 발전량(24.4%)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첨단 제조업과 녹색산업의 성장이 지속
 - 반면, 시멘트(-6.9%), 조강(-4.4%), 선철(-3.0%), 판유리(-3.0%) 등 부동산·건설 관련 품목의 생산은 감소

■ 2026년 1~5월 산업생산은 첨단산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첨단기술제조업은 13.1%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지속
- (품목별) 산업용로봇(28.1%)과 집적회로(25.4%)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첨단 제조업의 성장세가 강화

[그림 III-3] 중국 산업생산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표 III-3] 중국 업종 및 주요 품목별 산업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연간	2025년 연간	2026년 1~5월
산업생산	5.8	5.9	5.4
광업	3.1	5.6	4.8
제조업	6.1	6.4	5.5
- 첨단기술제조업	8.9	9.4	13.1
전기·열·가스 및 수도사업	5.3	2.3	5.1
산업용로봇	14.2	28.0	28.1
신에너지차	16.0	25.1	0.9
발전설비	15.7	37.6	5.4
집적회로(반도체)	1.3	10.9	25.4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3.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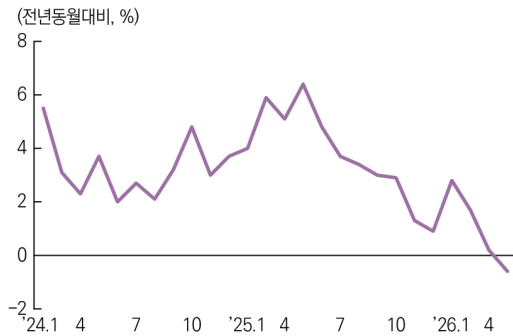
■ 2025년 중국의 소매판매는 정부의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에 힘입어 정책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 (품목별) 통신기기(20.9%), 문화사무용품(17.3%), 가구류(14.6%), 가전 및 음향기기(11.0%) 등 이구환신 정책의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증가
-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과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조정과 청년층 고용 불안 등은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2026년 1~5월중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4% 증가에 그치는 등 소비 회복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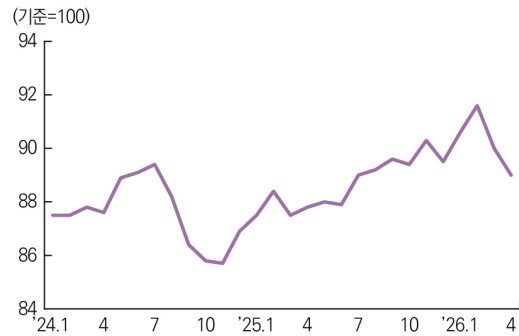
- (품목별) 식품(15.5%), 의류(7.2%), 생활필수품(1.6%) 판매액이 증가했으나, 가전 및 음향기기(-6.9%), 자동차(-11.8%) 등이 감소
- 특히 5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직후인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되는 등 소비의 회복세가 약화
- 소비자신뢰지수는 2026년 2월 91.6까지 상승하였으나 4월에는 89.0으로 다시 하락하였으며,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등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

[그림 III-4] 중국 소매판매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그림 III-5]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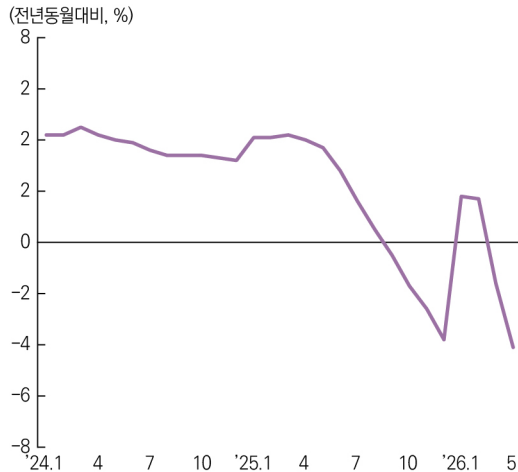
■ 2025년 고정자산투자는 제조업 투자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부동산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3.8% 감소

- (부문별) 제조업 투자는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인프라 투자(-2.2%)와 부동산 개발투자(-17.2%)는 감소
-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인공지능(AI), 신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정보서비스업과 항공우주장비 제조업 투자가 각각 28.4%, 16.9% 증가하는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지속
- 반면 부동산 개발투자는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 경제는 부동산 중심 성장모델에서 첨단 제조업과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모델로 전환을 지속

■ 2026년 1~5월중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1% 감소

- (부문별) 인프라 투자(0.6%)가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제조업 투자(-0.4%)는 감소하고 부동산 투자(-11.2%)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투자 회복세가 약화

[그림 III-6] 중국 고정자산투자(누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표 III-4] 중국 부문별 투자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연간	2025년 연간	2026년 1~5월
고정자산투자	3.2	-3.8	-4.1
건설투자	3.5	-8.4	-6.6
설비투자	15.7	11.8	9.3
기타	-4.2	-2.3	-6.4
인프라투자	4.4	-2.2	0.6
부동산개발투자	-17.0	-17.2	-11.2
농림수산업	6.4	-0.8	5.4
광업	10.5	2.5	6.2
제조업	9.2	0.6	-0.4
건설업	-1.9	-22.2	-6.0
서비스업	-1.1	-7.4	-6.8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5.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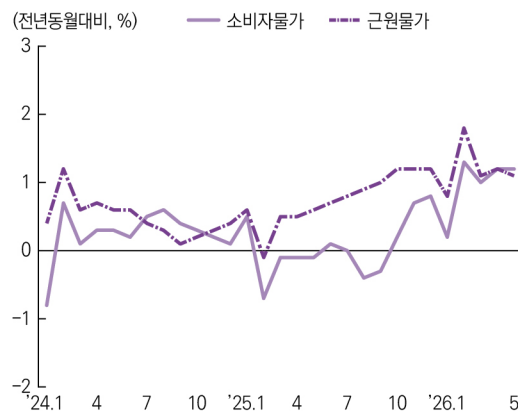
■ 2025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낮은 물가상승세를 지속

- 이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회복이 제한된 가운데, 식품 가격 하락과 낮은 수요압력이 지속된 데 주로 기인
-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1.5%)과 교통·통신(-2.6%)이 하락한 반면, 의복(1.5%), 생활용품·서비스(0.9%), 주거비(0.1%)는 소폭 상승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연간으로 2024년(0.5%)보다 높아진 0.7%를 기록

■ 2026년 1~5월중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0% 상승

- 품목별로는 가전제품(4.0%)을 중심으로 생활용품 및 서비스 가격이 전년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의료·보건서비스도 2.0% 상승
 - 반면 주거비는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임차료(-0.5%) 하락 등의 영향으로 0.2% 감소
-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5월중 1.2% 상승

[그림 III-7]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표 III-5] 중국 품목별 물가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5월
소비자물가	0.2	0.0	1.0
식료품	-0.6	-1.5	0.0
의복	1.4	1.5	1.7
생활용품·서비스	0.5	0.9	2.0
의료·보건	1.3	0.8	2.0
교통·통신	-1.9	-2.6	1.3
교육·문화	-0.1	-1.0	1.1
주거비	0.1	0.1	-0.2
기타 재화·서비스	-0.2	-3.7	12.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6. 고용 및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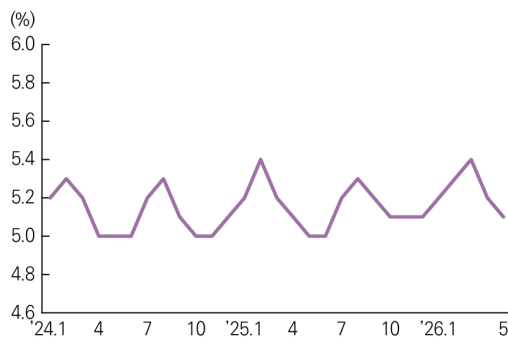
■ 중국의 실업률은 약 5% 내외를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 고용여건은 여전히 부담

- (실업률) 도시조사실업률은 5% 초반 수준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고용여건은 안정적인 모습
 - 다만 도시지역의 16~24세 청년실업률(재학생 제외)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음
- (산업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정책 지원에 힘입어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고용도 확대

■ 중국의 임금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보기술·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부동산·전통 서비스업 간 업종별 격차가 확대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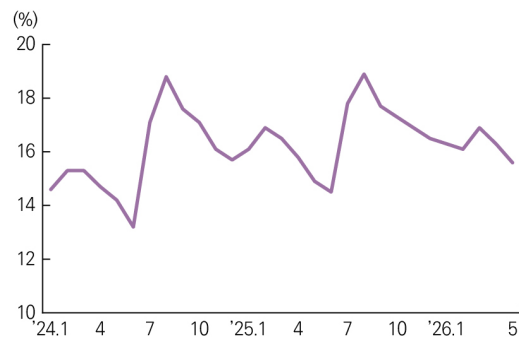
- 2025년 전국 도시 비민간부문의 평균 연간 임금은 129,441위안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은 71,590위안으로 3.0% 증가
- (업종별) 농림어업(10.3%), 교육(5.8%), 제조업(5.2%) 등에서 비교적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부동산업(-2.4%)과 임대·사업서비스업(-0.2%)은 평균임금이 감소

[그림 III-8] 중국 실업률



주: 전국 조사실업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그림 III-9] 중국 청년층 실업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3)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2026), "Average Annual Wages of Employees in Urban Units in 2025"

7.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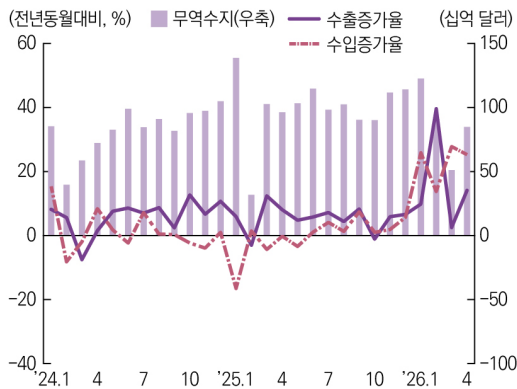
■ 2025년 수출은 첨단 제조업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며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

- (품목별) 반도체(26.4%), 유무선통신기기(0.4%) 등 첨단기술 제품과 자동차(22.4%)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확대를 견인
- (지역별) 미국(-19.8%)으로의 수출이 큰 폭 감소하였으나, 홍콩(15.2%), 베트남(22.4%), 일본(3.6%), 인도(12.7%)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
- 수입은 반도체(10.0%)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원유(-8.7%)와 철광석(-8.6%)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0.2% 감소,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조 1,935억 달러로 확대

■ 2026년 1~5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한 1조 7,006억 달러, 수입은 23.9% 증가한 1조 2,55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453억 달러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유무선통신기기(12.4%), 반도체(89.5%), 컴퓨터(9.8%)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55.2%)와 이차전지(42.4%)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반면, 소액면세대상 저가물품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
- (지역별) 미국(-3.9%)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는 한편, 홍콩(45.0%), 베트남(22.2%), 한국(27.6%)으로의 수출이 증가

[그림 III-10] 중국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중국 해관총서(GACC)

[표 III-6] 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연간	2025년 연간	2026년 1~5월
전체	4.6	5.5	14.5
유무선통신기기	-2.1	0.4	12.4
반도체	16.7	26.4	89.5
컴퓨터	7.1	-6.2	9.8
소액면세대상	45.9	26.7	-10.5
자동차	16.2	22.4	55.2
이차전지	-4.6	23.2	42.4
자동차부품	5.7	4.1	6.8
변압기	-1.1	13.2	20.7

주: HS 4단위

자료: 중국 해관총서(GACC)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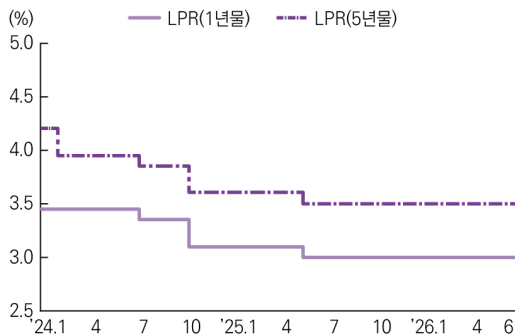
■ 2025년 중국 인민은행(PBOC)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내수진작을 지원

- 중국인민은행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5월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
 - 2025년 5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금리를 0.1%p 인하(1.5% → 1.4%)하고,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였으며, 대출우대금리(LPR)도 1년물 3.0%, 5년물 3.5%로 각각 0.1%p 인하
 -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혁신, 소비,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확대하며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지원

■ 2026년에는 금리를 동결하며 완화적 기조 하에 관망세를 유지

- 2026년 5월 대출우대금리(LPR)를 1년물 3.0%, 5년물 3.5%로 동결하며 12개월 연속 현 수준을 유지
 - 이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과 수입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추가 금리인하보다는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성장세 둔화와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정책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및 특별재대출 확대 등 추가적인 통화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존재

[그림 III-11] 중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중국인민은행(PBOC)

[표 III-기]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금리 인하	정책금리 0.1%p 및 지급준비율(RRR) 0.5%p 인하
부동산 지원	개인주택공적금 대출금리 0.25%p 인하
첨단산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설비 업그레이드 재대출 한도 확대(5,000억 위안 → 8,000억 위안)
내수 진작	서비스 소비·농업·중소기업 지원 재대출 한도 확대

자료: 중국인민은행(PBOC)

2. 재정정책

■ 2025년 중국 정부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과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소비 회복과 투자 확대를 지원

- 소비재 구매 보조금과 설비 업그레이드 지원을 통해 소비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을 활용하여 국가 중대 전략 사업, 신형 인프라, 도시재개발 및 민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2026년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와 특별국채,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및 이전지출 확대 등을 통해 내수 진작과 성장 안정화를 지원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

-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소비재 보조금 확대와 특별국채·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지원할 계획
-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6G 등 전략산업 육성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육성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

[참고] 2026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 중국은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4.5~5.0%)를 제시
 - 2026년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0%로 하향 조정
 - 소비자물가 상승률(2% 내외), 도시조사실업률(5.5% 내외)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로 유지, 일반공공예산 지출을 30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전년대비 1조 2,700억 위안 증가)
- 내수 확대 정책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
 -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대출금리 지원, 보증·신용확대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주요 소비재 보조금(가전·자동차 등) 확대, 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여력을 확대
 - 이외에도 초장기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여 국가 전략 사업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디지털 경제 등 전략 산업을 육성
 - 바이오, 양자기술, 인공지능(AI), 6G 등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혁신기업 지원 강화
 - 또한 지능형 신에너지차, AI 스마트 단말기, 지능형 로봇 등 제조업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 확대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제3절 한중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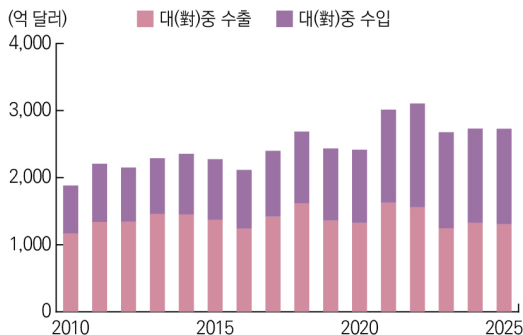
1. 한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

(1) 교역 규모 및 추이

■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양국 간 교역은 글로벌 공급망과 제조업 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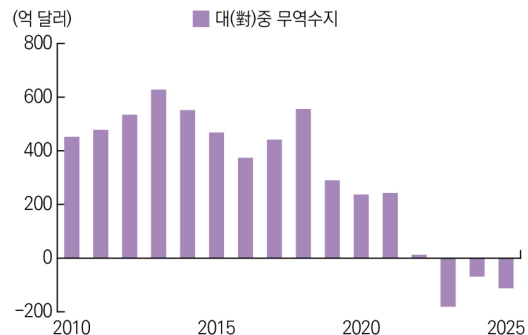
- 한·중 FTA 발효(2015년)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2025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약 2,728억 달러를 기록
- 다만,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과거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중국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는 적자로 전환
 - 2025년 대중 수출은 1,308억 달러, 수입 1,420억 달러로 대중 무역수지는 112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최근 중국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양국 간 산업 내 경쟁도 확대되는 추세
- 2025년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교역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그림 III-12] 한-중 교역 규모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I-13] 대중 무역수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품목별 교역 구조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 중간재 중심의 구조

- (품목별) 2025년 중 반도체 수출이 477.7억 달러로 전체 대중국 수출의 36.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무선통신기기(5.6%), 합성수지(4.5%), 기초유분(4.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5%) 등이 뒤를 이음
- 특히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디스플레이 등 ICT 관련 품목 비중이 높아 중국의 전자·정보통신 제조업 생산활동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밀접하게 연계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 산업용 전기기기 등 첨단 제조업 관련 품목과 의류 등 소비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

- (품목별) 반도체가 전체 수입의 1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컴퓨터(4.6%), 산업용 전기기기(4.0%), 축전지 및 소재(3.9%), 무선통신기기(3.5%) 등이 주요 수입 품목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의류(3.6%) 등 주요 소비재도 상위 수입 품목에 포함되어 있음

■ 수출과 수입 모두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축전지 및 소재 등 첨단 제조업 관련 품목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기반한 산업 내 교역(intra-industry trade) 성격을 보이고 있음

[표 III-8] 한·중 주요 교역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번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반도체	477.7	(36.5)	반도체	234.6	(16.5)
2	무선통신기기	73.8	(5.6)	컴퓨터	65.7	(4.6)
3	합성수지	58.6	(4.5)	산업용 전기기기	56.7	(4.0)
4	기초유분	53.8	(4.1)	축전지 및 소재	55.9	(3.9)
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5.8	(3.5)	의류	51.4	(3.6)
6	반도체제조용장비	38.1	(2.9)	무선통신기기	49.9	(3.5)
7	석유화학중간원료	36.8	(2.8)	정밀화학원료	47.6	(3.4)
8	석유제품	30.1	(2.3)	기타철강재	36.3	(2.6)
9	동제품	27.5	(2.1)	철강판	31.6	(2.2)
10	축전지 및 소재	25.5	(1.9)	자동차부품	30.7	(2.2)
	총계	1,307.8	(100.0)	총계	1,419.5	(100.0)

주: 202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과 중국의 투자 현황

(1) 투자 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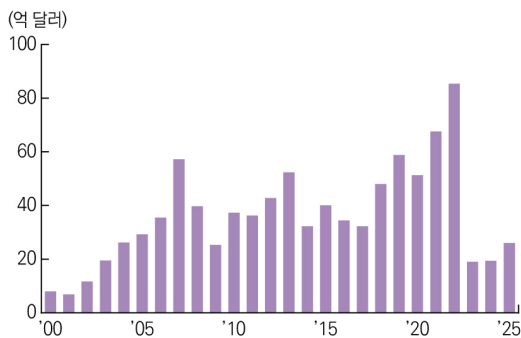
■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가공무역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도 점차 확대되었으나 최근 대내외 투자환경 변화로 감소하는 양상

-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2022년 85.4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5년에는 26억 달러로 축소
- 최근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는 반도체 분야 투자 급감과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도 중국 중심에서 ASEAN·미국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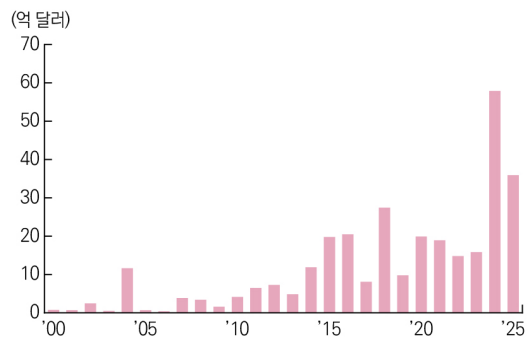
■ 한편,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는 과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크게 확대되는 모습

-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는 2024년 57.9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5년에도 35.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최근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는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생산·진출 거점 및 유통·물류 허브로 부상하는 모습⁵⁾

[그림 III-14] 한국의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그림 III-15] 중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산업통상부

4) 최지원·양평섭(2024), 「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최지원·박민숙(2025),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 증가 배경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8, No. 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업종별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회복은 제한적

-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는 2025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2021~2022년의 높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2025년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는 26.0억 달러로 전년대비 34.6% 증가하였으나, 2021년(67.6억 달러)과 2022년(85.4억 달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업종별) 제조업 투자가 22.4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86.3%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도매·소매업 투자도 1.7억 달러로 확대

[표 III-9] 한국의 대(對)중국 해외직접투자액(업종별)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¹⁾ (%)
전체 [전년대비, %]	67.6 [31.7]	85.4 [26.4]	19.0 [-77.8]	19.3 [1.7]	26.0 [34.6]	(100)
광업	0.3	0.9	0.5	1.4	1.0	3.7
제조업	59.5	80.5	14.0	16.8	22.4	86.3
도매 및 소매업	2.3	1.3	3.8	0.8	1.7	6.4
금융 및 보험업	1.1	0.1	0.1	0.0	0.3	1.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1	0.1	0.0	0.1	0.2	0.8

주: 1) 2025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중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제조업 투자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투자는 증가

- 2025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대비 38.0% 감소한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의 10.0%를 차지
 - (업종별) 제조업 투자(19.8억 달러)는 전기·전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5.6%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투자(14.9억 달러)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17.3% 증가하며 서비스업 중심의 투자 유입이 확대

[표 III-10] 중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¹⁾(업종별)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²⁾ (%)
전체 [전년대비, %]	18.9 [-5.2]	14.8 [-21.6]	15.8 [6.7]	57.9 [266.1]	35.9 [-38.0]	100.0
농·축·수산·광업	0.0	0.0	0.0	0.0	0.0	0.0
제조업	8.4	9.4	13.0	44.6	19.8	55.1
서비스업	8.8	4.4	2.8	12.7	14.9	41.6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1.6	1.0	0.0	0.6	1.2	3.3

주: 1) 신고금액 기준

2) 2025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1절 거시경제 현황

[표 III-11] 브라질 경제 주요 지표(2025년)¹⁾

구 분	내용
인구	2.1억 명
명목 GDP	2조 2,809억 달러
경제성장률	2.3%
1인당 GDP	10,713달러
실업률	6.0%
경상수지	-667억 달러
상품수지 ²⁾	597억 달러
서비스수지	-506억 달러
수출(통관기준)	3,483억 달러
수입(통관기준)	2,937억 달러
외환보유액 ³⁾	3,582억 달러
R&D 투자(GDP 대비) ⁴⁾	1.2%

주 1) 주요 지표는 국가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국가별 본문의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국제수지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본선 인도) 기준이며, 통관기준 무역통계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기준

3) 2025년 12월말 기준(금 포함)

4)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2024년 기준)

자료: Central Bank of Brazil, IMF, OECD,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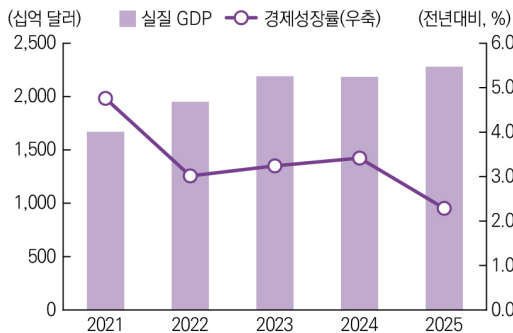
1. 경제성장을

○ 브라질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지속

■ 2025년 브라질 경제는 수출 호조 속 농림어업과 광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2.3% 성장하였으나,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나타나며 2024년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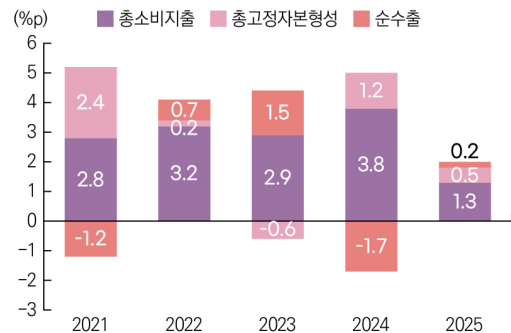
- (경제활동별) 농림어업과 광업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11.7%와 8.6%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각각 1.8%와 0.5% 성장에 그쳤으며, 제조업은 전년대비 0.2% 감소하여 부진한 모습
 - 농림어업의 높은 성장률은 2024년 기후조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 2025년 회복된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곡물 생산성 향상이 함께 나타난 결과
 - 광업의 경우 석유·가스 추출 증가가 광업 전체의 부가가치 증가에 주로 기여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부진은 물가 부담,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 둔화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
- (지출항목별)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1.3%, 2.9% 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2024년 성장률 5.1%, 6.9%),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개선

[그림 III-16] 브라질 경제성장률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그림 III-17] 브라질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주: 기타 및 잔차를 제외하고 표기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6년 1분기 브라질 경제는 민간소비가 개선되었으나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은 2025년 3분기 이후 1.8%에 머무름

- 분기별 성장률: ('25년 2Q) 2.4 → (3Q) 1.8 → (4Q) 1.8 → ('26년 1Q) 1.8

[표 III-12] 브라질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3.4	2.3	3.1	2.4	1.8	1.8	1.8
농림어업	-3.7	11.7	12.9	11.5	10.1	12.1	0.7
광업	0.5	8.6	1.2	8.8	11.9	12.0	13.1
제조업	3.9	-0.2	2.5	-0.2	-0.6	-2.0	-0.9
건설업	4.4	0.5	3.0	0.2	2.0	-2.9	1.3
서비스업	3.8	1.8	2.1	1.9	1.3	2.0	2.1
민간소비	5.1	1.3	2.2	1.8	0.4	1.0	1.7
정부지출	2.0	2.1	2.0	0.9	1.8	3.6	2.8
총고정자본형성	6.9	2.9	9.0	4.1	2.3	-3.1	-1.4
수출	2.8	3.3	1.2	2.1	7.2	14.2	7.4
수입	15.6	6.6	13.3	3.9	2.2	-0.3	1.2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 종합적으로, 브라질 경제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 등으로 소비·투자가 부진하여 내수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경제성장도 둔화되는 모습

- 브라질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0~2024년 기간 동안 3%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 성장률은 2.3%로 낮아짐
- 주요 곡물 생산 회복과 원유·가스 채굴 증가가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으나,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한 내수 회복 및 제조업 고도화 등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2.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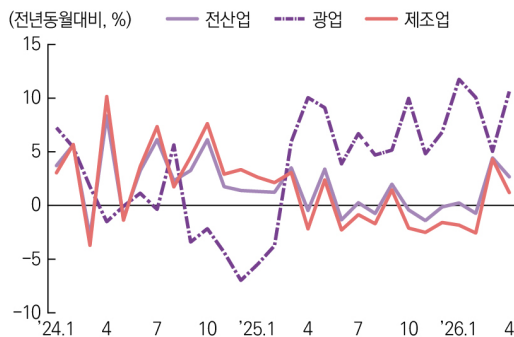
■ 2025년 브라질 산업생산은 제조업 부진 속 자본재 및 소비재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쳐 2024년(3.1%) 대비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

- 브라질은 광업 부문에서 심해유전 개발과 에너지 수출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업 생산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생산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체 산업생산을 지지
 - 2024년 말~2025년 초 주요 해상 유전 플랫폼의 정기 정비로 인한 가동중단으로 일시적인 생산 감소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생산 증가세 확인
- 제조업의 경우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0.2%)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 기계·장비, 전기·전자 등 내구재 및 투자재 생산 관련 업종의 부진이 주된 원인
 -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과 기업 투자심리 약화의 영향으로 평가

■ 2026년 브라질 산업생산은 광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 부진이 이어지며 산업생산도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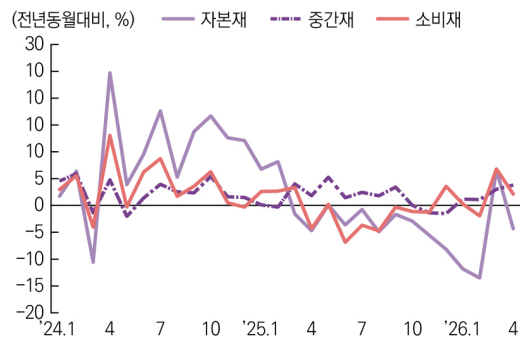
- 특히, 자본재 생산의 경우 2026년 1~2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후 3월에는 일시적으로 회복하였으나 4월에는 다시 부진한 상황

[그림 Ⅲ-18] 브라질 산업생산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그림 Ⅲ-19] 브라질 재화 유형별 산업생산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3.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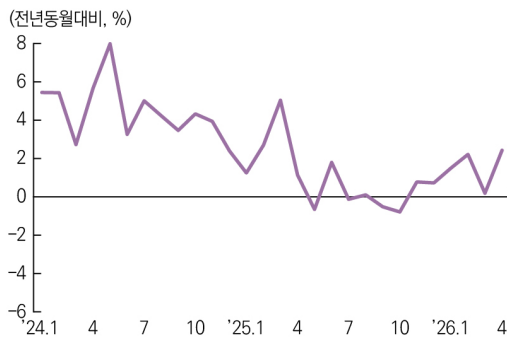
■ 2025년 브라질의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1.6%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2024년의 4.1%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하락

- 품목별로는 사무·통신기기, 의약품·화장품, 가구·가전의 소매판매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서적·신문의 경우 소매판매 물량이 전년대비 감소
- 2025년 4월까지의 소매판매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2~3%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
- 한편, 일반 소매판매 외에 자동차·오토바이·부품, 건설자재 등의 품목을 포함한 브라질의 2025년 확장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쳐 부진한 모습

■ 2026년 브라질의 소매판매는 식음료품, 사무·통신기기 등 필수소비재를 중심으로 전년도 하반기 대비 증가세가 개선되며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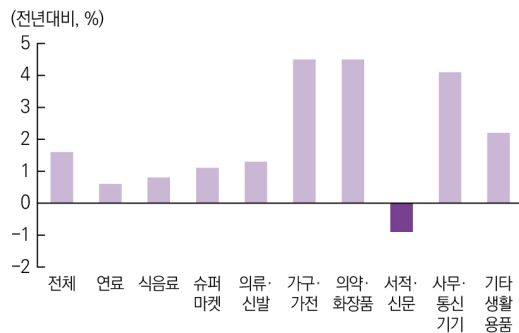
- 식음료품, 사무·통신기기, 슈퍼마켓 등 필수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의류·신발과 서적·신문의 소매판매는 상대적으로 부진

[그림 III-20] 브라질 소매판매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그림 III-21] 브라질 품목별 소매판매 변화



주: 2025년 기준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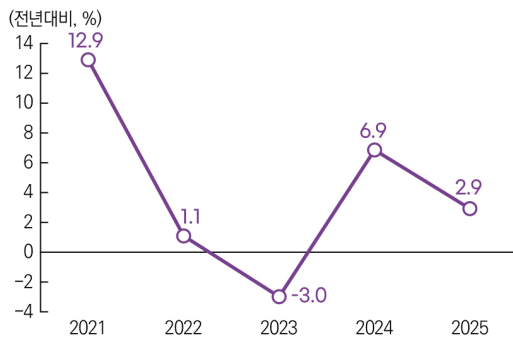
■ 2025년 브라질의 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내수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약화

- 브라질의 총고정자본형성은 2025년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본재 수입 증가, 소프트웨어 개발 확대, 건설투자 증가 등이 주요 요인
 - 다만, 2025년 1분기 총고정자본형성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9.0%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2분기부터 분기별 증가율이 4.1%, 2.3%, -3.1%를 기록하여 투자가 점점 둔화되는 모습
- 2025년 브라질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 금액은 전년대비 18.5% 증가하여, 자원·에너지, 인프라 등과 관련된 해외자본의 투자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 2026년 1분기 브라질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하여 2025년 2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투자 약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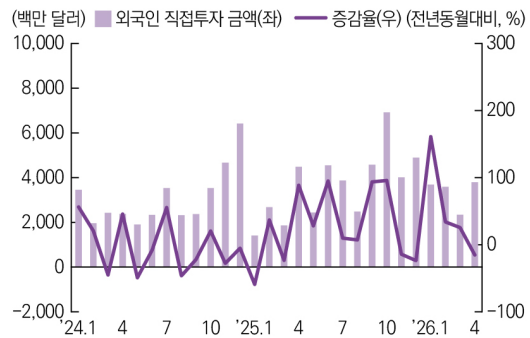
- 향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기반한 금리 인하 여건 조성, 제조업 설비 투자 회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그림 III-22] 브라질 총고정자본형성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그림 III-23]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5.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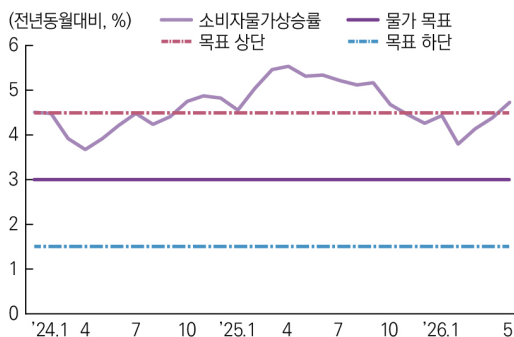
■ 2025년 브라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5.0% 수준으로, 2024년의 연평균 4.4%에 이어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음

- 브라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브라질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인 3.0% 및 목표 상단 4.5%를 상회하는 수준
-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Selic)를 15.0%까지 인상하였으며, 이에 2025년 말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품목별로는 식음료, 주거, 의료, 교통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났으며, 가전, 의복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

■ 2026년 초 브라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말부터 나타난 상승압력 완화의 흐름을 이어갔으나, 2026년 3~4월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 완화와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2026년 3월과 4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26년 3월 -25bp, 4월 -25bp), 브라질의 물가상승률도 다시 높아지고 있음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년 3월) 4.1 → (4월) 4.4 → (5월) 4.7

[그림 III-24] 브라질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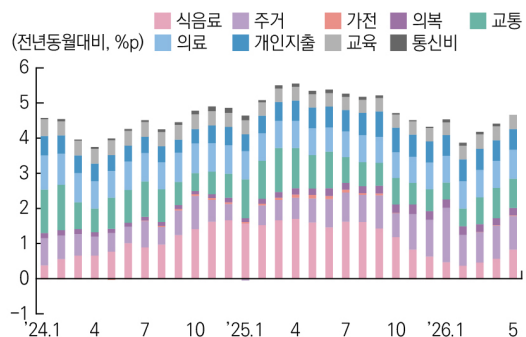


주: 1. 전국 소비자물가지수(IPCA)

2. 점선은 목표 상단 및 하단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브라질지리통계연구소(IBGE)

[그림 III-25] 브라질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6. 고용 및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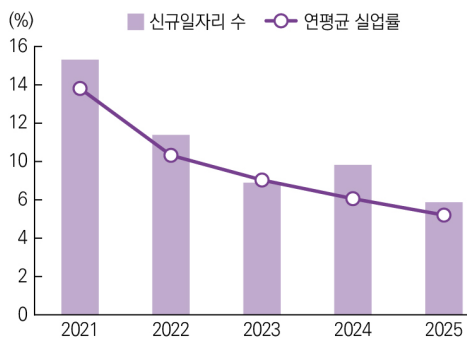
■ 2025년 브라질 노동시장은 고용 증가와 실업률 하락이 함께 나타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평균 실질임금도 전년대비 3.7% 증가하여 개선세를 나타냄

- 브라질의 2025년 연평균 실업률은 6.0%로 2024년 대비 약 1.0%p 감소하였으며, 연간 신규 일자리 수도 126만 개를 기록
 - 브라질의 실업률은 2021년 13.5%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브라질의 고용률도 2024년 58.6%에서 2025년 59.1%로 개선
- 브라질의 2025년 평균 실질임금은 3,589헤알로 2024년의 3,460헤알 대비 3.7% 증가하여, 2022년 이후 실질임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평균 실질임금(헤알): ('20) 3,462 → ('21) 3,229 → ('22) 3,142 → ('23) 3,314 → ('24) 3,460 → ('25) 3,589

■ 2026년 브라질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1분기 기준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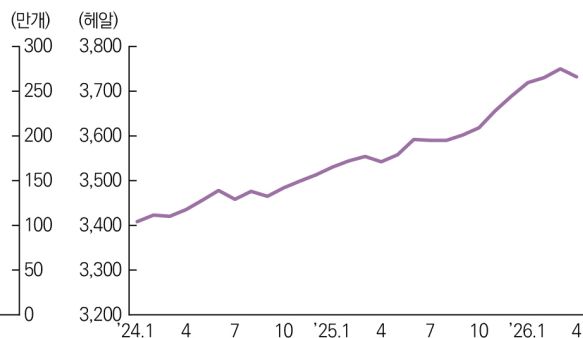
- 브라질의 2026년 1분기 실업률은 5.8%로 직전 분기의 5.3%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의 6.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
- 2026년 1분기 평균 실질임금은 3,733헤알로, 실질임금 상승세 지속
- 참고로, 브라질의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1,621헤알로 2025년의 1,518헤알 대비 6.8% 상승

[그림 III-26] 브라질 연평균 실업률 및 신규 일자리 수



자료: 브라질지리통계연구소(IBGE), 노동고용부(MTE)

[그림 III-27] 브라질 평균 실질임금



주: 2025년 12월 기준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7.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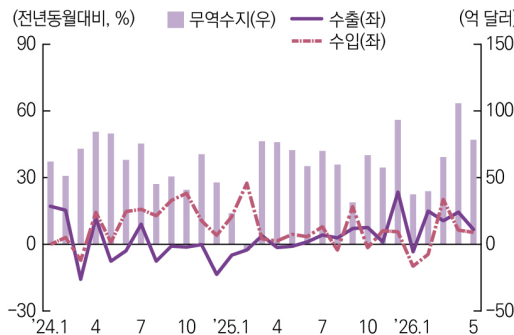
■ 2025년 브라질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수입의 증가세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대비 축소

- 2025년 수출은 3,483억 달러로 전년대비 3.3%, 수입은 2,802억 달러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681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 품목별로는 농축산물과 광물·에너지의 수출 물량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농축산물의 경우 대두와 커피를 중심으로, 광물·에너지는 철광석과 원유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
- 제조업의 경우 소고기·돼지고기 등 가공식품, 화물자동차,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서 확대되었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인접국인 아르헨티나 대상 수출이 크게 증가
- 수출 대상국별로는 중국 대상 수출이 2025년 999억 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EU 및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도 증가한 반면, 미국 대상 수출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

■ 2026년 브라질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하여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1~2월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3월부터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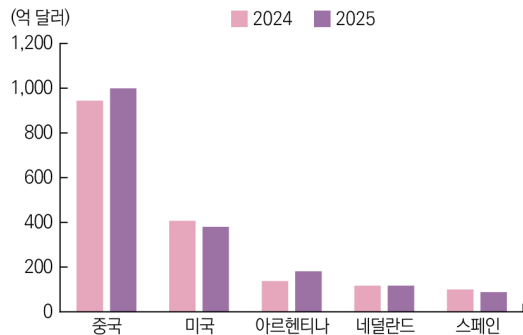
- 2026년 1~5월 브라질의 수출은 1,48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1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그림 III-28] 브라질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그림 III-29] 브라질 수출 상위 5개국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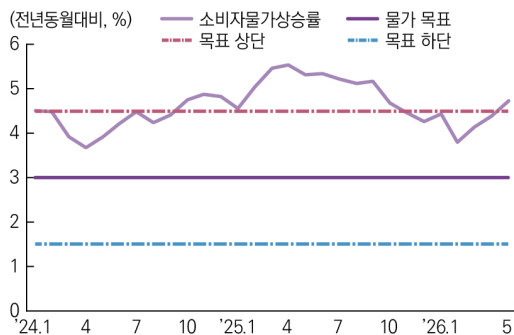
■ 브라질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 브라질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주요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물가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
 - 브라질의 현행 물가목표는 3.0%, 허용범위는 $\pm 1.5\%p$ 수준

■ 2024~2025년 브라질의 통화정책은 고물가와 물가 기대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 기조를 유지

- 2024년 이후 브라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브라질의 물가목표인 3.0%를 상당 수준 초과하였으며, 특히 2025년에는 물가 목표의 상단을 상회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필요성 제기
-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4년 9월부터 '25년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Selic)를 15.0%까지 인상

[그림 III-30] 브라질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물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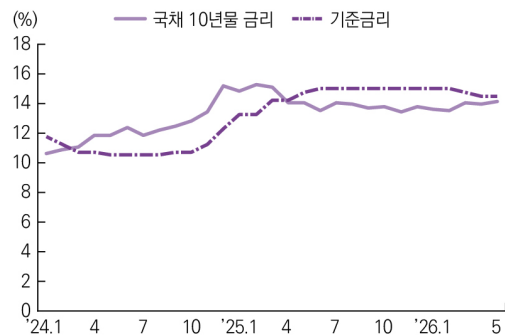


주: 1. 전국 소비자물가지수(IPCA)

2. 점선은 목표 상단 및 하단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브라질지리통계연구소(IBGE)

[그림 III-31] 브라질 기준금리 및 국채 10년물 금리



주: 2025년 12월 기준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 2026년에는 물가상승 완화와 경기 둔화에 따라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한적으로 인하

-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 완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26년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26년 3월 -25bp, 4월 -25bp) 기준금리를 14.5%까지 인하
 - 브라질의 높은 금리 수준이 가계의 소비와 기업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주요 목표로 금리 인하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 유지
 - 실제로 브라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2월까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3월 이후 다시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음
- 향후 브라질의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리의 추가 인하 등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2. 재정정책

■ 브라질의 재정정책은 공공투자 및 사회보장지출 확대 요구와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간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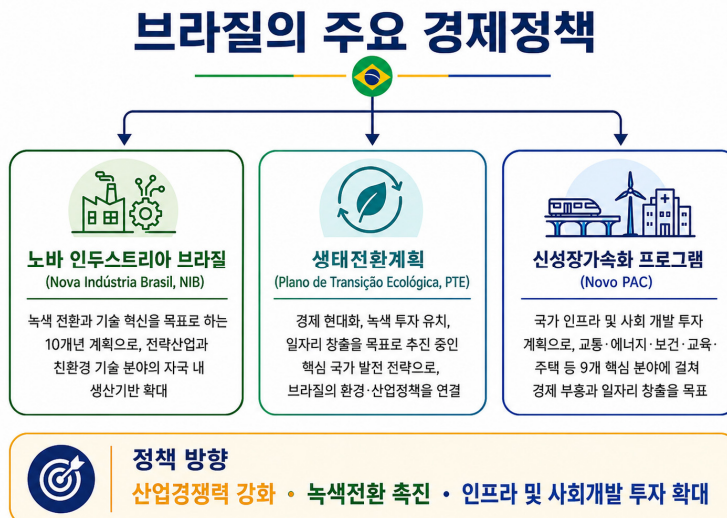
- 브라질 현 정부는 빈곤 완화, 최저임금 인상, 교육·보건 지출 및 사회보장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정책 추진
- 다만, 브라질은 높은 이자비용과 구조적인 지출 증가 압력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이 제한적이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

■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업 고도화 및 산업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을 결합한 경제정책을 추진 중

- 브라질 정부는 2024년 1월 브라질의 국가발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산업 10개년 정책으로 노바 인두스트리아 브라질 정책(Nova Indústria Brasil, NIB) 발표
 - 녹색 전환과 기술 혁신을 목표로 농업, 보건산업, 도시·인프라,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방위·전략기술 등 6대 주요 분야에 미션을 설정하고, 전략산업과 친환경 기술 분야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확대

- 브라질의 생태전환계획(Plano de Transição Ecológica, PTE)은 경제 현대화, 녹색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핵심 국가 발전 전략으로, 브라질의 환경·산업정책을 연결하는 역할
 - 브라질은 수력·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연료, 산림·생물다양성, 농업 생산기반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이를 활용하여 녹색금융, 탄소시장 참여, 지속가능 농업 및 저탄소 산업 확대, 에너지전환, 친환경 투자 유치 확대 등을 추진
 - 브라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저탄소 생산기반을 경쟁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
- 브라질의 신성장가속화 프로그램(Novo PAC)은 2023년 8월 발표한 약 3,47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인프라 및 사회 개발 투자 계획으로, 교통, 에너지, 보건, 교육, 주택 등 9개 핵심 분야에 걸쳐 브라질 전역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 공공재정과 민간투자의 결합을 통해 인프라 투자 확대 도모
 - 브라질 생산성 향상의 주요 제약요인인 도로, 철도, 항만, 도시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극복을 목표로 추진

[그림 III-32] 브라질의 주요 경제정책



■ 브라질은 조세개혁을 통해 세제의 복잡성 완화 및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조세개혁이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브라질의 현행 조세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부과하는 다양한 간접세가 중첩되어 있어 납세비용 및 행정비용이 높고, 공급망 구성의 왜곡을 야기하며, 조세분쟁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존재
- 브라질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소비세(5종) 체계를 연방 수준의 재화 및 용역세와 지자체 수준의 재화 및 용역세라는 이원적 구조로 통합하고, 소비지 부과 원칙 도입 등을 통해 공급망 구성의 왜곡을 방지
 - 2026년 4월 소비세 개혁 시범 운영 및 2027년 이후 단계적 신규 세제 도입

제3절 한-브라질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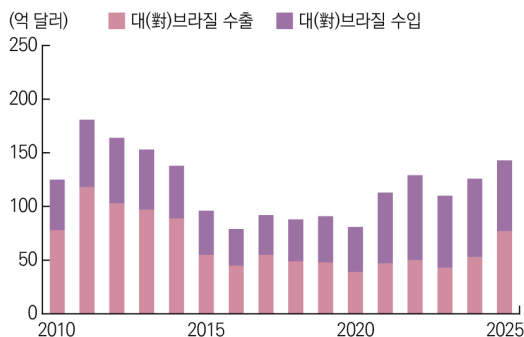
1.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 현황

(1) 교역 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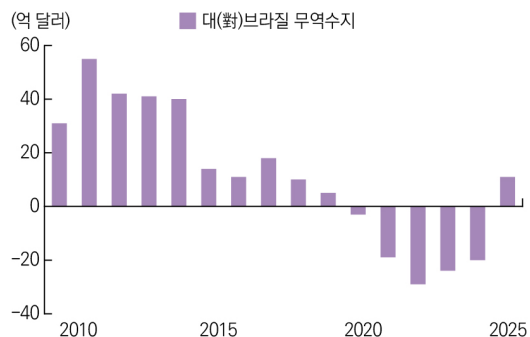
■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주요 교역상대국 중 하나로, 양국 간 교역은 제조업 제품과 원자재·농축산물 교역을 중심으로 형성

-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77억 달러, 수입은 66억 달러로 양국 교역액은 약 143억 달러를 기록
 -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중 19위, 수입 대상국 중 22위이며, 우리나라는 브라질의 수출 대상국 중 13위, 수입 대상국 중 11위에 해당
- 브라질과 우리나라 간 교역 규모는 2010~2014년 평균 152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브라질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도 상당 수준 감소하였고, 2021년 이후 다시 교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무역수지는 2021~2024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수출이 46.8%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

[그림 III-33] 한-브라질 교역 규모



[그림 III-34] 대(對)브라질 무역수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품목별 교역 구조

■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

-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국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완성품 수출뿐만 아니라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시장으로서도 유의미
- 2025년 기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수출이 26.7억 달러로 전체 대브라질 수출의 34.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반도체(13.1%), 자동차부품(7.9%), 철강판(6.9%), 합성수지(4.2%)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

■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수입은 원유, 철광, 식물성물질 등 브라질의 자원 및 농축산물 중심의 구조

- 브라질은 세계적인 철광석·대두·커피·육류 생산국으로, 우리나라는 브라질로부터 이들 품목과 원유 등 원자재·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 원유가 전체 대브라질 수입의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철광(16.7%), 식물성물질(12.2%), 기호식품(9.8%), 육류(6.1%) 등이 주요 수입 품목으로 나타남

[표 III-13] 한·브라질 주요 교역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번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6.7	(34.6)	원유	22.9	(34.7)
2	반도체	10.1	(13.1)	철광	11.0	(16.7)
3	자동차부품	6.1	(7.9)	식물성물질	8.1	(12.2)
4	철강판	5.4	(6.9)	기호식품	6.5	(9.8)
5	합성수지	3.2	(4.2)	육류	4.0	(6.1)
6	원동기및펌프	3.1	(4.1)	원부자재	3.0	(4.6)
7	의약품	2.2	(2.9)	제지원료	2.9	(4.4)
8	의료기기	1.9	(2.5)	곡실류	2.4	(3.7)
9	농약	1.6	(2.0)	기타철강재	1.3	(2.0)
10	항공기및부품	1.0	(1.3)	천연섬유	0.8	(1.1)
	총계	77.1	(100.0)	총계	66.1	(100.0)

주: 202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과 브라질의 투자 현황

(1) 투자 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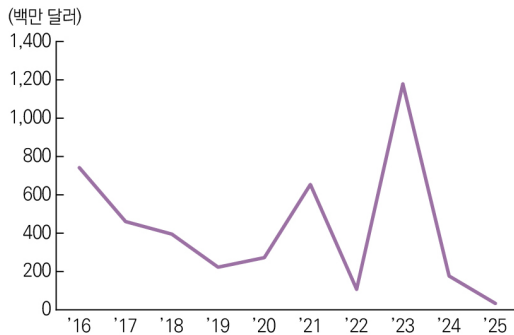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는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 변화는 주요 대기업이나 기존 현지법인의 대규모 투자 집행에 따라 연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최근 10년간 평균 4억 2,400만 달러 수준으로, 2025년의 경우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액이 3,300만 달러에 불과
 - 2023년의 경우 일시적으로 투자액이 11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해당 연도의 신고 건수는 15건, 신규 법인은 1개에 불과하여 신규 진출이 대폭 확대되었다기보다는 기존 진출 기업의 투자 집행에 따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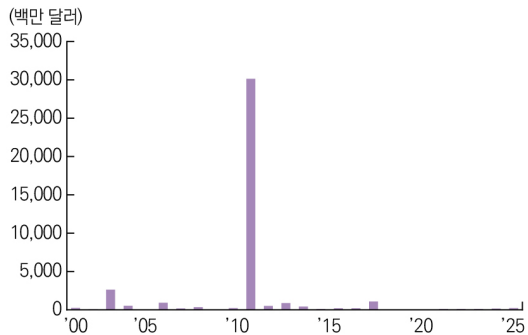
■ 브라질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브라질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평균 19만 달러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연간 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있었던 해는 2010년이 유일

[그림 III-35] 한국의 대(對)브라질 해외직접투자 추이 [그림 III-36] 브라질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산업통상부

(2) 업종별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해외직접투자의 88.5%는 제조업 부분의 투자로,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에서의 투자는 미미한 수준
- 2025년의 경우 제조업 관련 투자액이 600만 달러로 2021~2024년 평균인 4억 7,400만 달러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이에 전체 해외직접투자액도 3,300만 달러에 불과

[표 III-14] 한국의 대(對)브라질 해외직접투자액(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¹⁾ (%)
전체 [전년대비, %]	654 [140.3]	107 [-83.6]	1,178 [998.7]	176 [-85.1]	33 [-81.4]	100.0
제조업	462	90	1,175	167	6	17.8
건설업	1	1	1	2	3	7.7
도매 및 소매업	34	10	-	-	14	42.9
금융 및 보험업	-	-	-	-	3	9.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5	1	3	2	7.4

주: 1) 2025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브라질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크지 않으며 서비스업에 한정

- 2022년 이후 브라질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비스업 부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2만 달러를 기록

[표 III-15] 브라질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¹⁾(업종별)

(천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²⁾ (%)
전체 [전년대비, %]	88 [-]	90 [2.3]	100 [11.1]	144 [44.0]	219 [52.1]	100.0
제조업	88	-	-	-	-	0.0
서비스업	-	90	100	144	219	100.0

주: 1) 신고금액 기준

2) 2025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1절 거시경제 현황

[표 III-16] 러시아 경제 주요 지표(2025년)¹⁾

구 분	내용
인구	1.4억 명
명목 GDP	2조 5,613억 달러
경제성장률	1.0%
1인당 GDP	17,547달러
실업률	2.2%
경상수지	431억 달러
상품수지 ²⁾	1,171억 달러
서비스수지	-486억 달러
수출(통관기준)	4,221억 달러
수입(통관기준)	3,027억 달러
외환보유액 ³⁾	7,549억 달러
R&D 투자(GDP 대비) ⁴⁾	1.0%

주 1) 주요 지표는 국가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국·별 본문의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국제수지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본선 인도) 기준이며, 통관기준 무역통계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기준

3) 2025년 12월말 기준(금 포함)

4)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2024년 기준)

자료: IMF, OECD, Bank of Russia,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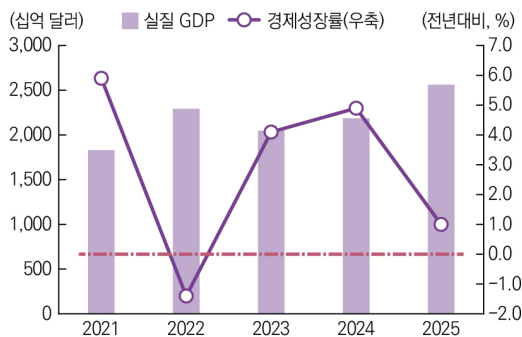
1. 경제성장률

○ 러시아 경제는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 성장세 둔화

■ 2025년 러시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1.0% 성장하는 데 그치며 2023~2024년의 높은 성장세에서 크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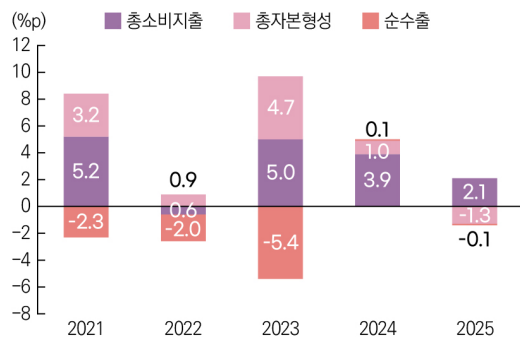
- 러시아는 2023~2024년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재정지출과 군수산업 중심의 생산 확대로 연간 4.1%, 4.9% 성장하였으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교역 제재 지속, 고금리, 노동력 부족, 민간투자 둔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 (경제활동별) 제조업의 경우 공공행정·국방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건설업, 서비스업, 광업은 성장세가 크게 둔화
 - 특히, 광업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성장률이 각각 -0.5%, -1.7%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수출 제약, 제재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지출항목별) 민간소비, 투자 모두 증가율이 전년대비 상당 폭 하락하였으며, 특히 투자와 순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
- 2025년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의 경우 총소비지출, 총자본형성 및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총자본형성과 순수출의 경우 음의 값으로 나타남

[그림 III-37] 러시아 경제성장률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그림 III-38] 러시아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 2026년 1분기 러시아 경제는 건설업, 제조업 및 농림어업 생산 부진이 심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2% 성장을 기록

- 경제 전반의 생산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25년 말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주택시장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
-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년 2Q) 1.0 → (3Q) 0.8 → (4Q) 1.0 → ('26년 1Q) -0.2

[표 III-17] 러시아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4.9	1.0	1.3	1.0	0.8	1.0	-0.2
농림어업	-3.5	2.3	1.5	1.3	1.7	4.5	0.0
광업	-0.5	-1.7	-4.4	-1.3	-0.7	-0.5	0.4
제조업	8.7	3.9	4.3	4.0	3.1	4.3	-1.5
건설업	6.1	1.2	2.8	0.9	1.2	0.8	-9.7
서비스업	6.6	0.9	2.2	1.0	0.5	0.2	0.3
민간소비	6.8	3.6	4.2	3.2	3.1	3.8	-
정부지출	2.2	1.1	1.9	0.9	1.0	0.8	-
총고정자본형성	8.6	-0.4	7.0	0.6	-0.5	-4.2	-
순수출	3.7	-4.0	-	-	-	-	-

주: 러시아 당국의 수출입 관련 일부 통계 미발표에 따라 순수출의 분기별 통계 미기재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 종합하면, 러시아 경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쟁 관련 재정지출과 군수산업 중심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2023~2024년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제재와 수출 여건 악화, 노동력 부족,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2025년부터 성장세가 크게 둔화

- 군수·공공행정 부문 생산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전쟁의 지속 여부 및 민간부문 회복 여부 등이 러시아 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2.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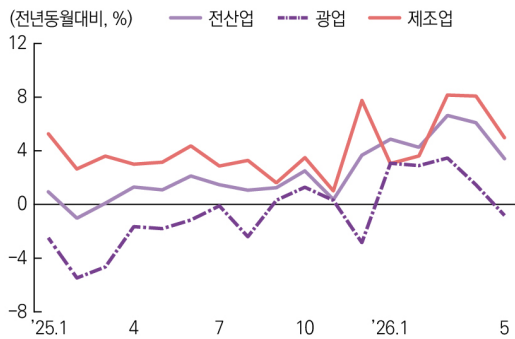
■ 2025년 러시아 산업생산은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광업의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이에 전산업 생산은 2024년에 비하여 증가세가 둔화

- 러시아는 2024년 군수산업과 수입대체 생산 확대로 산업생산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생산능력 제약과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
- 제조업은 여전히 러시아의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하는 핵심 부문이나, 국방, 금속가공, 기계장비, 운송장비 등 정부 수요와 관련 있는 분야에 집중
- 광업의 경우 러시아 수출의 핵심 품목인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이 전쟁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 유럽시장 판매 축소, 가격 인하, 물류경로 재편 등으로 약세를 보이며 산업생산 감소
 -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으로 전환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격조건과 운송비용 측면에서 기존 대비 불리한 구조

■ 2026년 러시아 산업생산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25년 산업생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공공수요의 영향으로 민간 수요 회복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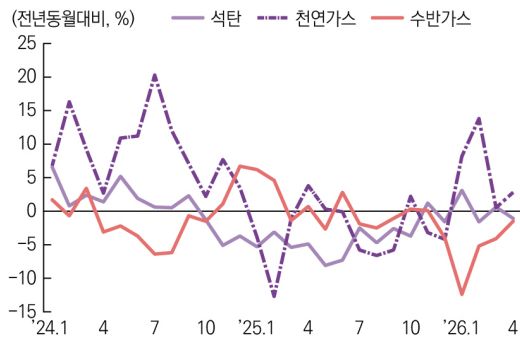
- 향후 러시아 정부의 국방지출 확대 여력, 에너지 수출여건 개선 여부, 민간 수요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러시아 산업생산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

[그림 III-39] 러시아 산업생산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그림 III-40] 러시아 주요 에너지자원 생산 변화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3.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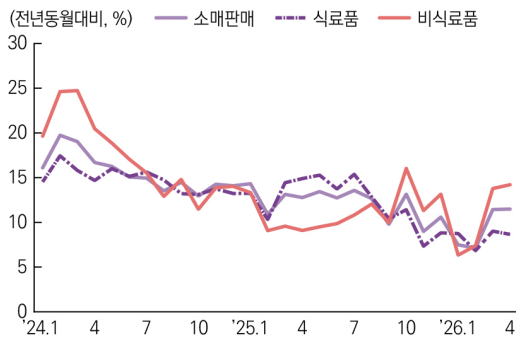
■ 2025년 러시아의 소매판매는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품목별로도 식료품과 비식료품의 소매판매 증가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

- 러시아의 2025년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물가 상승과 소매판매 물량 증가가 모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
 - 러시아의 2025년 명목 소매판매 증가율은 12.1%로 2024년의 증가율인 15.4%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러시아의 2025년 실질 소매판매 증가율은 7.7%로 2024년의 증가율 8.0%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된 모습
- 품목별로는 식료품의 명목 소매판매 증가율이 비식료품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매판매의 경우 비식료품 소매판매의 증가율이 식료품보다 높게 나타남

■ 2026년 러시아의 소매판매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높은 물가와 고금리는 향후 소매판매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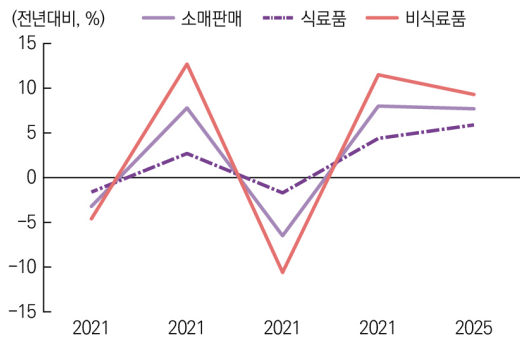
- 러시아의 월별 소매판매를 살펴보면, 2026년 1~2월에 일시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이 7%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3~4월에는 다시 11%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그림 III-41] 러시아 명목소매판매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그림 III-42] 러시아 실질소매판매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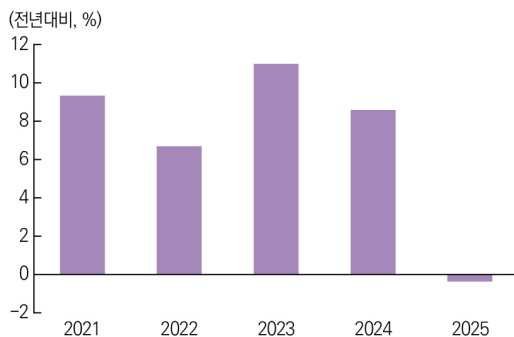
■ 2025년 러시아의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이 전년대비 0.4% 감소하고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율도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약세를 보임

- 2025년 러시아의 실질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대비 0.4% 감소하여 2024년의 증가율 8.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명목 고정자산투자액도 전년대비 6.8% 증가에 그쳐 2024년의 17.3% 대비 상당 수준 둔화
 - 물가 및 투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투자 흐름이 2025년에 들어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
- 러시아의 고정자산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투자가 2025년의 투자 흐름을 상당 수준 지지하였으나, 원유·가스를 중심으로 광업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고 건설업 투자는 전년대비 감소
 - 건설업 외에 물류·교통,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각각 전년대비 25.5%, 10.0%, 19.9% 감소하여 전쟁 장기화, 고금리, 경제 제재로 인한 자본재 및 기술 조달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
 -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쟁 발발 이후 2022~2024년의 기간 동안 투자 회수액이 신규 투자액을 초과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회복세

■ 2026년 1분기에는 러시아의 제조업·광업·건설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투자 부진이 심화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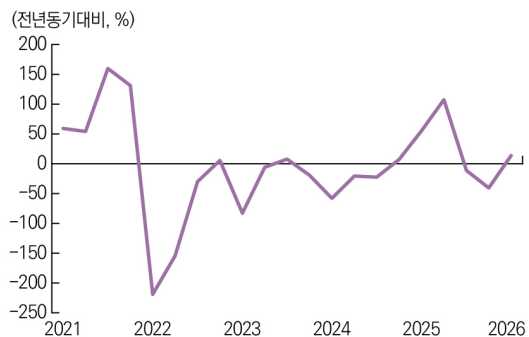
- 러시아의 2026년 1분기 고정자본투자는 전년대비 14.3% 감소

[그림 III-43] 러시아 총고정자본형성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그림 III-44]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

5.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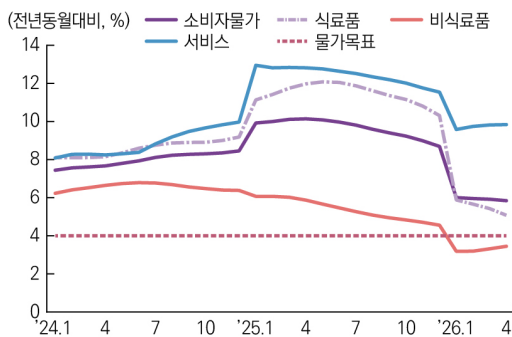
■ 2025년 러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반기 10%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의 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

- 러시아의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전년동월대비 9.9~10.1%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 이후 완만히 둔화되며 2025년 12월에는 8.7%까지 하락
- 주요 품목별로는 식료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료품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비식료품의 경우 고금리 속 소비심리 약화가 수요를 제약한 결과 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의 경우 전쟁 지속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
- 러시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인 4%를 상당 수준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21.0%까지 인상

■ 2026년 러시아의 소비자물가는 식료품의 가격 상승세 완화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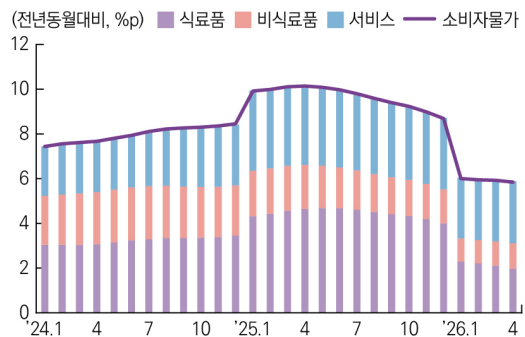
- 식료품의 2026년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9% 이상을 지속

[그림 III-45] 러시아 소비자물가 및 물가 목표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그림 III-46] 러시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6. 고용 및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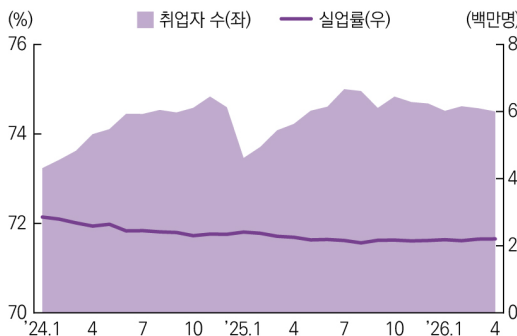
■ 2025년 러시아 노동시장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감소

- 러시아의 실업률은 2025년 1월 2.4%에서 12월 2.2%까지 감소하였으며, 평균 취업자 수도 7,445만명으로 전년도의 7,419만명 대비 증가
- 러시아의 낮은 실업률에 대하여는 전쟁 장기화 등으로 노동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노동수요가 유지된 결과로 해석되나, 노동력 부족이 기업의 생산 확대와 물가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
- 러시아의 평균 임금은 명목 기준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의 상승세는 둔화
 - 명목임금은 전년대비 13.5% 상승하였으나,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4.4% 상승하여 2024년의 상승률 9.1%에 비해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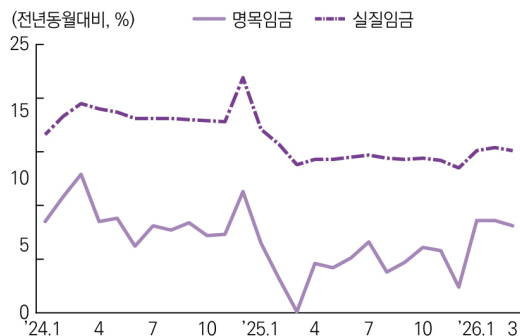
■ 2026년 러시아 노동시장은 고용 측면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 상승세도 확대

- 러시아의 2026년 1~4월 취업자 수는 평균 7,455만 명으로 전년동기보다 68만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평균 2.2%로 전년동기보다 0.1%p 낮은 수준
- 실질임금의 경우 1~3월 모두 전년동월대비 8% 이상 상승하여 구매력 개선

[그림 III-47] 러시아 실업률 및 취업자 수



[그림 III-48] 러시아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7.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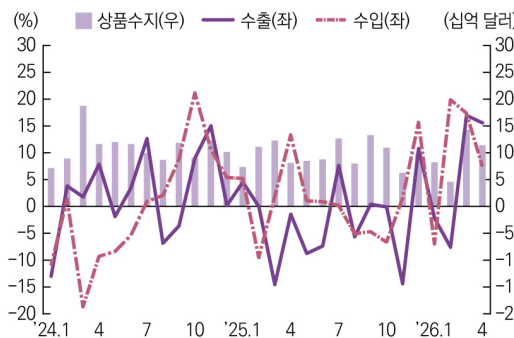
■ 2025년 러시아의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

- 2025년 수출은 4,683억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한 반면, 수입은 3,998억 달러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685억 달러 흑자 기록
- 상품수출은 4,221억 달러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고, 상품수입은 3,050억 달러로 1.1%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는 1,171억 달러 흑자로 2024년의 1,321억 달러 대비 흑자규모 축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수출입 관련 품목별, 국가별 통계 미발표에 따라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에너지 수출 여건의 악화와 수입 회복이 흑자 축소 요인으로 추정
- 2025년 서비스 수출은 463억 달러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수입이 948억 달러로 전년대비 16.4%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도 486억 달러로 전년도의 384억 달러보다 확대
 - 서비스 부문 중 여행서비스 수입이 493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행서비스 수출은 90억 달러에 불과

■ 2026년에는 러시아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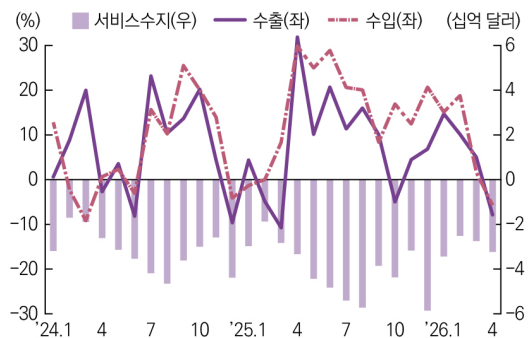
- 다만, 3~4월에는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러시아 수출규모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

[그림 III-49] 러시아 상품 수출입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

[그림 III-50] 러시아 서비스 수출입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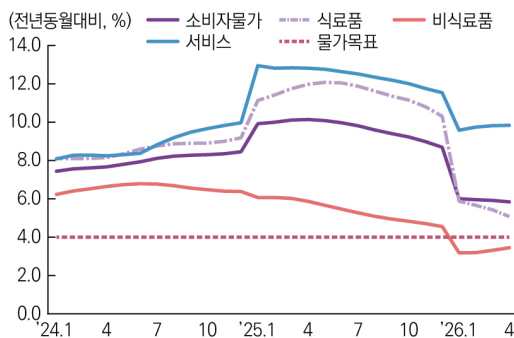
■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및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축적 통화정책을 추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노동력 감소와 임금 상승, 공급망 제약 등은 러시아 경제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 러시아의 물가목표는 4.0%로 설정되어 있으나, 2024~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목표를 상당 수준 상회하는 7~10% 수준을 기록
- 러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023년 6월 7.5%였던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 21.0%까지 인상하고 이를 2025년 5월까지 유지

■ 경제성장 둔화 및 물가상승 압력 완화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 6월 이후 단계적 금리 인하를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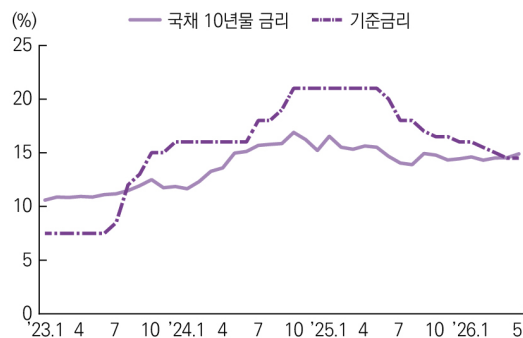
- 러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 완화와 경기 둔화 우려로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
 - 기준금리를 2025년 5월 21.0%에서 2026년 6월 14.25%까지 인하
- 투자 및 소비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전쟁 지속으로 인한 영향이 계속되는 한 금리 인하의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그림 III-51] 러시아 소비자물가 및 물가 목표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그림 III-52] 러시아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

2. 재정정책

■ 러시아의 재정지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군수산업, 공공부문, 전략 산업 지원 등 국방·안보 관련 지출 중심

-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국방·안보 지출의 우선순위가 높으며, 군수산업 및 국방 관련 전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출 요구
- 병력운용비 등 전쟁 관련 지출, 군수산업 지원 관련 지출, 참전 군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 관련 지출 등이 확대되었으며, 지출의 성격상 전쟁이 종료되기 전에는 쉽게 축소하기 어려운 경직성 존재

■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서방의 경제적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수입대체 정책 및 기술주권 확보 정책 중심으로 추진

- 서방의 경제 제재에 따라 반도체, 첨단기계, 항공부품, 자동차부품,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과 자본재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 정책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대응
 - 금속, 화학, 기계 및 일부 소비재 분야 등에서는 정부조달과 보조금,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생산이 유지되거나 확대

■ 러시아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로 인한 교역 제한, 노동공급 감소, 투자 제약 등은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쟁으로 인한 재정부담 지속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도 우려

- 석유·가스 관련 과세가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수출시장 축소,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에너지 관련 재정수입이 제약
- 첨단장비와 핵심부품의 국산화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적 수입은 기술 수준과 품질, 비용 측면에서 한계
- 민간부문과 외국인 투자도 제재와 불확실성으로 제약되고 있으며, 기계·장비,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가 악화될 경우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제약 발생 우려

[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경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경제의 성장구조와 대외거래, 재정·통화정책 운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금융시장 접근, 첨단기술·부품 수입, 에너지 수출, 국제결제 및 물류망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 발생
- 전쟁은 러시아의 재정정책을 국방·안보 지출 중심으로 변화시켰으며, 정부의 전쟁 관련 지출의 확대는 2023~2024년 러시아 성장을 지지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
 - 금속, 화학, 기계, 운송장비 등 군수·전략산업과 공공행정·국방 부문은 재정지출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
 - 다만, 이러한 성장세는 민간투자자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성장이 아닌 정부조달과 전쟁 관련 수요에 의존한 성장이라는 한계
-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 수출입 제한, 투자 제약, 노동공급 제한은 러시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 및 중장기적 성장 제약에 대한 우려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서방 제재의 주요 타임라인]

구분	주요 사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2022년 3~6월	서방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 SWIFT 배제, 수출통제 확대
2022년 12월	G7·EU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2025년 1월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그림자 선단 관련 대규모 제재 강화
2025년 2월	EU의 제16차 대러 제재 패키지 채택
2026년 1월	EU의 러시아산 LNG 및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의 단계적 중단 방침 승인
2026년 4월	EU의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 채택

제3절 한-러시아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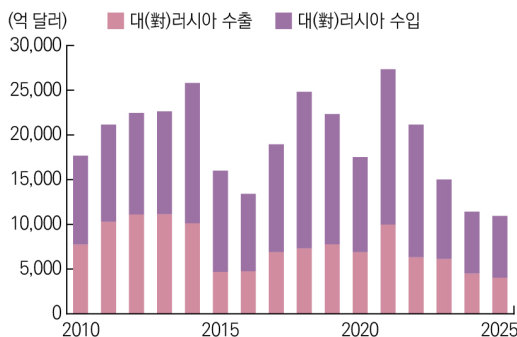
1.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현황

(1) 교역 규모 및 추이

■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 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 제재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크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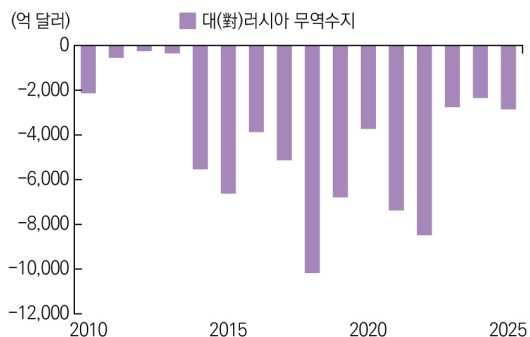
-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40억 달러, 수입은 69억 달러로 양국 교역액은 약 109억 달러를 기록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중 28위, 수입 대상국 중 21위
-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 교역 규모는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 273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5년 109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1년 교역액의 40% 수준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석탄, 알루미늄,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을 상당량 수입하는 것에 기인
 - 전쟁으로 인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2022년 이후 대러시아 무역수지의 적자 폭도 축소

[그림 III-53] 한-러시아 교역 규모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I-54] 대(對)러시아 무역수지



(2) 품목별 교역 구조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자동차, 비누·치약 및 화장품, 의료기기, 합성수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

- 2025년 기준 자동차 수출이 10.4억 달러로 전체 대러시아 수출의 25.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비누·치약 및 화장품(11.0%), 의료기기(7.3%), 합성수지(5.9%), 석유제품(5.2%)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에너지·원자재 중심의 구조

- 러시아는 세계적인 자원·에너지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원자재를 주로 수입
 - 다만, 전쟁 이후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산 원자재 등에 대한 국제적 규제로 인해 수입 규모 축소
- 석탄이 전체 대러시아 수입의 3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알루미늄(19.2%), 천연가스(19.1%), 갑각류(6.2%), 우라늄(4.8%) 등이 주요 수입 품목으로 나타남

[표 III-18] 한·러시아 주요 교역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번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자동차	10.4	(25.8)	석탄	21.7	(31.4)
2	비누·치약 및 화장품	4.4	(11.0)	알루미늄	13.3	(19.2)
3	의료기기	3.0	(7.3)	천연가스	13.2	(19.1)
4	합성수지	2.4	(5.9)	갑각류	4.3	(6.2)
5	석유제품	2.1	(5.2)	우라늄	3.3	(4.8)
6	플라스틱 제품	1.6	(3.8)	목재류	2.7	(4.0)
7	고무제품	1.4	(3.3)	어류	2.5	(3.6)
8	자동차부품	1.2	(2.9)	어육 및 어란	1.7	(2.5)
9	기호식품	1.0	(2.4)	원부자재	1.0	(1.5)
10	해조류	0.8	(2.0)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0.9	(1.3)
	총계	40.4	(100.0)	총계	69.0	(100.0)

주: 202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

(1) 투자 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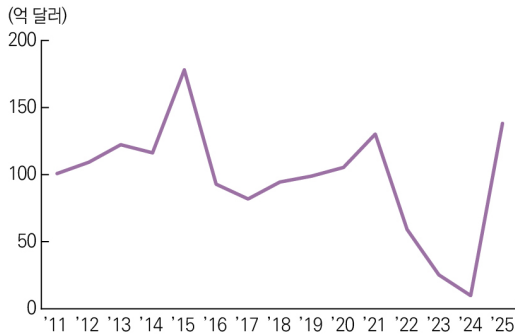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22~2024년 동안 크게 축소되었으나, 2025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는 모습

- 한국의 대(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최근 10년간 평균 8,400만 달러 수준으로, 2025년의 경우 1억 3,800만 달러를 기록
 - 전쟁 발발의 여파로 2022~2024년 간 연간 해외직접투자액이 5,900만 달러, 2,500만 달러, 1,000만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2025년의 경우 전쟁 발발 직전인 2021년의 투자액인 1억 3,000만 달러 수준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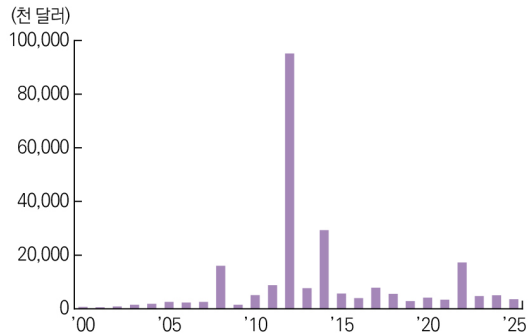
■ 러시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583만 달러 수준을 기록

- 러시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평균 583만 달러 수준으로, 2025년의 경우 357만 달러를 기록

[그림 III-55] 한국의 대(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그림 III-56] 러시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산업통상부

(2) 업종별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

- 2025년 우리나라의 대(對)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의 약 1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
- 최근 5년간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액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III-19] 한국의 대(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액(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¹⁾ (%)
전체	130	59	25	10	138	
[전년대비, %]	[23.6]	[-54.6]	[-57.3]	[-60.9]	[1,303.4]	
농업, 임업 및 어업	4	1	2	2	9	(6.4)
제조업	102	34	17	6	24	(17.0)
건설업	3	16	-	-	101	(73.3)
숙박 및 음식점업	-	-	-	-	1	(0.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	-	-	1	(0.8)

주: 1) 2025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서비스업 중심의 구조

- 2025년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357만 달러로 전년대비 28.7% 감소
-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도소매, 부동산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20] 러시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¹⁾(업종별)

(단위: 천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²⁾ (%)
전체	3,387	17,231	4,759	5,009	3,571	(100.0)
[전년대비, %]	[-18.0]	[408.7]	[-72.4]	[5.3]	[-28.7]	
제조업	739	10,873	195	151	73	(2.0)
서비스업	2,648	6,358	4,564	4,858	3,498	(98.0)

주: 1) 신고금액 기준

2) 2025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1절 거시경제 현황

[표 III-21] 인도 경제 주요 지표(2025년)¹⁾

구 분	내용
인구	14.6억 명
명목 GDP	3조 9,561억 달러
경제성장률 ²⁾	9.1%
1인당 GDP	2,702달러
실업률	3.1%
경상수지	-165억 달러
상품수지 ³⁾	-3,109억 달러
서비스수지	2,096억 달러
수출(통관기준)	4,450억 달러
수입(통관기준)	7,553억 달러
외환보유액 ⁴⁾	6,877억 달러
R&D 투자(GDP 대비) ⁵⁾	0.6%

주 1) 주요 지표는 국가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국가별 본문의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달러 연도(calendar year) 기준, 2025/26 회계연도(fiscal year) 기준은 7.7%

3) 국제수지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본선 인도) 기준이며, 통관기준 무역통계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기준

4) 2025년 12월말 기준(금 포함)

5)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2020/21년 기준)

자료: IMF,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OECD, World Bank

1.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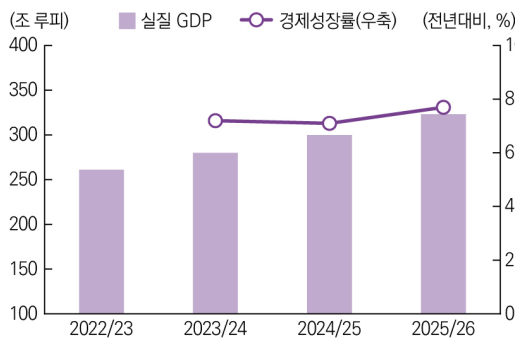
● **인도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

■ 2025/26회계연도 인도경제는 7.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견조한 소비와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을 견인하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
- (지출부문별) 민간소비와 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견인
 - 민간소비는 농촌 및 도시 수요회복에 힘입어 7.7% 증가하였으며, 총고정자본형성도 인프라 투자와 민간 투자 확대에 따라 8.2% 증가
- (산업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건설업도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
 - 2025/26년 산업별 성장률은 제조업(9.3% → 10.7%)과 서비스업(7.9% → 9.3%)이 전년대비 확대되었으며, 건설업(7.3% → 7.4%)도 전년수준의 성장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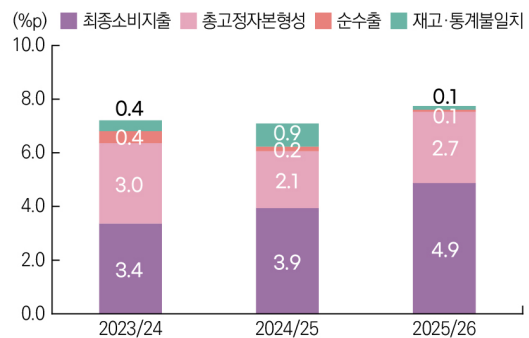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8%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그림 III-57] 인도 경제성장률⁶⁾



주: 2022/23년 기준가격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그림 III-58] 인도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주: 2022/23년 기준가격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6) 인도 GDP 통계는 기준연도 개편(2011/12→2022/23)으로 인해 2022년 이후 시계열 가용

[표 III-22] 인도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²⁾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

	2024/25년	2025/26년	2025년				2026년
	연간 ³⁾	연간 ³⁾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7.1	7.7	7.0	6.8	8.3	8.0	7.8
농 립 어 업	4.2	3.0	3.8	4.4	2.7	1.7	3.6
광 업	11.7	5.2	12.9	4.5	6.1	4.7	5.4
제 조 업	9.3	10.7	11.8	10.4	12.7	12.8	7.3
건 설 업	7.3	7.4	8.0	5.3	8.9	6.7	8.4
서 비 스 업	7.9	9.3	6.8	8.0	9.2	9.9	9.9
민 간 소 비	5.8	7.7	5.6	8.7	7.2	8.2	7.1
정 부 지 출	6.5	5.5	3.6	5.8	6.6	4.6	4.9
총 고 정 자 본 형 성	6.4	8.2	6.2	4.9	8.4	8.2	10.8
수 출	6.6	6.3	5.4	6.6	9.7	5.8	3.7
수 입	5.3	5.6	5.5	7.0	6.0	7.2	1.9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2) 2022/23년 기준가격

3) 연간자료는 회계 연도(fiscal year) 기준으로 2024/25년은 2024년 4월~2025년 3월을 나타냄

4) 분기별 자료는 달력 연도(calendar year) 기준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높은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는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과 지속적인 구조 개혁 노력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나, 견조한 소비와 투자,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
 -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
 - 물가상승률은 인도중앙은행(RBI)의 목표 범위(2~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수출 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도 성장세를 뒷받침
 -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 PLI 등)은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
- 다만, 대외 불확실성과 일부 내수지표 둔화는 향후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재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어 수출과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
 - 최근 소비심리와 노동시장 개선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향후 내수 회복세가 완만해질 가능성

2. 산업생산

■ 2025년(달력 연도 기준) 제조업 총부가가치(GVA)는 전년대비 7.1%, 서비스업은 12.0% 증가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제조업)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내수 및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확대
 - 인도 정부는 최근 'Make in India 2.0'과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⁸⁾를 통해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해외투자 유치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
- (서비스업) 도소매·숙박·운수·통신업과 금융·부동산·전문서비스업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서비스 부문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2026년 1분기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7.3%, 9.9% 증가하는 등 생산 확대 추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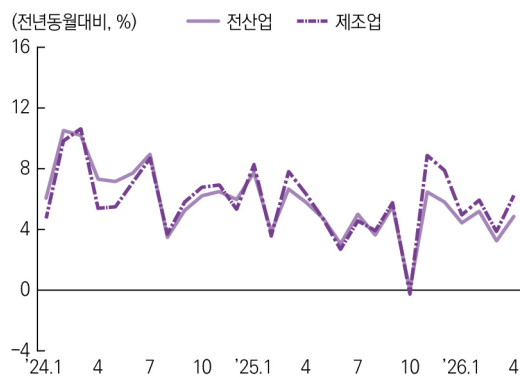
- 산업생산지수(IIP)도 제조업 생산 호조에 힘입어 4~5% 대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⁹⁾

[표 III-23] 인도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VA)

	(전년동기대비, %)		
	2024년 연간	2025년 연간	2026년 1Q
광업(2.1%)	7.4	7.7	5.4
제조업(16.1%)	9.6	7.1	7.3
서비스업(52.5%)	7.9	12.0	9.9
도소매숙박운수통신	8.6	8.5	12.5
금융·부동산·전문서비스	7.8	9.4	10.4
공공행정·국방·가정서비스	10.0	10.0	5.8

주: 1. 달력 연도(calendar year) 기준
 2. () 안은 전산업 대비 각 산업의 비중(%)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그림 III-59] 인도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7) 해외 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인도에 유치하고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8)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는 인도 정부가 2020년부터 도입한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출 증가분 등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9) 2025년 10월에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3%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

3.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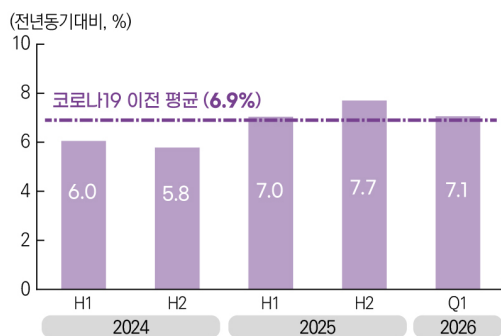
■ 2025년(달러 연도 기준) 인도의 민간소비지출은 전년대비 7.4%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임

- 최근 민간소비지출은 코로나19 이전 평균 수준(2016~2019, 6.9%)을 상회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안정적인 물가와 양호한 고용여건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된 가운데, 직접세 및 상품·서비스세(GST) 개편 등 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소비 회복은 GST 세율 합리화와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¹⁰⁾

■ 2026년 1분기 민간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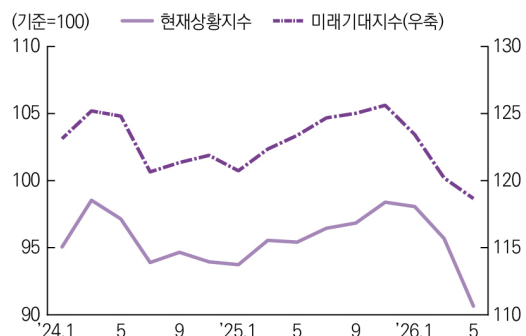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비심리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음.
 - 인도의 소비자신뢰지수(CSI)는 현재 경기여건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인식¹¹⁾이 우세하나(기준치 100 하회), 향후 경기 및 소득 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100 상회)을 유지

[그림 Ⅲ-60] 인도 민간소비지출



주: 달러 연도(calendar year) 기준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그림 Ⅲ-61] 인도 소비자신뢰지수



[참고] 인도의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개편¹²⁾

- 인도 정부는 2025년 9월 제56차 GST Council 회의에서 GST 도입(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인 「차세대 GST 개혁(Next-Generation GST Reforms)」을 발표
 - 동 개혁은 세율체계 단순화, 소비 진작, 기업의 납세 편의성 제고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며,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
- 인도 정부는 상품·서비스세(GST) 세제 개편을 통해 필수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치·유해재(sin goods)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내수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추진
 - (세율체계 단순화) 기존 4단계 세율 구조(5%, 12%, 18%, 28%)를 2단계(5%, 18%)로 단순화
 - 단, 담배, 판 마살라(Pan Masala), 탄산음료, 고급 승용차, 요트 등 사치·유해재(sin goods)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을 적용
 - (생활필수품 및 소비재) 생활필수품(비누, 치약, 인도 전통 빵 등)에 대한 GST를 5%(혹은 면세)로 인하하여 가계의 세부담을 완화
 - (농업) 농기계 및 관개설비에 대한 상품·서비스세(GST)를 12%에서 5%로 인하하여 농업부문의 생산비를 절감
 - (의료) 필수 의약품에 대한 상품·서비스세(GST)를 기존 5~12%에서 면세 혹은 5%로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GST를 면제하여 의료 보장성을 제고

[인도 정부의 주요 GST 세율 조정]

품목 및 대상	기존	개편
생활필수품 및 소비재	12%	5%
소형차·에어컨·TV 등 내구소비재	28%	18%
사치·유해재	28%	40%
생활필수품(비누, 치약, 빵 등)	5~18%	면세 혹은 5%
농기계·장비, 농업용 관개 설비	12%	5%
의약품	5~12%	면세 혹은 5%
건강보험·생명보험	18%	면세

자료: GST Council

- 인도 정부는 이번 GST 개혁을 통해 ① 생활비 부담 완화, ② 민간소비 확대, ③ 제조업 경쟁력 강화, ④ 기업 경영여건 개선(Ease of Doing Business)을 도모
 - 세율 인하에 따른 소비 확대와 세원 확충이 다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12)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2025), "GST Reforms 2025: Relief for Common Man, Boost for Business: Relief, Simplification, and Growth for All."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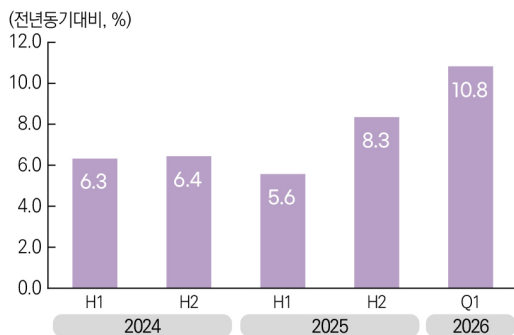
■ 인도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회복에 힘입어 투자 증가세가 확대

- 2025년 인도의 총고정자본형성은 공공 및 민간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7.0% 증가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는 10.8%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인도 정부는 도로·철도·디지털 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민관협력사업 활성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기반을 확충하며 인프라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
- 중앙정부 자본지출은 2022/23 회계연도 5.92조 루피에서 2025/26 회계연도 예산 기준 11.21조 루피로 확대되었으며, 인프라 중심의 공공투자는 민간투자 유인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민간투자와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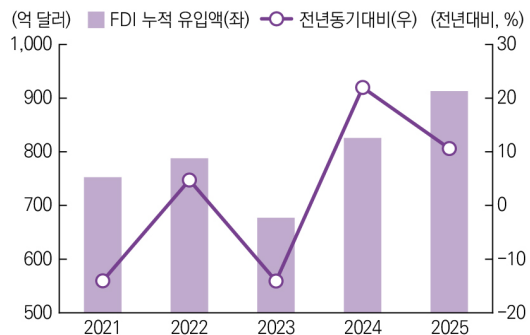
-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913억 달러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2026년 1~4월 누적유입액은 3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7% 증가

[그림 III-62] 인도 총고정자본형성



주: 달력 연도(calendar year) 기준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그림 III-63] 인도 FDI 유입액 및 증감률



자료: 인도 산업무역총국(DPIIT)

5.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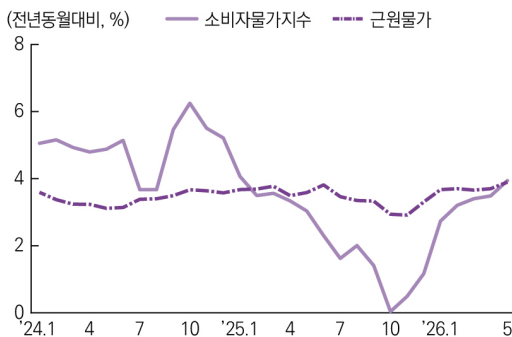
■ 2025년(달러 연도 기준)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2.4%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양호한 농업 여건, 정부의 식품가격 안정화 정책 등에 힘입어 식료품 물가가 큰 폭으로 안정됨
 - 인도 정부는 식품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 농산물을 방출하고, 주요 농산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한편 수출입 조정 등 공급 안정화 조치를 통해 식품 물가안정을 도모
-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귀금속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

■ 2026년 들어 인도의 소비자물가는 3%를 상회하며 다소 상승하였으나, 인도중앙은행(RBI)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2~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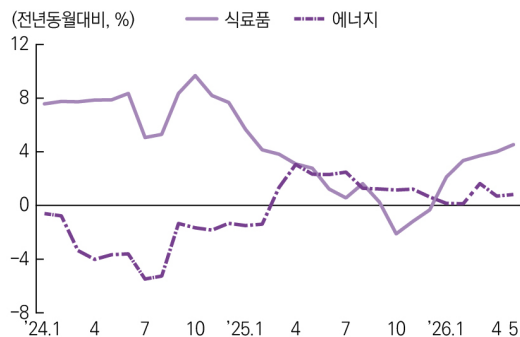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기상 불확실성에 따른 농산물 공급 차질 등 공급 측 요인에 주로 기인함
 - (품목별) 5월중 식음료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5%, 외식·숙박서비스는 5.7% 상승하는 등 식품 및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
 - 한편,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5월중 3.9%를 기록

[그림 III-64] 인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그림 III-65] 인도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6.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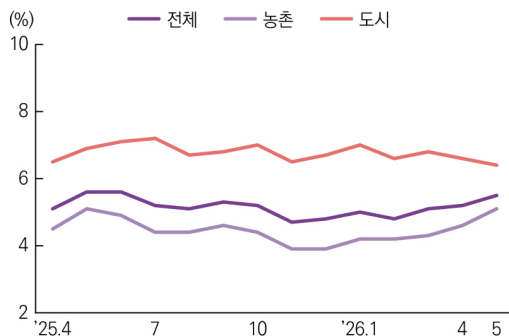
■ 2025년 중 인도 노동시장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전체 경제활동참가율¹³⁾은 2025년 하반기 중 56% 내외까지 상승하였으며, 실업률¹⁴⁾은 2025년 11월 4.7%까지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 여건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냄
- 특히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증가가 노동시장 개선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¹⁵⁾

■ 한편 2026년 들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소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다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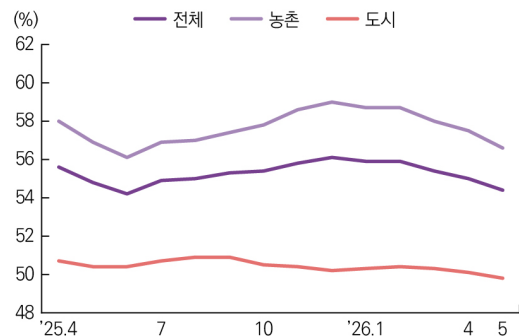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은 2025년 12월 56.1%에서 2026년 5월 54.4%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다소 둔화됨
- 같은 기간 실업률은 4.8%에서 5.5%로 상승하였으며, 농촌 실업률이 3.9%에서 5.1%로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 개선세가 일부 악화되는 모습
- 다만,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아니어서, 노동시장이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기보다는 2025년의 양호한 흐름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¹⁶⁾

[그림 III-66] 인도 실업률



주: 2025년 4월부터 월별 자료 제공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그림 III-67] 인도 경제활동참가율



주: 1 15세 이상
2. 2025년 4월부터 월별 자료 제공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13)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14) 정기 노동력조사(Periodic Labour Force Survey, PLFS)

15) Ministry of Finance(2026), "Economic Survey 2025-2026"

16) MOSPI, "Periodic Labour Force Survey (PLFS) Monthly Bulletin May 2026"

7. 수출입

■ 2025년 인도의 수출은 전자제품과 엔지니어링 제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수입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

- (품목별) 엔지니어링제품(2.4%), 전자제품(36.7%)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17.9%) 수출은 감소
- (지역별)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0.9% 증가에 그친 반면, 대중 수출은 36.6% 증가하는 등 수출 흐름이 차별화
- 수입은 석유제품(-5.5%) 수입 감소에도, 전자제품(17.1%)과 기계류(14.2%)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3,103억 달러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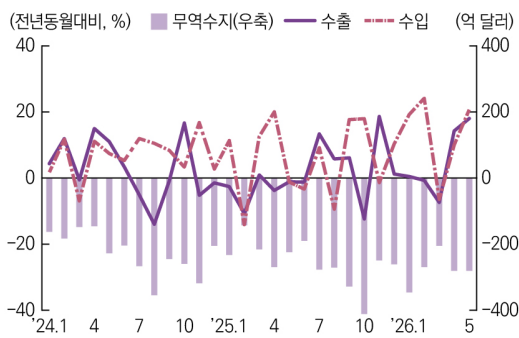
■ 2026년 1~5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2,00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이 12.9% 증가한 3,39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1,390억 달러로 확대

- (품목별) 엔지니어링 제품(11.3%)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부진했던 석유제품(14.1%)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
- 전자제품(26.8%), 금(108.7%)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

■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도의 서비스 수출이 인도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

- 2025년 서비스 수출은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2026년 1~5월에도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지속
- 글로벌 상품교역이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수출은 인도의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

[그림 III-68] 인도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인도 상공부(MCI)

[표 III-24] 인도 주요 품목별 수출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5월
엔지니어링제품	10.1	2.4	11.3
석유제품	-18.6	-17.9	14.1
전자제품	28.3	36.7	11.0
의약품	8.3	9.2	-3.0
유기·무기 화학제품	10.1	-5.6	4.6
귀금속	-10.5	-0.5	-11.0

자료: 인도 상공부(MCI)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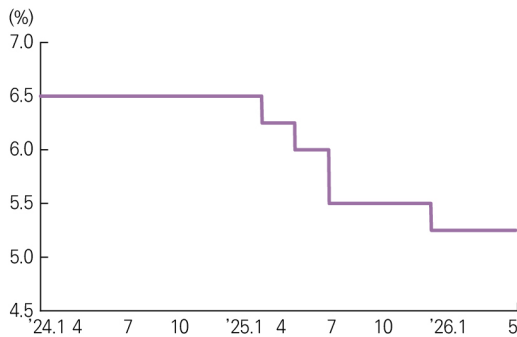
■ 2025년 중 인도중앙은행(RBI)은 물가상승률 둔화와 경기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

-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RBI는 기준금리를 총 125bp 인하(6.50% → 5.25%)하며 경기회복과 투자확대를 지원
-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국채 매입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을 뒷받침
- 이후 RBI는 인플레이션 재확대 가능성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accommodative)에서 중립적(neutral)으로 전환

■ 2026년 들어서는 공급측 인플레이션 위험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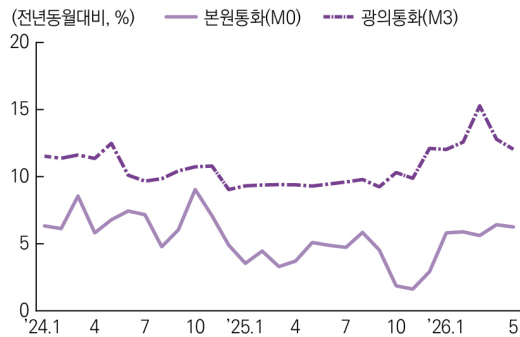
- 최근 소비자물가는 중앙은행의 목표범위(2~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식품가격 상승 등이 향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이에 따라 RBI는 2026년 들어 기준금리를 5.25%로 동결하고 관망기조를 유지하는 등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여 물가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III-69] 인도 기준금리



자료: 인도중앙은행(RBI)

[그림 III-70] 인도 본원통화 및 광의통화 증가율



자료: 인도중앙은행(RBI)

2. 재정정책

■ 인도 정부는 2025년 중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내수와 투자를 지원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성장친화적인 재정정책을 운용¹⁷⁾
- 개인소득세 구조 개편¹⁸⁾과 GST 세율 합리화 등을 통해 가계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자본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내수 회복을 지원¹⁹⁾
 - 생활필수품과 일부 소비재에 대한 GST 세율 인하 및 합리화를 통해 가계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소비 회복을 지원
 - 중앙정부 자본지출은 2021/22회계연도 5.92조 루피에서 2025/26회계연도 예산 기준 11.21조 루피로 확대²⁰⁾되었으며, 도로·철도·디지털 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인
- 「Make in India 2.0」, 생산연계인센티브(PLI),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한편, 2026년 들어서는 재정건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

- 정부는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프라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본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
- 특별자본투자지원제도(SASCI)²¹⁾를 통해 주정부의 자본지출 확대를 지원하고,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기반을 확충
- 이에 따라 2026/27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 대비 4.4% 수준으로 관리²²⁾하는 가운데, 공공투자를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과 생산기반 확충을 지속 추진

17) Ministry of Finance(2026), "Economic Survey 2025-2026"

18) Ministry of Finance(2026), "Budget 2026-2027"

19) Ministry of Finance(2026), "Expenditure Budget 2026-2027"

20) Ministry of Finance(2026), "Budget at a Glance 2026-2027"

21) 특별자본투자지원제도(Scheme for Special Assistance to States for Capital Investment, SASCI)는 중앙정부가 주정부에 50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여 자본지출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22) Ministry of Finance(2026), "Statements of Fiscal Policy as required under the 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Act, 2023"

제3절 한-인도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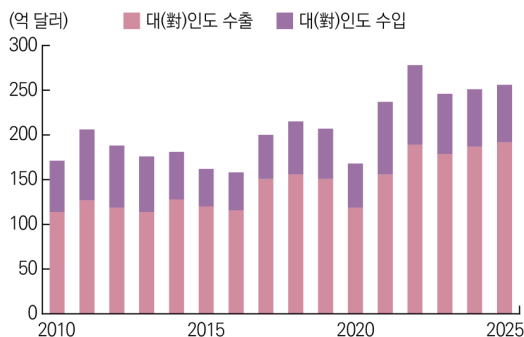
1. 한국과 인도의 교역 현황

(1) 교역 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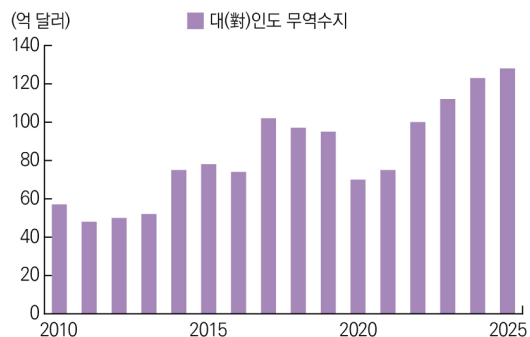
■ 인도는 우리나라의 주요 신흥시장으로서 양국 간 교역은 제조업 중심의 상호보완적 구조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확대

- 2010년 한·인도 CEPA²³⁾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5년 기준 256억 달러를 기록
 - 대인도 수출 192억 달러, 수입 64억 달러로, 대인도 무역수지는 128억 달러 흑자를 기록
- 한국은 인도에 반도체·철강·자동차부품 등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고, 인도로부터 석유제품·알루미늄·의약품 등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상호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형성
- 최근에는 인도의 고성장과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강화에 힘입어 반도체·전기차·배터리·조선·방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산업협력과 교역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III-71] 한-인도 교역 규모



[그림 III-72] 대(對)인도 무역수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23)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한국과 인도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경제동반자협정

(2) 품목별 교역 구조

■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반도체·철강판·합성수지 등 중간재 중심의 구조

- (품목별) 반도체가 32.5억 달러로 전체 대인도 수출의 16.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철강판(11.5%), 합성수지(8.1%), 석유제품(5.4%), 자동차 부품(4.4%) 등이 뒤를 이음
 - 특히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된 중간재 중심의 공급망형 무역구조가 정착

■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입은 석유제품, 알루미늄, 의약품 등 원자재 및 중간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

- (품목별) 석유제품이 전체 대인도 수입의 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알루미늄(9.1%), 의약품(8.7%), 원부자재(4.6%) 등의 수입도 확대되고 있음

[표 III-25] 한·인도 주요 교역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번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반도체	32.5	(16.9)	석유제품	13.0	(20.3)
2	철강판	22.0	(11.5)	알루미늄	5.8	(9.1)
3	합성수지	15.5	(8.1)	의약품	5.6	(8.7)
4	석유제품	10.5	(5.4)	원부자재	3.0	(4.6)
5	자동차부품	8.4	(4.4)	연제품	2.9	(4.6)
6	아연제품	5.3	(2.7)	정밀화학원료	2.2	(3.5)
7	계측제어분석기	5.1	(2.7)	자동차부품	2.0	(3.2)
8	기타석유화학제품	4.6	(2.4)	농약	1.9	(3.0)
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3	(2.2)	동제품	1.7	(2.7)
10	기초유분	4.0	(2.1)	식물성물질	1.7	(2.7)
	총계	192.3	(100.0)	총계	6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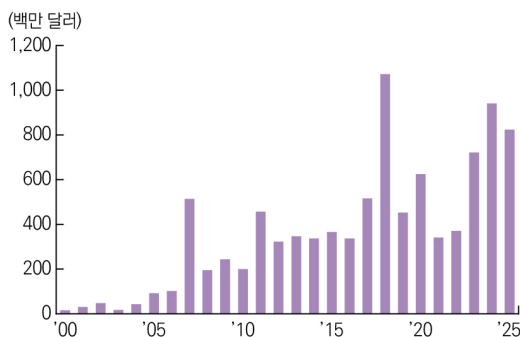
주: 202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과 인도의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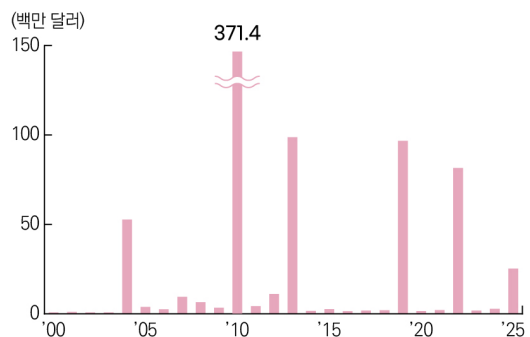
(1) 투자 규모 및 추이

-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해외직접투자는 한·인도 CEPA 체결을 계기로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공급망 재편과 인도 내수시장 성장에 힘입어 증가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2010년 2억 4,400만 달러에서 2018년 10억 7,2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1~2022년에는 3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
 - 이후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과 제조업 육성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투자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2025년에는 8억 2,400만 달러로 증가
- 인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의 대인도 투자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며, 특정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인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한·인도 CEPA 발효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특정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²⁴⁾가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3억 7,144만 달러까지 급증하였음
 - 다만 이후에는 특정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큰 폭의 증감을 보이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I-73] 한국의 대(對)인도 해외직접투자 추이 [그림 III-74] 인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2010년 투자액 급증에 따른 가독성 제고를 위해 Y축을 절단하여 표시
자료: 산업통상부

24) 2010년 인도의 마힌드라(Mahindra) 그룹이 법정관리 중이던 쌍용자동차의 지분을 70%(인수대금 5,225억 원) 인수

(2) 업종별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보험업도 높은 비중을 차지

- 2025년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해외직접투자는 8억 2,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4%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 평균을 상회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 (업종별) 자동차·전자·철강 등 제조업이 전체 대인도 투자액의 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도 25.1%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업 투자 비중도 높은 수준

[표 III-26] 한국의 대(對)인도 해외직접투자액(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¹⁾ (%)
전체	341	370	722	941	824	
[전년대비, %]	[-45.5]	[8.6]	[94.9]	[30.4]	[-12.4]	
제조업	192	206	215	359	476	(57.7)
도매 및 소매업	53	84	9	51	46	(5.6)
운수 및 창고업	0	0	1	4	32	(3.9)
금융 및 보험업	8	44	446	506	207	(25.1)
정보통신업	60	30	38	3	33	(4.0)

주: 1) 2025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인도의 대(對)한국 직접투자(FDI)는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

- 2025년 인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2,512만 달러로 전년대비 853.1% 증가하였으나 절대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
- (업종별) 2025년 기준 제조업이 전체 대한국 투자액의 89.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10.4%를 차지

[표 III-27] 인도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¹⁾(업종별)

(단위: 천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²⁾ (%)
전체	2,022	81,466	1,657	2,636	25,125	(100.0)
[전년대비, %]	[41.1]	[3,929.0]	[-98.0]	[59.1]	[853.1]	
제조업	0	30,384	0	106	22,500	(89.6)
서비스업	1,579	51,082	1,657	2,530	2,625	(10.4)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443	0	0	0	0	(0.0)

주: 1) 신고금액 기준

2) 2025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1절 거시경제 현황

[표 III-28] 베트남 경제 주요 지표(2025년)¹⁾

구 분	내용
인구	1.0억 명
명목 GDP	5,147억 달러
경제성장률	8.0%
1인당 GDP	5,066달러
실업률	2.2%
경상수지	331억 달러
상품수지 ²⁾	419억 달러
서비스수지	-102억 달러
수출(통관기준)	4,729억 달러
수입(통관기준)	4,538억 달러
외환보유액 ³⁾	869억 달러
R&D 투자(GDP 대비) ⁴⁾	0.4%

주 1) 주요 지표는 국가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IMF,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국가별 본문의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국제수지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본선 인도) 기준이며, 통관기준 무역통계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기준

3) 2025년 12월말 기준(금 포함)

4)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2023년 기준)

자료: IMF, OECD,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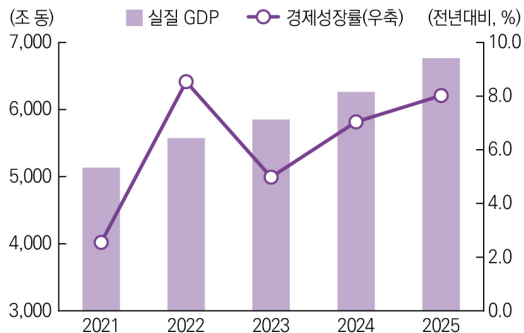
1. 경제성장률

● 베트남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

■ 2025년 베트남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호조에 힘입어 8.0%로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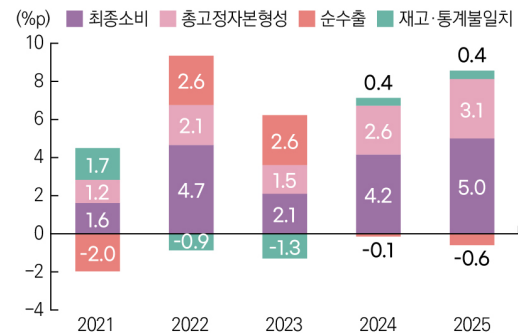
- 2025년 경제성장률은 2022년(8.1%)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
- (경제활동별)²⁵⁾ 제조업(10.0%)과 건설업(9.6%)이 높은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서비스업도 8.6% 성장하며 경제성장을 견인
 - 농림어업은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²⁶⁾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3.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지출항목별) 소비는 전년대비 8.0%, 투자는 8.7% 증가하였으며, 재화 및 서비스 수출도 16.3% 증가하는 등 내수와 대외부문이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

[그림 III-75] 베트남 경제성장률



주: 2020년 가격 기준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그림 III-76] 베트남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주: 2020년 가격 기준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25) 2025년 베트남 경제는 서비스업(42.75%)과 산업·건설업(37.65%)이 전체 GDP의 약 80%를 차지하는 구조를 보였으며, 농림수산업은 11.64%, 순제품세는 7.96%를 차지

26) 베트남 정부는 2025년 연이은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이 전년대비 15.0% 증가한 102조 6,653억 동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함. 벼 38만 6,600ha와 기타 작물 17만 4,000ha가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가금류 750만 마리가 폐사하고 주택 34만 200채가 붕괴·유실 또는 파손되는 등 농업과 주거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

자료: National Statistics Office(2026), "Social-Economic Situation in the Fourth Quarter and 2025"

[표 III-29] 베트남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 내 총 생 산 (G D P)	7.0	8.0	7.0	8.2	8.3	8.5	7.8
농 립 어 업	3.6	3.8	3.8	4.0	3.7	3.7	3.6
광 업	-7.5	0.4	-6.1	-2.4	6.8	4.8	5.4
제 조 업	9.6	10.0	9.3	10.2	9.6	10.6	9.7
건 설 업	7.6	9.6	9.3	10.9	9.2	9.2	8.4
서 비 스 업	7.4	8.6	7.8	9.0	8.7	8.8	8.2
최 종 소 비	6.6	8.0	7.5	8.0	8.1	8.0	8.5
총 고 정 자 본 형 성	7.2	8.7	7.2	8.0	8.5	8.7	7.2
수 출	16.3	16.3	9.7	14.2	15.5	16.3	19.9
수 입	19.2	17.1	12.5	16.0	16.8	17.1	24.3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2026년 1분기에도 7.8% 성장하는 등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경제활동별) 제조업(9.7%)과 서비스업(8.2%)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광업(5.4%)과 건설업(8.4%)도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냄
- (지출항목별) 소비(8.5%), 투자(7.2%)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출이 19.9%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

■ 베트남 경제는 산업 전반의 호조와 견조한 내수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산업 고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

- 다만, 빠른 신용증가와 부동산·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구조는 중장기적인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²⁷⁾
-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첨단 제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27) IMF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신용 확대가 최근 베트남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빠른 신용증가세가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기존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자료: IMF(2025), "Staff Report for the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2. 산업생산

■ 2025년 베트남 산업생산지수(IIP)는 전년대비 9.2% 증가하면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대비 10.5% 성장하여 전체 산업생산 증가에 8.4%p 기여하며 산업생산 확대를 주도
 - 제조업 내에서는 자동차 제조업(22.0%), 금속 제조업(15.4%), 의류 제조업(13.2%)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컴퓨터·전자·광학제품 제조업도 8.3% 증가
 - 이밖에 발전·송배전업은 6.7% 성장하여 전체 산업생산에 0.6%p 기여하였으며, 상수도·폐기물 처리업(7.8%)과 광업(0.5%)도 각각 0.1%p씩 기여

■ 2026년 1~5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하여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업종별) 제조업이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해 전체 성장률에 7.4%p를 기여했고 광업이 5.5% 증가해 0.9%p 기여, 발전·송배전업은 7.6% 증가해 0.7%p 기여
- 이와 같은 산업생산 호조는 수출 증가와 제조업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제조업이 성장을 견인한 데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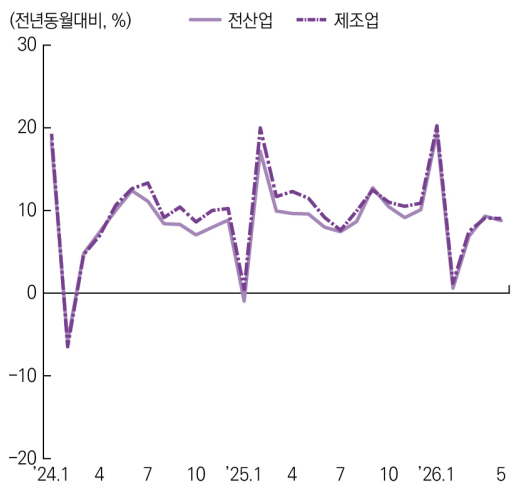
[표 III-30] 베트남 업종별 산업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5월
전산업	8.4	9.2	9.1
광업	-6.5	0.5	5.5
제조업	9.6	10.5	9.5
식품가공	7.4	11.0	11.2
의류	11.7	13.2	5.1
코크스·정제 석유제품	12.6	10.8	4.0
금속	9.5	15.4	20.2
조립식 금속제품	10.8	12.5	9.6
컴퓨터·전자·광학	8.3	8.3	7.5
자동차	21.1	22.0	18.0
발전·송배전업	9.5	6.7	7.6
상수도·폐기물처리업	10.7	7.8	9.5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그림 III-77] 베트남 산업생산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3.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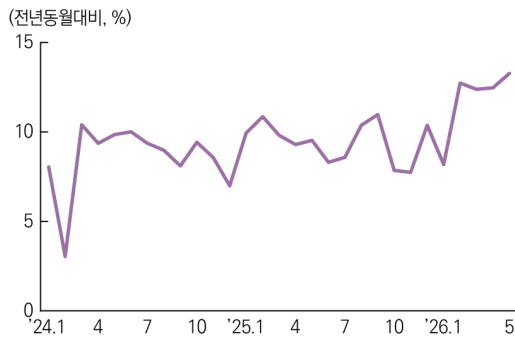
■ 2025년 베트남 소매판매는 소비 회복과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 지속

- 2025년 소비재 및 서비스 총소매판매액은 7,008.9조 동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 요인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도 6.7%를 기록
 -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20.4% 증가한 2,120만 명을 기록하면서 관광·운송·숙박·외식 등 서비스 소비 회복을 전인

■ 2026년 1~5월 중 상품 및 서비스 소매판매는 3,185조 동으로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

- (상품) 상품 소매판매는 전체 소매판매의 75.9%를 차지하는 2,418조 동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12.7%)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의류(10.2%), 식음료(9.6%), 가정용품·가전제품(7.5%), 문화·교육용품(5.6%) 등도 고르게 증가
- (서비스) 숙박·외식서비스 매출은 전년대비 18.0%, 관광서비스 매출은 12.0%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국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에 기인

[그림 III-78] 베트남 소매판매 증감률



[표 III-31] 베트남 상품 및 서비스 소매판매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5월
전체	9.0	9.7	11.9
재화	8.3	8.4	10.9
숙박 및 외식	12.9	14.9	18.0
관광	9.5	13.0	12.0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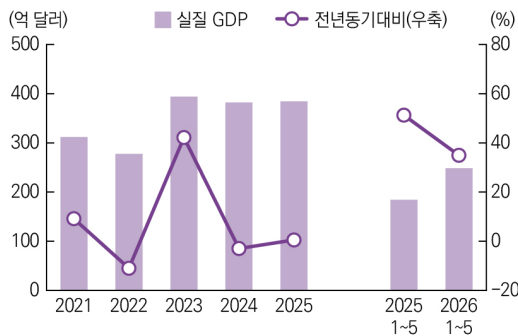
■ 2025년 총투자액(현재가격 기준)은 4,150조 5,000억 동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여 전년도 증가율(7.8%)을 크게 상회

- 2025년 총투자액(현재가격 기준)은 4,150조 5,000억 동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여 전년도 증가율(7.8%)을 크게 상회
- (투자 주체별) 국영(State-owned)부문 투자(비중 29.7%)가 1,233조 6,000억 동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하고, 민간부문(Non-state) 투자(53.9%)는 2,237조 1,000억 동으로 8.4% 증가하였으며, 외국인투자부문(16.4%)은 679조 8,000억 동으로 11.7% 증가
- 2025년 말 기준 총 외국인투자(FDI) 등록액은 신규 투자, 증액 투자 및 지분투자를 포함하여 384억 달러로 전년대비 0.5% 증가
- 신규 프로젝트 수는 전년대비 20.1% 증가하였으나 신규 등록자본은 12.2% 감소한 반면, 기존 프로젝트 증액투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투자·주식매입은 각각 0.8%, 54.8% 증가

■ 2026년 1~5월중에도 공공투자 확대와 견조한 FDI 유입으로 투자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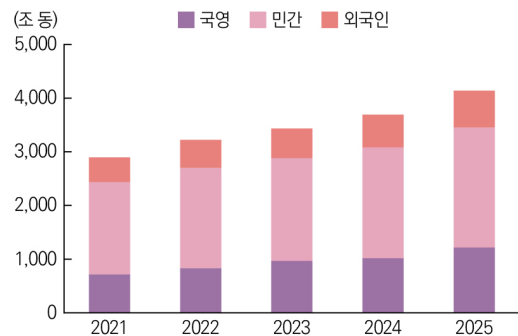
- 2026년 1~5월 공공투자 집행액(정부예산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54조 1,000억 동으로 연간 계획의 24.0%를 집행
 - 집행률은 전년동기(22.5%)를 상회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투자 확대 기조가 지속
- 2026년 1~5월중 베트남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9% 증가

[그림 III-79]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그림 III-80] 베트남 투자 주체별 총 투자 규모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5.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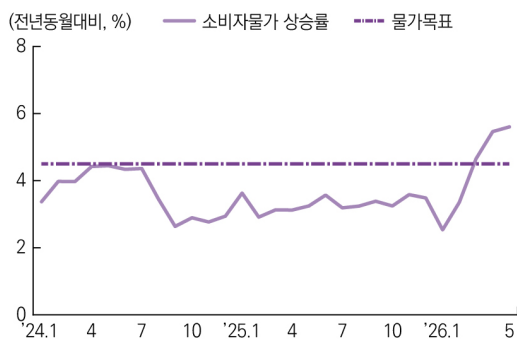
■ 2025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3.31% 상승하여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4.5~5.0%)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 (품목별) 2025년 물가 상승은 식품·외식서비스(3.3%), 주거·전기·수도·연료·건축자재(6.1%),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13.1%), 기타 재화·서비스(4.8%) 가격이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함
- 근원물가²⁸⁾ 상승률(3.21%)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31%)을 소폭 하회한 점을 고려하면, 2025년 물가상승은 주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2026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하는 등 물가 오름세가 확대

- (품목별) 주거·전기·수도·연료·건축자재가 전년동월대비 8.2% 상승하며 전체 CPI를 1.9%p 끌어올리는 등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 교통·운송 부문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상승하며 전체 물가상승에 1.2%p 기여하였고, 식품가격 역시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하여 전체 CPI를 1.8%p 끌어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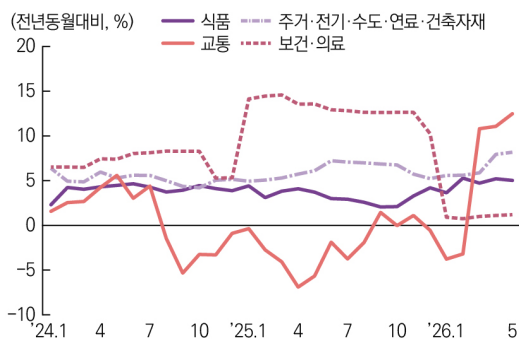
[그림 III-81] 베트남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물가목표는 연간 4.5~5.0%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중앙은행(SBV)

[그림 III-82] 베트남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28) 식품, 에너지, 국가가 관리하는 품목(의료·교육비 등)을 제외한 물가

6. 고용 및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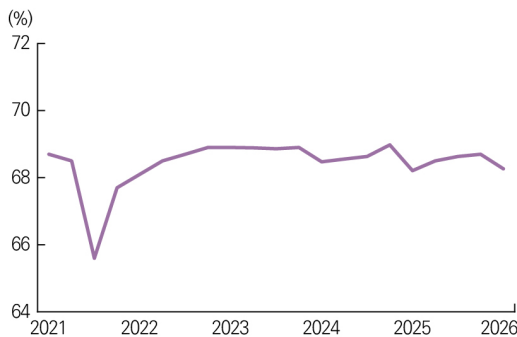
■ 2025년 베트남 노동시장은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에 힘입어 안정적 흐름 유지

- 2025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5,350만 명으로 전년대비 58만 9,000명 증가하였으나 생산가능인구가 더 빠르게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68.6%로 전년보다 0.2%p 하락
 - 다만 전문자격증·학위 등을 보유한 숙련인력 비중이 29.2%로 전년대비 0.8%p 상승하는 등 노동력의 질적 개선이 지속
- 취업자 수는 5,240만 명으로 전년대비 57만 8,000명(1.1%) 증가하며 견조한 고용 증가세를 유지
-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 확대에 힘입어 실업률은 2.22%로 전년대비 0.02%p 하락하였으며, 도시지역은 2.51%, 농촌지역은 2.02%로 나타남
- 2025년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840만 동으로 전년대비 68만 5,000동(8.9%) 증가하였으며, 이는 견조한 경제성장과 고용 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이 지속된 데 기인

■ 2026년 1분기에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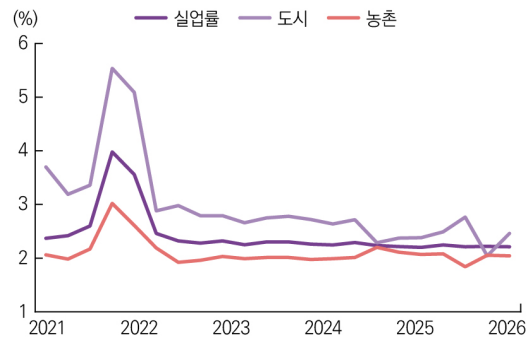
- 1분기 경제활동인구는 5,36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8만 7,800명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68.3%로 나타남
- 취업자 수는 5,250만 명으로 1.3% 증가하였으며, 산업별 고용 비중은 서비스업이 2,150만 명(41%)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및 건설업(1,770만 명)이 뒤를 이었음
- 실업률은 2.21%로 안정적이었으나, 15~24세 청년 실업률이 8.86%로 높은 수준을 유지

[그림 III-83] 베트남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그림 III-84] 베트남 실업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7.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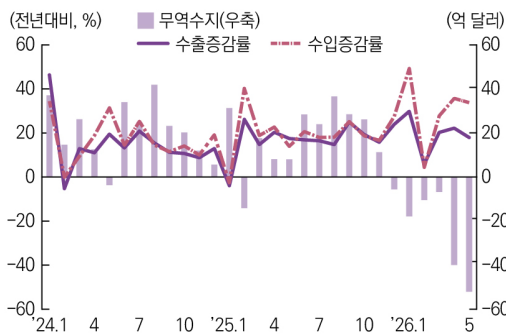
■ 2025년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대외부문의 호조가 지속

- 2025년 상품 교역규모(수출입)는 전년대비 18.2% 증가한 9,29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수출은 4,750억 달러로 전년대비 17.0%, 수입은 4,549억 달러로 19.4%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0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컴퓨터·전자기기(전년대비 48.4%), 기계류(13.2%), 휴대전화(5.2%)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
- (지역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전년대비 28.1%, 14.8% 증가하며 최대 수출시장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한국(12.7%)과 일본(8.8%)이 그 뒤를 이음
- 서비스 수출은 관광객 증가와 물류·운송 수요 확대에 힘입어 관광서비스(24.4%)와 운송서비스(23.6%)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한 303억 1,000만 달러를 기록

■ 2026년 1~5월 중 상품 수출은 19.5%, 수입은 30.8%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138억 달러 적자를 기록

- (품목별)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전년동기대비 46.2%), 기계류(22.1%), 휴대전화(17.7%) 등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 (지역별) 미국(21.7%), 중국(28.2%), 한국(14.7%), 일본(14.2%)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
- 수입은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57.1%), 기계류(21.6%), 석유제품(81.6%)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가 확대

[그림 III-85] 베트남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표 III-32] 베트남 주요 품목별·지역별 수출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5월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	26.6	48.4	46.2
휴대전화	2.9	5.2	17.7
기계류	21.0	13.2	22.1
섬유·의류	11.2	7.0	0.4
미국	23.2	28.1	21.7
중국	0.1	14.8	28.2
한국	9.3	12.7	14.7
일본	5.4	8.8	14.2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제2절 거시정책 현황

1.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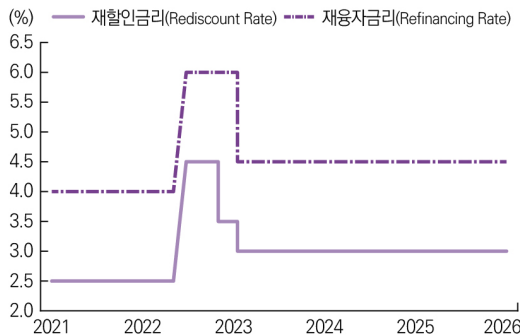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3년 6월 재융자금리(Refinancing rate)²⁹⁾를 4.5%로 인하한 이후 2026년 6월까지 동결하는 등 정책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경기회복을 지원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5년 신용 증가율 목표를 16%로 설정하였으나, 경기회복과 투자 확대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실제 신용증가율은 약 19% 수준까지 확대

■ 2026년 베트남 중앙은행은 물가 및 환율 안정에 유의하면서 성장 지원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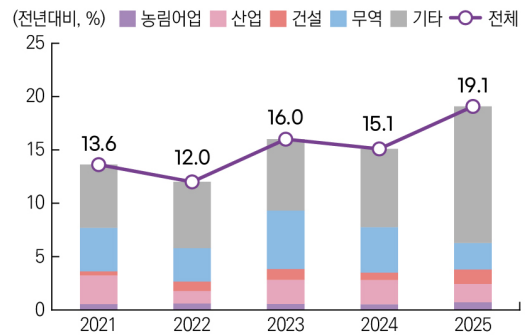
-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약 4.5~5.0%) 달성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권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제조업·수출·중소기업·농업·첨단기술산업 등 우선 지원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추진
- 한편, 부동산 등 위험부문에 대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부실채권 정리를 지속 추진

[그림 III-86] 베트남 기준금리



자료: 베트남중앙은행(SBV)

[그림 III-87] 베트남 업종별 신용증가율



주: 산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공급, 상하수도 포함

자료: 베트남중앙은행(SBV)

29) 재융자금리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정책금리이며, 재할인금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어음 등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

30) State Bank of Vietnam (2026), "Directive No. 01/CT-NHNN dated January 9, 2026 on the implementation of key tasks of the banking sector in 2026"

2. 재정정책

- **2025년 베트남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경제성장을 촉진**
 -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공공 투자 지출 규모를 약 825조 동(약 360억 달러)으로 편성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계획을 추진
 - 부가가치세(VAT) 인하 연장³¹⁾, 기업·가계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³²⁾ 지속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지원
- **2026년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2026~2030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달성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
 -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시장 육성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³³⁾
 -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과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

[표 III-33]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 2026-2030」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가 비전	(2030년) 현대적 산업기반을 갖춘 상위 중진국 진입(세계 GDP 규모 기준 상위 30위 진입)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경제성장률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이상
생산성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55% 이상
디지털 경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 30%
산업 구조	제조업 비중 GDP 대비 28% 달성 목표
3대 핵심 개혁 과제	① 제도개혁 및 투자여건 개선(행정절차 간소화, 규제개혁 등) ② 인적자원 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 ③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 구축
신성장동력	반도체, 인공지능(AI), 디지털경제, 바이오, 첨단 제조업, 녹색·순환경제, 신재생에너지

자료: National Assembly of Vietnam(2026)

31) 부가가치세(VAT) 2% 인하는 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조치로, 경기 부양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연장

자료: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Government News(2025), "Gov't extends VAT cut by next year's end; Resolution No. 204/2025/QH15," (June 17)

32) 법인세·부가가치세·토지임대료 납부 유예, 중소기업 및 우선산업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신용지원 등

33) National Assembly of Vietnam(2026), "Resolution No. 25/2026/QH16 on the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the 2026-2030 Period"

제3절 한-베트남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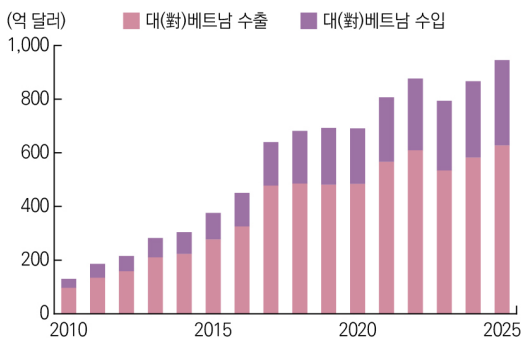
1.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현황

(1) 교역 규모 및 추이

■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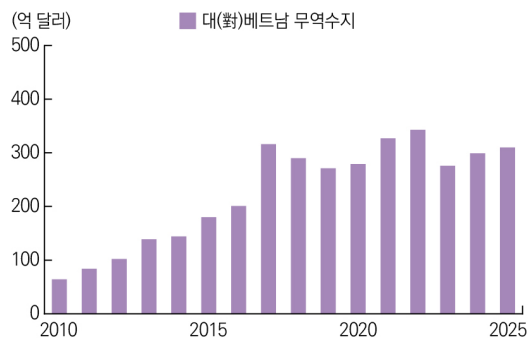
- 특히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³⁴⁾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
- 2025년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9.0% 증가한 94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베트남은 4년 연속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 대베트남 수출 628억 달러, 수입 318억 달러로, 대베트남 무역수지는 310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양국 교역은 단순 상품거래를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기반한 생산 네트워크 중심으로 고도화
 -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부품 등 중간재를 수출하고, 베트남은 이를 활용한 전자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하는 분업구조를 형성
-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

[그림 III-88] 한-베트남 교역 규모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I-89] 대(對)베트남 무역수지



34)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 품목별 교역 구조

■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등 중간재를 주로 수출

- (품목별) 반도체가 246.5억 달러로 전체 대베트남 수출의 39.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6.4%), 무선통신기기(3.6%), 합성수지(3.5%), 석유제품(3.4%) 등이 뒤를 이음
- 특히 대(對)베트남 수출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된 생산 분업 구조가 정착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중간재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

■ 한편 우리나라는 베트남으로부터 반도체·무선통신기기·의류·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소비재를 주로 수입

- (품목별) 반도체가 50.8억 달러로 전체 대베트남 수입의 16.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무선통신기기(15.5%), 의류(10.5%), 컴퓨터(9.4%), 산업용 전기기기(6.4%) 등이 뒤를 이음
- 이는 한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중간재를 베트남에 공급하고, 베트남은 이를 가공·조립한 전자제품과 의류·신발 등 소비재를 한국 및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상호보완적 생산분업 구조를 반영

[표 III-34] 한·베트남 주요 교역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번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반도체	246.5	(39.3)	반도체	50.8	(16.0)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3.3	(16.4)	무선통신기기	49.1	(15.5)
3	무선통신기기	22.5	(3.6)	의류	33.3	(10.5)
4	합성수지	21.7	(3.5)	컴퓨터	29.9	(9.4)
5	석유제품	21.6	(3.4)	산업용 전기기기	20.3	(6.4)
6	기구부품	18.1	(2.9)	신발	11.5	(3.6)
7	철강판	11.3	(1.8)	계측제어분석기	8.0	(2.5)
8	플라스틱 제품	10.8	(1.7)	기구부품	7.6	(2.4)
9	자동차부품	7.9	(1.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6.8	(2.1)
10	계측제어분석기	6.7	(1.1)	목재류	5.8	(1.8)
	총계	627.8	(100.0)	총계	317.7	(100.0)

주: 202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과 베트남의 투자 현황

(1) 투자 규모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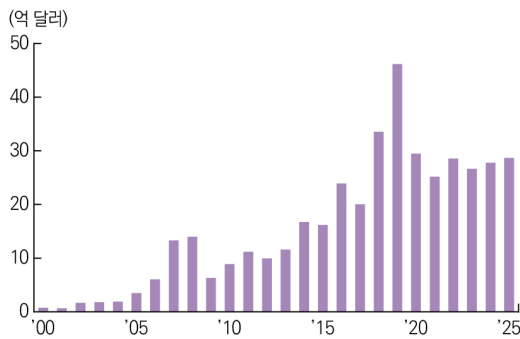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베트남의 WTO 가입과 한·베트남 FTA 체결 등을 계기로 크게 확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베트남의 성장세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유지

-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2000년 7,346만 달러에서 2007년 13억 2,900만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베트남의 제조업 성장과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2019년에는 역대 최대인 46억 1,600만 달러를 기록
- 이후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0~2021년에는 3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베트남의 견조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투자규모가 최근 28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
- 최근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전자·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일부 디지털·에너지 분야로 투자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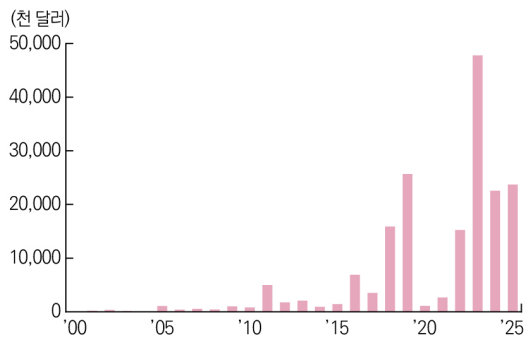
■ 베트남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최근 점차 확대되는 추세

- 베트남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4,778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
- 최근에는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 심화와 기업 간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한국 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

[그림 III-90] 한국의 대(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



[그림 III-91] 베트남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35) Vietnam Briefing(2025), "Vietnam-South Korea Trade and Investment: An Overview in 2025," (September 23)

(2) 업종별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 분야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

- 2025년 대(對) 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28억 6,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4% 증가
- (업종별) 제조업이 전체 대베트남 투자액의 71.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5.5%), 광업(5.3%), 정보통신업(3.3%) 등이 뒤를 이음
- 특히 전자·반도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정보통신업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면서 투자 분야가 점차 다변화

[표 III-35] 한국의 대(對)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액(업종별)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¹⁾ (%)
전체 [전년대비, %]	25.2 [-14.6]	28.6 [13.5]	26.6 [-6.8]	27.7 [4.1]	28.7 [3.4]	
광업	0.7	0.7	0.9	0.9	1.5	(5.3)
제조업	13.8	18.2	19.9	16.0	20.4	(7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0	3.4	0.1	0.0	0.8	(2.8)
금융 및 보험업	2.9	1.5	1.5	4.8	1.6	(5.5)
정보통신업	0.7	1.0	0.7	1.1	1.0	(3.3)

주: 1) 2025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베트남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규모는 크지 않으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확대

- 2025년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2,37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 증가
- (업종별) 서비스업이 전체 FDI의 대부분(96.6%)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음식점 등 전통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최근 정보통신·IT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표 III-36] 베트남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¹⁾(업종별)

(단위: 천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²⁾ (%)
전체 [전년대비, %]	2,656 [137.4]	15,231 [473.5]	47,775 [213.7]	22,556 [-52.8]	23,705 [5.1]	(100.0)
농·축·수산·광업	0	0	85	98	73	(0.3)
제조업	378	324	315	836	658	(2.8)
서비스업	2,278	14,737	47,376	21,549	22,899	(96.6)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0	170	0	72	74	(0.3)

주: 1) 신고금액 기준

2) 2025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2026 세계경제

World Economy 2026:
Economic Developments in Major Economies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3780

디자인·인쇄 더서울미디어(주) TEL. 02·2274·3588

ISSN 3140-3328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5-002307-10
ISSN	3140-3328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